

한인교육연구

Journal of Korean-American Education

2020년 교육연구 주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육연구

한국어 역사문화 교육연구

지역사회 교육연구

NAK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한인교육연구

Journal of Korean-American Education



한인교육연구 통권 제35호

발행인 오정선미

편집인 권예순

발행처 재미한국학교협회 www.naks.org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발행일 2020년 7월 15일

인쇄 대진인쇄소 디자인 장운영

Copyrights © 2020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Inc.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교육부 지원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01

NAKS 설립 목적 및 사명

03

한국어 교육연구

된소리 이야기

조현용

06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용 사전 소개

이승지

13

한국어 교육에서 효과적인 온라인 적용

윤상석

18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교육 모형 개발 구축 연구

방혜숙, 신윤경

27

02

한국역사문화 교육연구

자주외교와 한미우호의 상징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한중수

46

내가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

서동성

56

3.1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국학교

이경애

69

03

지역사회 교육연구

한국학교 지역연계 교육방안

주현영

76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전망: 나의 소견

김해암

85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인 한국학교 운영방안

최규용

92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연혁

96

NAKS 조직도

99

NAKS 및 14개 지역협의회 창립 연혁

100

역대 이사회 임원

101

역대 협의회 임원진

102

역대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지

103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설립 목적 및 사명

재미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는 미주에 있는 1,000여 주말 한국학교의 연합체이다.

한국어, 한국문화 및 역사 교육의 개발과 육성, 한국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한 긍지 함양, 교육 정책에 대한 건의와 협조 추구 등 한인 차세대들에게 올바른 정체성과 긍지를 심어주는 종합 한인 교육 기관으로서 1981년에 창립된 이래 현재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단체(501(c)(3) EIN #52-1596204)로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1,000여 개의 회원 학교들이 함께 2세들의 미래 교육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미국의 전 지역을 지역별로 나누어 전국 협의회 산하 14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각 지역협의회는 소속 한국학교의 발전과 교사들의 교육 전문성 향상 그리고 2세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자체 행사를 하고 있으며 전국 협의회와 교육 행사 및 교사 연수 그리고 교육 정보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고 있다.

산하 14개 지역 협의회로는 남서부 지역 (휴스턴), 뉴잉글랜드 지역 (보스턴), 동남부 지역 (애틀랜타), 동북부 지역 (뉴욕), 동중부지역 (필라델피아), 미시간 지역 (디트로이트), 북가주 지역 (샌프란시스코), 서북미 지역 (시애틀), 워싱턴 지역 (D.C.), 중남부 지역(인디애나 폴리스), 중서부 지역 (시카고), 콜로라도 지역 (덴버), 플로리다 지역 (마이애미), 그리고 하와이 지역 (호놀룰루) 등이 있다.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

Mission Statement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 cultivates the development of strong bonds of friendship among Korean Schools and instruction in Korean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It is an organization operating with the goal of nurturing and educating Korean-American in the U.S. Its objective is to instill pride in Korean-American through a prop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Korea, and of its culture, history, and language. Its other objective is to examine and influence the educational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in the U.S. to benefit Korean-American.

Structure and Operation

NAKS was established in 1981 in Washington, D.C. and is currently spread across the fifty states of the U.S. NAKS unites over one thousand Korean schools and is recogniz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s a non-profit educational organization(501C-3, EIN #52-1596204). The association is composed of a general assembly, a meeting of officers, a board of directors, and a council of presidents representing NAKS' fourteen regional chapters that collaborate to achieve its stated objectives. While maintain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body, each region implements activities to continually improve and aim for excellence in the education its local Korean schools provide.

NAKS' Goal

Young Korean-American Education
Serve regional chapters, local Korean schools, and Korean-American societies

Training of Teachers both first generation
Equip them with necessary Korean language, history & culture education

Nurture & Training for the 1.5 and 2nd Generation Teachers
Help them to recognize their heritage and identity as Korean-American and to network with others Korean school teachers: Equip them for other 2nd generation Korean-American Students

NAKS' Events & Activities

Intensive Teacher Training Program
Annual Conference and General Assembly
Publish a Journal of Research in Korean Education for teachers
Support NAKS Member Schools- More than 1,000 Regional Korean schools in the U.S.
Sending the qualified instructors to each regional chapter's own conference (14 Regional Chapters)
Support for Regional Chapter's Teacher Conference
Develop & Publish Teaching Materials and Assessment/Measurement System
Annual SAT Korean Pilot Test
Develop & Publish Hangeul Textbooks (7 books total so far)
Develop & Publish books for Korean History and Culture
Develop & Publish SAT Korean Workbook
Education of 2nd Generation of Korean-American
Educational Curriculum Contest for Korean Schools
Speech Contest for the Korean-American Students
Writing Contest for the Korean-American Students
Publish Annual White Paper

Organization

NAKS is an organization of weekend Korean schools covering 50 states and Samoa. About 1000 schools are organized under 14 regional chapters.

Regional Chapters

New England Chapter: MA, NH, VT, RI, ME
Northeast Chapter: NY, NJ, CT
Mid-Atlantic Chapter: PA, DE, NJ
Washington D.C. Chapter: Washington D.C., MD, VA, WV
South East Chapter: GA, NC, SC, AL, TN
Florida Chapter: FL
Michigan Chapter: MI, Northwest Ohio
Midwest Chapter: IL, WI, MN, IA, MO, KS, NE, ND, SD
Midsouth Chapter: IN, OH, KY
Colorado Chapter: CO, WY
Southwest Chapter: TX, OK, AR, MS, LA
Northwest Chapter: WA, OR, ID, MT, AK
Northern California Chapter: Northern CA, UT
Hawaii Chapter: HI, Samoa

NAKS Present & Future

Develop Textbooks of Korean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Develop Teaching & Training Material for Teachers
Install the Pride as the 2nd Generation of Korean-American through Prop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Korea and its Culture, History and Hangul, the Korean Language.
Promot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mong 1,000 Korean Schools in United States.

Membership Qualifications

Institutional Member:
Must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 and pay the school membership fee to local chapter. Can participate and vote in the General Assembly.

Individual/Private Member:
Must have represented a Korean School for three years, or must have taught in a Korean School for five years, or must have contributed service as an officer in NAKS for two years, or must have devoted himself or herself to Korean education research and Korean studies.

Benefits for Member

Free subscription of NAKS' Journal of Research in Korean Education
Free subscription of annual NAKS Report
Discount on Korean language textbook series created and published by NAKS
Discount on registration fees for attending NAKS' annual conference
Subsidized lodging when attending NAKS' annual conference
Access to a network of experts in the field of Korean-American education

1

한국어 교육연구

된소리 이야기

조현웅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용 사전 소개

이승지

한국어 교육에서 효과적인 온라인 적용

윤상석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교육 모형 개발 구축 연구

방혜숙, 신윤경

된소리 이야기

조현용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

우리말 소리의 중요한 특징을 들라면 된소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제일 어려워하는 소리도 된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사소리와 거센소리, 된소리의 구별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소리 구별의 문제는 아닙니다. 소리의 정확한 구별보다는 된소리의 느낌을 살펴보고 된소리로 시작되는 어휘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실제 한국어 수업에서 어휘를 활용할 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각각의 된소리 이야기는 딱딱한 글의 형식이 아니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

1. 쌍기역 이야기

된소리 글자는 이름에서부터 논란이 있습니다. 쌍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역을 겹쳐 놓은 것이기에 ‘쌍’이라는 말을 붙였겠지만 쌍(雙)은 한자어입니다. 굳이 우리말 자음의 이름을 만드는데 한자를 쓰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북한에서는 ‘된기역’이라는 말을 씁니다. 된소리로 나니까 된기역인 셈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남북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겁니다.

쌍기역은 기업 등에서 특강의 재료로도 많이 쓰입니다.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어휘가 성공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끼, 깡, 궂, 궂, 궂, 궂, 궂, 궂’ 등의 어휘를 제시하고, 그에 맞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쌍기역이라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를 한 느낌도 듭니다만, 그 덕분에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쉽게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제시한 7개의 어휘가 성공의 조건으로 여겨지나요? <성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과 같은 책에서 영향을 받아서인지 7을 강조합니다만, 숫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7가지 성공의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어휘를 담은 느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성공을 위한 쌍기역을 고르라면 우선 ‘꿈’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내 것이 되기 어렵습니다. 힘들수록 꿈을 꾸어야 합니다. ‘끼’는 타고 난 것처럼 말하지만 발전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숫기가 없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활발하게 일하는 것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끼는 원래 기운의 의미입니다. ‘기(氣)’를 강하게 발음한 것입니다. 없는 끼를 굳이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바꾸고 싶다면 조금 더 한 발짝 더 앞으로 움직여 보기 바랍니다. 기를 모으면 끼가 됩니다.

‘궂’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궂을 부리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지만 궂이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궂을 부리는 것은 다른 이를 힘들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 일을 미루는 것이니까요. 반면에 궂을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좋은 생각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은 궂입니다. 그리고 보니 궂 중에서는 안 좋은 것도 많네요. 대표적으로 ‘궂병’을 들 수 있습니다. ‘잔궂’도 자기를 망가뜨리는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 밖에도 용기를 내라는 ‘깡’, 좋은 모습을 만들라는 ‘꼴’, 좋은 사람을 널리 만나라는 ‘꾼’ 등은 잘 정리해 보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종종은 이렇게 숫자로 정해진 어휘의 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쌍기역이 아니라 기역도 니은도 다 가능할 겁니다. 같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휘를 골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의와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한편 쌍기역 발음은 ‘꽉’ 막혀있는 느낌입니다. 꽉 막혔다가 터지는 음인데, 이 발음이 없는 언어가 많습니다. 일본인이 제일 어려워하는 발음 중 하나가 바로 된소리입니다. 서양언어에서도 된소리의 발음은 쉽지 않습니다. 혀끝에 힘을 주어 막는 음이기에 강조의 느낌이 있습니다. ‘꼭’이라는 단어나 앞에서 언급한 ‘꽉’의 느낌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손을 꼭 쥐고, 꽉 잡은 느낌입니다. ‘꺅아내고, 꺅고, 끌어낸’ 느낌이 있습니다. ‘끝’이라는 말의 느낌은 어떤가요?

쌍기역, 된소리 기역은 막힌 느낌도 있지만, 막힌 것을 뚫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야 끼도 생기고, 궂도 나오고, 꿈도 생기지 않을까요? 끝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꿈을 깨뜨리지 말고, 꼭 이루기 바랍니다.

2. 쌍디귤 이야기

디귤을 겹쳐 쓰고 있는 쌍디귤은 다른 ‘쌍 계열’의 말과 마찬가지로 딱딱한 느낌을 줍니다. 디귤도 막혔다가 터지는 파열음인데 이를 더 달았다가 터뜨리니까 강한 느낌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의성어나 의태어를 보면 이런 느낌이 더 잘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딱’이 있겠네요. 무엇을 부딪거나 부러질 때 나는 소리입니다. 조금 약하게 하면 ‘뚝’이 됩니다. 약한 것은 모음에서 오는 느낌의 차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딱’이나 ‘뚝’이 합쳐져서 ‘뚝딱’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시계소리를 나타낼 때도 쓰이는 표현입니다. ‘딱’이 연속으로 나오면 연속적인 소리가 됩니다. 바로 ‘뚝뚝’입니다. 나무에 딱딱거리는 새가 바로 ‘딱따구리’입니다. ‘뚝뚝’은 부사로 쓰여서 정확히 들어맞는 경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딱딱 들어맞는 거죠. 똑도 겹쳐 사용하면 ‘똑똑’이 됩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사용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머리가 영리한 사람을 ‘똑똑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원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이 명확한 사람을 표현할 때 ‘똑 부러지다’라고 하는데 똑똑한 느낌이 납니다. ‘똥똥하다, 똥망똥망하다’라는 표현에도 쌍디귤이 보입니다.

쌍디귤 발음은 디귤 발음을 강조할 때도 쓰입니다. 디귤이 강하게 발음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아마도 쌍디귤이 후대에 발달했다면 디귤을 강하게 발음하다가 독립적인 소리로 발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두드리다’를 ‘뚜드리다’로 발음하고, 제방을 나타내는 ‘둑’을 ‘뚝’이라고 합니다. 마당의 ‘뜰’은 ‘들’에서 발달한 어휘로 봅니다. 집의 작은 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귤이 쌍디귤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뜰은 다시 ‘뜨락’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우리말에서 두드리다와 뚜드리다, 둑과 뚝의 의미가 나뉘어 구별될 수도 있습니다.

쌍디귤은 의외로 우리말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어휘에도 많이 보입니다. 쌍디귤 발음이 후대에 발달했을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신체나 자연, 친족 명칭 등에 된소리가 쓰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신체와 관련된 말 중에서는 배설물 관련 어휘에 쌍디귤이 보이네요. ‘똥과 똥, 똥’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좀 더러운 느낌도 듭니다. 자연 중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뜰’이 있고, 친족 중에는 ‘딸’이 있습니다. 음식 중에는 ‘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두 중요한 어휘입니다.

저는 기초어휘에 나오는 쌍디귤 어휘를 보면서 후대에 발달한 발음일지는 모르나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어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땅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과 조화를 이루는 딸의 중요성도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배설물인 ‘똥’도 꺼리는 어휘이기는 하지만, 삶에서는 매우 중요한 어휘입니다. 물론 ‘똥’을 빼 놓을 수가 없겠지요. 노동으로 흘리는 땀, 노력으로 이루는 땀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조건일 겁니다.

한편 떡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날에는 떡을 먹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중요한 날인 백일, 돌, 생일에는 떡을 해서 먹습니다. 설날에는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은 국이기도 하지만 떡이기도 합니다. 추석의 대표 음식은 송편입니다. 역시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지에는 팔죽을 먹지만 그 속에는 새알심이라는 떡이 들어갑니다. 새알심이 없는 팔죽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사를 온 사람이 이웃에게 돌리는 떡입니다. 떡은 이웃에게 건네는 우리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쌍디귤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어휘 속에서 느껴봅니다.

3. 쌍비읍 이야기

쌍비읍은 ‘뵤읍’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비읍과 피읍이 다른 음이듯이 비읍과 쌍비읍은 관계가 없는 음입니다. 서로 다른 음이지요. 비읍을 두 개 겹쳐서 발음한 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말의 자음은 기억부터 히읏까지 14개와 된소리 5개, 합쳐서 19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끼역, 띠근, 뵤읍, 씨웃, 찌웃’이라고 이름을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쌍(雙)’이라는 한자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말의 된소리는 후대에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뿌리’도 원래는 ‘불휘’였습니다.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불휘 기픈 나무’라는 표현에 보이는 어휘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읍 어휘가 된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된소리가 된 어휘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느낌 때문에 된소리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뿌리라는 말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지지 않는가요? 뿌리는 땅에 박혀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바탕입니다.

쌍비읍이 강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몸에 관련된 어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휘가 ‘뻘’입니다. 어쩌면 신체 중에서 두개골 부분을 제외하고는 뻘이 가장 단단한 부분입니다. 두개골도 뻘이라고 할 수 있으니 우리 몸에서 뻘은 정말 강한 부분입니다. 동물의 ‘뿔’은 뻘이 변한 부분입니다. 뿔이 주로 공격 수단이기도 하니 강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난 것을 ‘뿔이 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뿔의 공격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뻘과 관련이 있는 동사로는 ‘뻘다’를 들 수 있습니다. 발목의 뻘이 잘못 되어서 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척 아프죠. 뻘는 원인으로는 발을 ‘뻘끗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뻘, 뻘다, 뻘끗하다’에 모두 쌍비읍이 들어있습니다. 우연 이라기에는 놀라운 공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뻘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는 이빨이 있습니다. 이빨도 뻘쪼. 이빨은 뒤의 소리에 쌍비읍 ‘뻘’이 들어있습니다. 이빨에만 해당하는 동사는 아닙니다만, ‘이를 뻘다’, ‘이를 뻘다’와 같은 표현에도 쌍비읍이 보입니다. 송곳니 같은 ‘뽕족한 이빨’도 있습니다.

소리를 나타내는 말에도 쌍비읍이 보입니다. 주로 막혀 있다가 터지는 소리입니다. 방귀소리가 대표적이죠. 방귀의 ‘뽕’ 소리는 막혀 있다가 터지는 음입니다. 슬며시 새어나오는 경우에는 ‘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소리로 표현하자면 ‘피식’이라고나 할까요? 깜짝 놀라게 터지는 소리로는 ‘뽕’이 있습니다. 타이어나 풍선 등이 ‘뽕’ 소리를 내며 터집니다. 자동차 경적을 울릴 때도 ‘뽕뽕!’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로 갑자기 웃음이 나서 참지 못할 때도 ‘뽕 터지다’리는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뽕 터지는 이야기를 잘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주변을 즐겁게 하는 건 좋은 겁니다.

쌍비읍이 들어가는 의성어 중에서 가장 반가운 소리는 ‘뽕뽕’입니다. 뽕뽕은 서양식 키스와는 다릅니다. 입술로 소리는 내는 입맞춤입니다. 즉, 뽕뽕은 행동보다는 소리인 겁니다.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름이 ‘뽀뽀뽀’입니다. 웬지 뽀뽀는 아이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인사처럼 하는 입맞춤인데 주로 볼에 뽀뽀를 합니다. 아이들은 입에도 뽀뽀를 하지만 주로 볼에 합니다.

쌍비읍은 강한 음이기는 하지만 의외로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아가들의 뽀뽀는 정말 귀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이와 뽀뽀할 때가 아닐까요? 아이들의 이야기나 행동에 뽀 터졌던 순간도 기억이 납니다. 재미있고,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아이들이 다 커 버린 저로서는 옛 추억입니다. 갑자기 그리움이 밀려듭니다.

4. 쌍시옷 이야기

쌍시옷이라고 하면 일단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쌍시옷 발음을 했다고 하면 욕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쌍소리의 느낌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아무래도 ‘씨X ~’과 같은 표현이 생각이 나기 때문일 겁니다.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뽀 소리로 처리되거나 아예 소리를 없애 버립니다. 된소리는 거친 느낌을 준다는 학설에도 맞는 예처럼 보입니다. 쌍시옷이라는 말에도 쌍시옷이 담겨있네요. 물론 한자 쌍(雙)이기는 합니다만. 쌍은 좋은 말이지요. 함께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짝이 되는 겁니다. 쌍시옷은 사람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이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짝이라는 말에도 쌍지읒이 있네요.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는 글자입니다.

원래는 ‘상소리’라는 말인데 사람들은 ‘쌍소리’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야 좀 시원한 느낌인가 봅니다. ‘상놈’도 ‘쌍놈’이라고 발음하여 감정을 싣습니다. 상놈의 ‘상’은 한자 ‘常’이니 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것’도 마찬가지로 ‘쌍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스럽다’와 ‘쌍스럽다’의 차이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의미지만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쌍’이라고 하면 더 낮은 취급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시옷 발음과 쌍시옷 발음을 구별해 보면 된소리의 느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옷은 기억이나 디근, 비읍, 지읒과는 달리 거센소리의 짝이 없습니다. 키읓, 티읓, 피읓, 치읓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쌍시옷에 거친 느낌을 모두 담은 듯합니다. 시옷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어서 그리 강렬함이 없습니다만, 쌍시옷은 멈추었다가 터지는 느낌이어서 뭔가를 담아놓은 느낌이 있습니다. 모아놓았다가 터트리는데 것이기에 감정이 실립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감정을 막아 놓는 것이니 강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휘와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말의 느낌을 비교해 보세요. ‘세다[強]’라는 말에서 센 느낌이 나나요? 웬지 ‘썰다’라고 발음해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시옷이나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말 중에서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더 살펴볼까요? 촉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솔’ 부는 바람이나 ‘시원한’ 느낌과 달리 ‘쌀쌀’은 확실히 더 추운 느낌이

납니다. 쓸쓸함이라는 표현에서는 외로움이 묻어납니다. 바람이 ‘쨍쨍’ 불니다. 빨리 달려가는 경우에도 ‘쨍’이라고 표현합니다. 센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씩씩’이 소리를 나타낼 때는 숨을 크게 내는 소리입니다. 씹씹거린다고도 표현하죠. 물론 ‘씩씩하다’라고 할 때는 숨소리가 아니라 용감하고 다부진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찌면 용감한 모습을 나타낼 때, 숨소리가 ‘씩씩’ 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된시옷 발음이 꼭 강하거나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어휘는 오히려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어휘가 ‘씨’입니다. 세상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씨가 자라나면 ‘작’이 됩니다. 작이 중요하다는 것은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 즉 작부터 알아본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 대신에 ‘작수’라는 말도 씁니다. 나무에게도 사람에게도 작수가 노략다는 말은 치명적입니다. 잘 자랄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에서 욕으로 쓰이는 쌍시옷 말도 우리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어휘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쌀, 쑥, 쌀다, 썩다, 쏘다, 쪼다, 쪼다, 쪼다, 쪼다, 쪼다, 쪼다’ 등의 어휘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공통점이 느껴지는가요? 강한 느낌입니까? 인간의 원초적이 느낌입니까? 쌍시옷 자체는 부정적인 느낌이 아닌데,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휘를 쌍시옷으로 발음할 때 부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쌍시옷 발음을 못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쌍시옷 발음을 안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덜 실릴까요? 궁금하네요.

5. 쌍지읒 이야기

쌍지읒으로 시작하는 말 중에서 가장 기분 좋은 단어를 고르라면 저는 ‘작’을 이야기합니다. 함께하는 느낌이 좋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소개할 때 ‘제 짝입니다.’라고 표현하는 말도 좋습니다. 짝을 찾아야 한다는 말도 좋은 말입니다. 짝을 ‘작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작궁이라고 하면 주로 초등학교 때 같이 앉아있던 아이가 생각납니다. 새 학기가 되면 누구하고 짝이 될까가 궁금했습니다. 반에 따라서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아이와 짝이 되었다고 새 학기 첫날부터 울던 아이도 생각이 나네요. 짝과 잘 지내게 되면 단짝이 됩니다. 단짝 친구가 생기면 한 해가 즐겁습니다.

짝이라는 말이 재미있는 것은 소리를 나타내는 말과 관련이 있어서입니다. 손뼉을 치면 ‘작!’ 소리가 납니다. ‘작작작’이 박수소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손뼉은 한 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짝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작작작’이라는 말에서 짝이라는 어휘가 나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있어야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짝이 보여주는 세상입니다. 훌쩍이라는 아이들의 놀이도 생각납니다. 훌은 외롭습니다.

소리를 나타내는 말 중에는 ‘쪽’이 있습니다. 주로 입맞춤을 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 기분 좋은 입맞춤 소리네요. 입을 볼에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기도 합니다. 기분이 아주 좋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쪽쪽’ 빨아먹는다는 표현도 하는데, 같은 ‘쪽’이라도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이렇게 느낌이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면서 살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라도 다른 이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쪽은 방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모두 방향입니다. 이쪽,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쪽은 ‘조각’과도 의미가 상통합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어라’고 할 때는 조각을 의미합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쪽과 조각을 나타내는 쪽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부분’이라는 의미가 나타납니다. ‘이쪽’은 이 부분이라는 의미가 되고 콩 한 쪽도 콩의 한 부분이 됩니다. 서로 관계가 적어 보이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관성이 보입니다. 사람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쌍지읒 발음도 후대에 발달한 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된소리는 단순히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강조를 위해서 쓰였다가 점점 독립적인 단어로 굳어졌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집게를 [찹게]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집게보다는 [찹게]가 더 짝 쥐는 느낌이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은 집게와 [찹게]에 의미 차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각조각도 [조각조각]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쪼가리’라는 말은 아예 ‘쪼’로만 나타납니다. 자장면을 짜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지금은 두 단어가 복수의 표준어가 된 것처럼 앞으로는 [찹게]도 새로운 단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미는 아마 ‘강한 집게’일 듯합니다.

쌍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만히 살펴보면 느낌의 공통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몇 개의 어휘를 보이겠습니다. ‘찌다, 찹다, 찹, 쫓다, 찹르다’의 경우에 어떤 느낌이 나는가요? 점점 쌍지읒 발음의 어휘가 늘고 있는 추세로도 보입니다. 요즘의 유행어인 ‘짱’이라는 말도 원래는 ‘장(長)’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원래는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말인데, 가장 좋다는 의미로 바뀐 것입니다. 장을 강조하니 ‘짱’이 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짱’이라는 어휘는 장에서 나왔지만 장과는 다른 새로운 어휘가 된 것입니다. 의미의 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휘의 발음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발음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감정이 실리고, 의미를 바꿉니다. 그렇게 바뀐 발음은 새로운 어휘로까지 발달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의 문자 한글을 보면서 발음을 생각해 보고, 발음을 생각하면서 의미를 만납니다. 그리고 문자와 발음, 의미에 담긴 우리의 생각을 보게 됩니다.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육용 사전 소개

이승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연구원)

머리말

사전은 의사소통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어휘 연구의 산물이자, 어휘 교육의 중요한 보조 자료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역시 어휘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한국어 학습자 수 증가에 따른 한국어 교육용 사전 편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교육의 기본이 되는 5만여 어휘를 수록한 《한국어기초사전》을 2010년에 기획하여 2016년에 개통하였다. 또한, 《한국어기초사전》을 11개 언어¹로 번역한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이하 《한-외 학습사전》)을 함께 개통하였다.

《한국어기초사전》과 《한-외 학습사전》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사전이라는 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에게 어휘 학습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학습자의 어휘 학습과 관련하여 두 사전이 가지는 실제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한국어기초사전》과 《한-외 학습사전》의 사업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한국어기초사전》과 《한-외 학습사전》의 특징

《한국어기초사전》과 《한-외 학습사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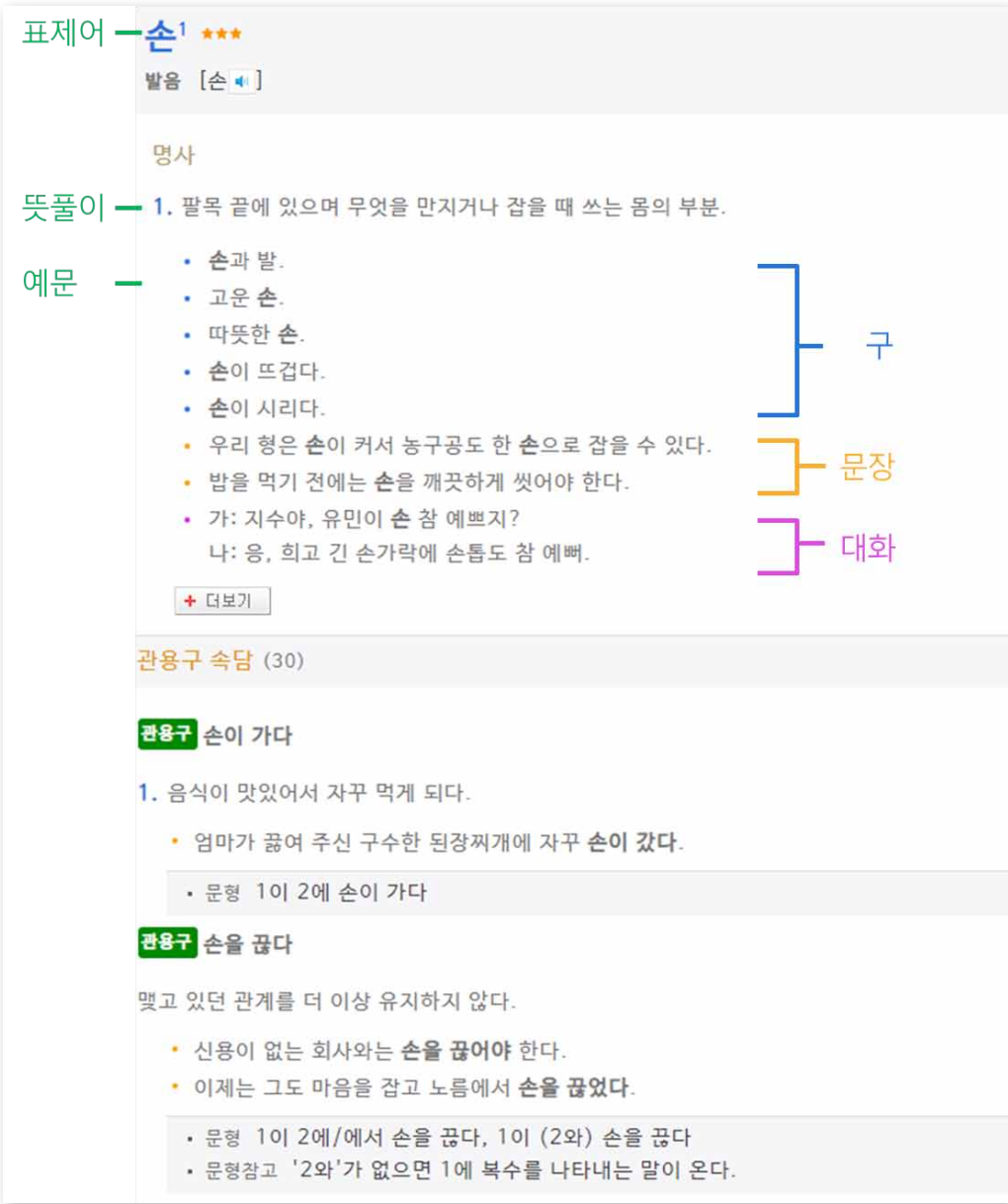
첫째, 《한국어기초사전》의 주요한 특징은 ‘학습사전(learner’s dictionary)’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습사전은 모국어 화자가 아닌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어 교육용 사전인 《한국어기초사전》은 모국어 화자 대상의 전통적인 사전과는 표제어 선정 및 뜻풀이 방식, 예문 선정부터 다를 필요가 있다. 《한국어기초사전》은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5만여 어휘를 표제어로 삼았으며, 한국 고유의 문화 어휘를 비롯하여 문법·표현, 활용형, 관용구와 속담까지 아울러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기초사전》의 뜻풀이 방식, 예문 제시 방식 등 학습사전으로서의 특징적인 요소를 아래 <그림 2>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고자 한다.²

¹ 《한국어기초사전》개통 당시(2016년 10월 5일)에는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타이어, 프랑스어의 10개 《한-외 학습사전》이 함께 개통되었으며, 2020년 5월 15일에 《한국어기초사전》을 중국어로 번역한 《한-중 학습사전》이 개통되어 총 11개 《한-외 학습사전》이 운영되고 있다.

² 《표준국어대사전》과 《한국어기초사전》의 비교를 위해 검색 결과 화면을 편집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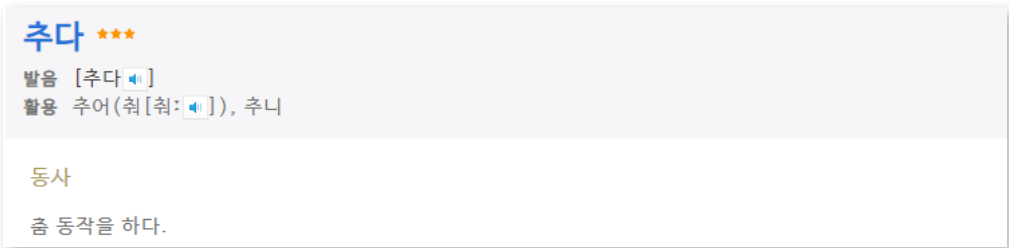
<그림 1>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손1’의 사전 보기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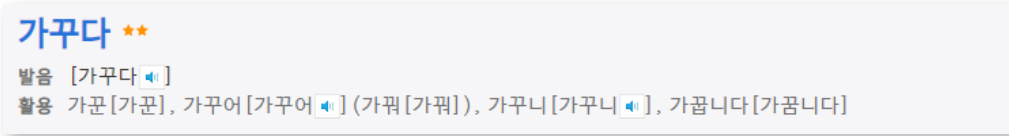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어기초사전》에서 ‘손1’의 사전 보기 화면

<그림 1>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사전 보기 화면이며, <그림 2>는 《한국어기초사전》의 사전 보기 화면이다. 두 사전은 뜻풀이, 발음 정보 등의 미시 구조는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기술 방법이 상이하다. 《한국어기초사전》은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보다 쉬운 말로 뜻풀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에서 자주 쓰이는 구, 문장, 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문은 학습자에게 표제어가 실제 사용되는 맥락을 풍부하게 보임으로써 학습자의 어휘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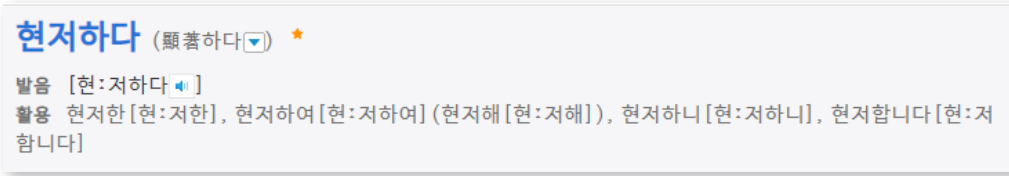
표제어 우측의 별표를 통해서는 해당 표제어의 어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어휘 등급 표시는 한국어 수준별로 알아야 할 어휘를 따로 구분한 것으로서, 교수자에게도 어휘 교육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어휘 등급은 국립국어원(2015)의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에 기초하였으며, 초·중·고급 한국어 수준별 어휘 등급 표시는 <그림 3~5>와 같다.



<그림 3> 초급 어휘 등급 표시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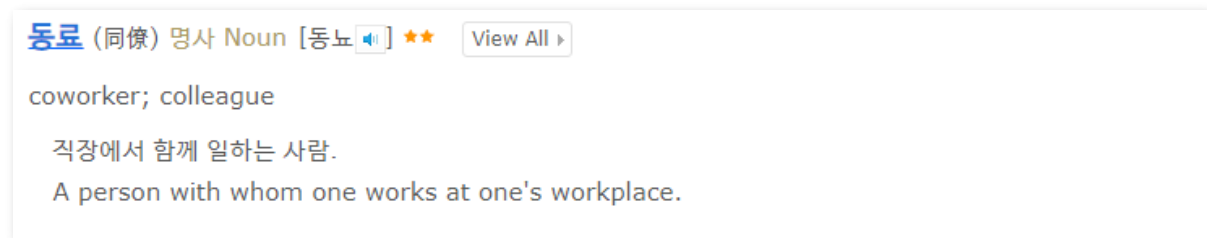


<그림 4> 중급 어휘 등급 표시의 예



<그림 5> 고급 어휘 등급 표시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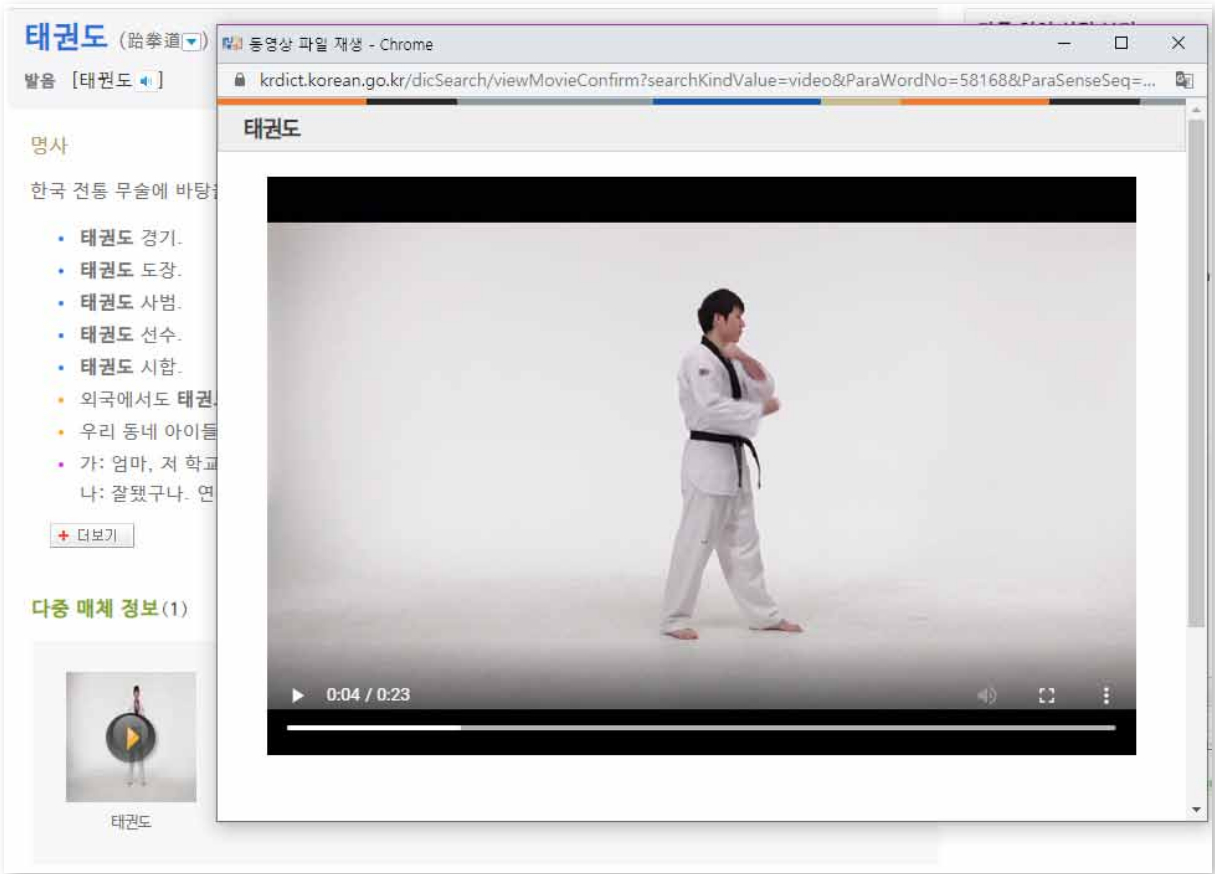
둘째, 《한-외 학습사전》은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은 11개 언어로 번역된 사전으로서, ‘이중 언어화 사전(bilingualized dictionary)’이라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이중 언어화 사전’은 모국어 화자 대상의 단일 언어 사전과 외국어 학습자 대상의 이중 언어 사전의 장점을 모두 갖는 사전으로서, 학습사전의 성격도 가진다.³



<그림 6> 《한-영 학습사전》에서 ‘동료’ 또는 ‘coworker’ 검색 결과 화면 일부

《한-외 학습사전》은 한국어와 학습자의 모국어로 어휘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 결과도 두 개 언어로 살펴볼 수 있다. 《한-영 학습사전》의 예시를 살펴보면, ‘동료’ 또는 ‘coworker’로 검색하여 <그림 6>과 같은 검색 결과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표제어의 영어 대역이 제시되며, 뜻풀이가 한국어와 영어 모두로 제시되어 한국어 능력이 제한적인 학습자의 효과적인 어휘 학습을 도울 수 있다.

셋째, 《한국어기초사전》과 《한-외 학습사전》은 웹 기반 사전이기 때문에 종이 사전과 달리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및 양에 제약이 없다. 삽화, 사진은 물론 동영상, 발음 등 다중 매체 정보를 제약 없이 제공할 수 있어 단순 어휘집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7>과 같이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충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어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7> 《한국어기초사전》에서 제공하는 ‘태권도’의 다중 매체 정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기초사전》과 《한-외 학습사전》은 범용 사전이 아닌 한국어 교육용사전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어휘 이해 및 사용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맺음말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기초사전》과 《한-외 학습사전》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육용 사전인 《한국어기초사전》과 《한-외 학습사전》이 교수·학습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어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이해 및 사용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

3 ‘단일 언어 사전’은 흔히 아는 ‘국어 사전’과 같이 하나의 언어로 된 사전을 말하며, ‘이중 언어 사전’은 대체로 표제어는 목표어로, 뜻풀이는 학습자의 모국어로 제시되는 사전을 말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효과적인 온라인 적용

윤상석

(University of Iowa)

1. 들어가며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온라인 도구들의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외국어 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e.g. Stanley 2013, Walker & White 2013). 상호 의사소통이 중요시되는 외국어 교육에서 온라인의 활용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든 교육에서 전면적으로 온라인화가 진행되면서 교사들과 학습자들이 온라인을 통한 수업에 더욱 익숙해졌고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에도 한국어 교육에서 온라인 이용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 대면 수업 방식에서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교사의 강의를 듣고 교사 주도하에 수업 활동을 진행하고 수업 후에 주어진 숙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반면에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 교과 내용을 미리 공부하고, 화상으로 온라인 미팅에 참여해 각종 온라인 도구 등을 통해 학습 활동을 하고, 수업 외의 시간에 개별 또는 그룹으로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통적 대면 수업의 장점과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의 장점을 합친 blended learning도 요즘 관심을 받고 있는 수업 방식이다 (Bonk and Graham, 2006/2012).

온라인 수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터넷 인프라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 의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기가 항상 쉽지는 않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온라인 도구들의 적극적 활용이 전통적 대면 수업에서 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어서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를 온라인을 통해 가르칠 때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들을 짚어보고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수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도구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Table 1: 온라인 적용 방식 및 일반적 특징

Face-to-Face 수업	Blended Learning 수업	Fully Online 수업
▶교사와 학생 직접 소통 ▶학생들 사이의 유대감 ▶교사 주도적 ▶강의 위주 ▶시공간의 제약 ▶부분적 온라인 이용	▶ Flipped Classroom: 수업 전 온라인 강의 시청, 활동 위주의 수업 ▶ Online과 Off-line의 장점 취합 ▶ 학생의 준비 부족 시 학습 효과 저하	▶ 학생 주도적 학습 ▶ 프로젝트 중심 학습 ▶ 다양한 언어 학습용 온라인 도구들의 적극적 활용 ▶ 시공간의 제약이 없음 ▶ 유대감 형성의 어려움

2. 온라인 언어 수업의 어려운 점과 극복 방안

2.1. 테크놀로지의 이용

전통적 방식에 익숙한 선생님들에게는 새로운 형식의 수업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선생님들이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다. 요즘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라고 불릴 만큼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온라인 도구들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때문에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s) 선생님들에 비해서 온라인 수업을 훨씬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요즘은 SNS상에서 외국어로 소통하는 것도 외국어 교육에서 큰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이용한 교육을 할 때에는 전통적인 교육관을 넘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수업을 위한 화려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온라인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간단한 몇 가지의 온라인 도구들 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테크놀로지의 사용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우선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 본 후에 사용 방법이 어렵다면 YouTube 등에서 사용법에 대한 설명들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쉽게 배울 수 있다.

2.2. 교사의 시간 관리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경우는 준비 시간이 기존의 수업보다 더 많이 든다. 또한 학생들의 과제에 피드백을 주거나 질문에 대답해 주어야 하는 것도 대면 수업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그래서 처음 온라인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수업 준비를 하고 학생들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시간에 쫓기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수업 계획을 미리 치밀하게 세워 놓아야 한다. 전통적 수업에서는 수업을

해 나가면서 수업 내용이나 진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거기에 맞춰 또 수업을 준비해 나갈 수 있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수업 자료들을 가능한 미리 준비를 해 두고 계획한 방식대로 진행해 나가야 시간 관리가 쉽다. 학생들에게 응대를 할 때에는 하루에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에만 해 주어야지 학생들 질문이 올 때마다 대답을 해 주려고 하면 시간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학생들 전체가 참여하는 채팅방 등을 이용해서 질문을 받으면 많은 부분 학생들끼리 소통을 하며 문제가 해소되기도 하고 비슷한 질문이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 한번만 대답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

2.3. 학생들의 학습 동기 및 유대감 형성

언어 습득은 사회적 활동이므로 수업에서 학생들간의 유대감의 형성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에 많이 기여한다. 언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그룹으로 하는 활동이 많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교사와 다른 학생들과 유대감을 갖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한국어 학습 동기도 높아진다. 그리고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동질감도 느끼고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는 과정이 수업에서 얻게 되는 소중한 경험이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의 경우는 학생들끼리 만나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교사와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면서 이러한 유대감 형성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이 학생들과 효과적으로 자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SNS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에 수업 학생들만 참여하는 그룹이나 대화방을 만들어 선생님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학생들끼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고 유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대화방을 통해 한국어로 메시지도 보내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동영상이나 재미있는 사진 등을 공유하는 것도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그룹으로 해야 하는 프로젝트 과제를 내 주면 과제를 해 나가면서 유대감도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도 학생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하도록 시키면 서로 배우는 기회도 되고 선생님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가 갔던 여행지를 소개하는 포스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해서 온라인 공간에 올리게 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하면 비슷한 경험을 했던 학생들끼리 소통도 하고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2.4. 공정한 평가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부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어렵고 한글 타이핑이 서투른 초급 반에서는 작문처럼 답을 써내야 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쉽지 않다. 즉, 한 두번의 시험의 비중이 너무 클 경우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서는 성취한 것을 평가하는 총괄 평가(achievement test)의 방법보다는 한 번의 시험의 비중이 크지 않고 학습 과정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는 형성 평가(formative test)를 자주 시행하는 방식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생들이 과제로 주어지는 프로젝트 등을 해 가는 과정을 평가하는 포트폴리오 평가(portfolio assessment) 방식을 도입해서 전체 성적에서 과제 성적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적합하다.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간단히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온라인 모드에서는 전달이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업 관리에 대한 정보는 자세하게 주는 것이 좋다. 특히 평가에 관련된 정보는 가능한 자세하게 문서로 전달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줄 때에는 과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과제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과제를 평가할 때에 어떤 점들을 고려할 것인지 자세한 평가 기준표를 제공해 주어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또한 Zoom 등을 이용한 인터뷰를 통해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평가 기준표를 미리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평가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해야 공정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2.5. 지속적인 자율 학습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의 의지력과 흥미가 지속되지 않으면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한국 친구들이 많아서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을 자주 접하고 한국 드라마나 K-pop을 즐기는 학생이라면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빠른 발전을 보이지만 한국인과 접촉할 기회가 없고 다른 과목들의 학습과 방과 후 활동 등으로 바빠 한국어 수업만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학생들의 경우는 학습 의욕이 쉽게 떨어지고 한국어 학습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구성할 경우는 학생들이 재미있게 자주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다 맞춰주는 것은 쉽지 않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우선 선생님의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기가 시작할 때 아주 자세한 수업 계획서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출석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각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고를 주어야 하며 과제의 제출 기한을 엄수하도록 해야 한다. 과제 제출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도 학생들에게 해야 할 것들을 자주 공지해서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반적인 수업 진행을 학생들이 예측 가능하게 하여 가능한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각 과마다 주제 토론, 단어 시험, 문법 연습, 에세이, 그룹 발표, 비디오 프로젝트 ... 등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다음에 할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수업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제안

3.1. 강의 비디오 만들기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강의 부분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상에서 학생들을 만나 강의와 활동을 병행하려 하면 전달도 효과적으로 안 되고 시간에 쫓겨 제대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기 어렵다. 주로 문법이나 어휘같은 내용은 강의 비디오를 만들어 YouTube같은 플랫폼에 올려서 학생들이 수업 전에 보고 오도록 하고 수업에서는 그 내용을 활용한 활동을 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PowerPoint로 수업 내용을 정리해서 선생님이 PowerPoint슬라이드에 강의 내용을 녹음을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강의 비디오를 만드는 방법은 YouTube에서 “강의 동영상 만들기”같은 검색어로 검색을 해 보면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강의 비디오를 꼭 보게 하기 위해서는 비디오를 봐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비디오를 꼭 봐야지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포함된 연습 문제를 풀게 한다든지 비디오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법 사항들을 사용해서 작문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과제를 함께 내 주어 꼭 수업 전에 강의 비디오를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온라인 미팅 시 가능한 활동들

온라인 라이브 미팅을 위해서는 Zoom이나 Google Hangouts, Skype 같은 meeting app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요즘은 Zoom이 수업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¹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온라인 미팅 시에 강의도 하고 학생들이 대화를 해 보도록 활동도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약이 많기 때문에 비디오 강의를 먼저 보고 오도록 하고 온라인 미팅 시간에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해 볼 수 있는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2.1. Breakout rooms를 이용한 그룹 토의

Zoom을 이용할 때에는 breakout rooms라는 기능을 통해 그룹별로 토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습 문제를 주고 그룹 멤버들끼리 같이 문제들을 풀도록 한다든지, 그룹 멤버들이 서로 인터뷰를 한다든지,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대화를 만들어 보게 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생님이 토의 주제를 주고 그룹별로 일정시간 토의를 한 후에 토의한 내용을 발표하는 활동도 가능할 것이다. Zoom의 breakout room에서 토의할 때에 선생님이 각 대화 방에 들어가 소규모로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

¹ Zoom을 수업에서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youtu.be/yd1d91SzgE0>

3.2.2. Google Docs(<https://docs.google.com/>)를 이용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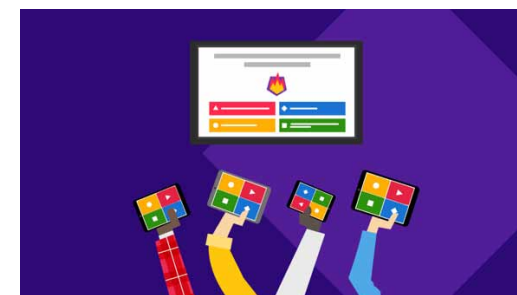
온라인 미팅 때 Google Docs를 이용하여 선생님이 만든 문서를 학생들과 공유하면 마치 핸드아웃을 나누어 주듯 수업에 필요한 내용을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공유된 Google Docs에 학생들이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해 두면 학생들이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협력하여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든지 문제를 푼다든지 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그룹 토의시에도 함께 토의한 내용을 Google Docs에 정리하도록 하면 학생들이 서로의 내용을 참고 할 수도 있어서 서로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3.2.3. 온라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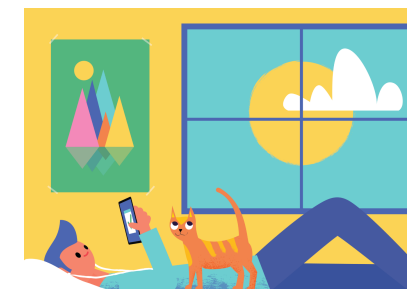
학생들 중에는 실제 교실에서 발표를 시키면 긴장해서 발표하는 데에 부담을 느껴도 온라인을 통해서 발표를 하면 덜 긴장해서 잘 하는 학생들도 있다. Zoom에는 참가자 중 한 사람의 컴퓨터 화면을 다른 참가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screen share 기능이 있어서 학생들이 PowerPoint 화면을 보여주며 발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이나 그룹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 미리 조사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시키는 활동은 전통적 수업에서 하는 것보다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집에 있는 물건이나 애완동물을 화면으로 보여주며 한국어로 설명하는 Show & Tell형식의 발표를 시키면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2.4. 온라인 게임 활동

온라인 수업에서는 전통적인 수업에서보다 온라인 게임을 적용하기가 더 용이하다. 예를 들어 Kahoot (<https://kahoot.com/>)은 퀴즈 게임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로 선생님이 미리 퀴즈를 만들고 학생들이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그 퀴즈에 접속을 하여 접속한 사람들끼리 함께 퀴즈를 풀 수 있다. 단어 맞추기 등 게임을 하기에 최적화 되어 있고 고득점자를 가려서 등수도 나눌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Kahoot 이외에도 게임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도구들로는 Quizlet(<https://quizlet.com/>) 이나 Quia(<https://www.quia.com/>) 같은 앱들이 있다.



Kahoot



Quizlet

3.2.5. 게스트 스피커의 활용

온라인 미팅 시에는 전통적 수업에 비해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선생님의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온라인 미팅 시간에 초대한다면 학생들이 선생님 이외의 다양한 한국어 원어민을 만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한다면 간단한 강연을 부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학생들에게 초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라는 과제를 주고 자유롭게 질문을 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사람을 여러 명 초대할 수 있다면 breakout room을 이용해 소규모로 한국사람을 인터뷰하도록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3. 효과적인 과제 및 프로젝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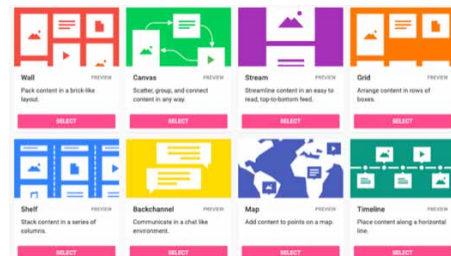
온라인 수업에서는 자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과제, 다른 학생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룹 프로젝트,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과제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수업에서 취약할 수 있는 점을 보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평가시에도 과제 부분의 배점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스스로 배워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수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3.3.1. 학생간의 소통 강화를 위한 과제

언어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므로 온라인 상에서도 가능한 학생들이 서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비디오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도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Flip grid (<https://info.flipgrid.com/>)는 학생들이 쉽게 비디오를 녹화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서로 비디오로 feedback을 해 주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Flip grid에 각자 자기 소개를 하는 비디오를 올리라고 한 후에 다른 학생들의 비디오를 보고 feedback비디오를 올리라고 하면 서로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기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는지 서로 확인해 보면서 서로 한국어로 소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Fripgrid



Padlet

또한 서로 메시지를 게시판에 올리고 댓글을 달게 해 주는 도구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Padlet (<https://padlet.com/>)은 가상의 벽이나 게시판에 포스터나 노트를 붙여서 서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주제에 대해 토론도 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이다. 선생님이 미리 올려 놓은 주제에 대해 대답을 하거나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 주어진 주제에 따라 포스터를 만들어 게시판에 붙여 놓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룹 프로젝트 파트너를 학생들끼리 소통해서 정하라고 하고 Padlet 게시판을 이용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가상의 벽에 붙여놓고 서로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을 소개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올리라고 하고 서로 댓글을 달도록 하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3.3.2 비디오 프로젝트

한국어로 영상을 제작해서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활동을 하면 준비 단계에서 쓰기, 제작 단계에서 말하기, 다른 학생들의 비디오를 보는 과정에서 듣기 등 종합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요즘은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비디오를 찍고 동영상 편집 앱을 사용하여 편집을 하는 것이 간편해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비디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초,중급에서 해 볼만한 비디오 프로젝트로는 자기 소개, 가족 소개, 하루 일과 소개, 자기 방 소개 등, 광고 만들기, 드라마 패러디, 스킷 만들기 등은 간단한 문형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중급 이상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는 일기 예보 만들기, 뉴스 프로그램 만들기, 한국 사람 인터뷰 영상 만들기, 토크 쇼 만들기, 자기 학교 홍보 영상 만들기, 요리 프로그램 만들기, 공익 광고 만들기 등이 있다. 비디오의 구성 형식이나 내용은 수업 주제와 목표에 따라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다.

3.3.3 e-포트폴리오 (e-portfolio)

e-포트폴리오란 학습자가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디지털 형태로 모아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작문, 발표문, 비디오 프로젝트, 녹음 자료 등등 수업을 들으며 한 과제들이나 만든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한 온라인 공간에 순서대로 모아 두도록 하는 것이다. 학기를 시작할 때에 학생들에게 블로그를 하나씩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도록 하면 보람도 있고 학습자가 자신의 실력이 발전하는 것도 볼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해 주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선생님이 학생과 함께 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학생의 학습 과정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4. 나가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 도구들을 이용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을 이끌어 내는 방법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자율학습 부분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해 나가며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Stoller, 2006). 그리고 학생들이 그룹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며 서로간에 유대감이 형성되고 더 나아가 수업 밖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학습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을 위한 테크놀로지의 사용은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수업 외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가능하다면 오프라인 미팅을 자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좋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먼 곳이 사는 학생이 아니라면 선생님 연구실을 방문해서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갖거나 Zoom과 같은 온라인 미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라도 정기적으로 선생님과 1대1로 만나서 학습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대면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Bonk, C. J. & Graham, C. R. (2006/2012). *The Handbook of Blended Learning: Global Perspectives, Local Design*. San Francisco, CA: John Wiley and Sons, Inc.
- Stanley, G. (2013) *Language Learning with Technology: Ideas for Integrating Technology in the Classroom* (Cambridge Handbooks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ller, F. (2006). Establishing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project-based learning in second and foreign language contexts. In G.H. Beckett and P.C. Miller (Eds). *Project-based second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19-40.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 Walker, A. and White, G (2013). *Technology Enhanced Language Learning: connecting theory and practice - Oxford Handbooks for Language Teach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교육 모형 개발 구축 연구

-미국 내 한국학교와 지역 커뮤니티 환경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various course models for the unification era
-focusing on Korean Schools and communities in the US

방혜숙 (조지메이슨 대학교 한국학과)

신윤경 (가천대학교 교양학부)

1. 들머리

현재 미국에 있는 한국학교의 한국어교육은 남한어 즉, 표준 한국어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엄밀히 남한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과의 관계나 통일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북한어에 대한 교육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을 주지해야 할 사실인 것이다. 특히나 북한어에 대한 수요는 한국보다도 이곳 미국에서 더욱 더 높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미국 내의 한국어교육이 남한어에 치우치는 불균형을 해소하여,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한국어 구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통일 한국어 시대를 향한 균형 잡힌 한국어를 교수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교육 기관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에서의 초 중등학교 학습자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에서는 정규 교육을 통해 통일교육이 정해진 교과 과정과 교과 시간에 맞추어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정작 통일시대의 교두보 역할을 할 미국 내 학습자들은 통일교육의 사각 지대에 놓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 한국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한계를 조사 분석하여 평가한 후, 지역 사회와 연계한 개선 방향과 통일교육 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구축하여, 학습자와 교사의 통일인식을 새롭게 정비하여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데 필요한 통일교육 모형과 그에 따른 교수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남북한 언어 문화의 이해와 필요성 조사

미국 내 전역에 걸친 한국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와 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학습자 127명과 교사 53명을 대상으로 통일에 관한 설문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내용과 문항을 살펴보면, 학습자 집단에서는 학습자 배경정보, 남북 언어 문화 인식, 통일인식, 총 3부분으로 나누어 조사 문항을 작성하였고, 교사 집단에 대해서는 교사

배경정보, 교사의 북한말 인식과 통일인식, 총 3부분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통일 준비 차원에서 남북한 의사소통 차이의 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어에 대한 인식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에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와 교사의 북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2.1. 학습자 인식조사 결과 분석

학습자들의 배경정보를 먼저 보면, 남자는 61.4%, 여자는 38.6%로 남자 학습자가 더 우세하게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학습자 연령 분포대는 11세 집단이 29.1%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가정에서 한국어를 쓰는 경우가 88.2%로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북한에 대한 배경지식과 북한어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학습자들에게 한반도 지도를 놓고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다. 1.0%에 해당하는 학습자들만이 모른다고 대답했고, 나머지 99%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북한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64.6%가 Korean (한국어/한국말)이라고 대답했고, North Korean (북한말/북한 사투리)이라고 답한 경우는 2.6%로 나타났다.

2.2. 교사 인식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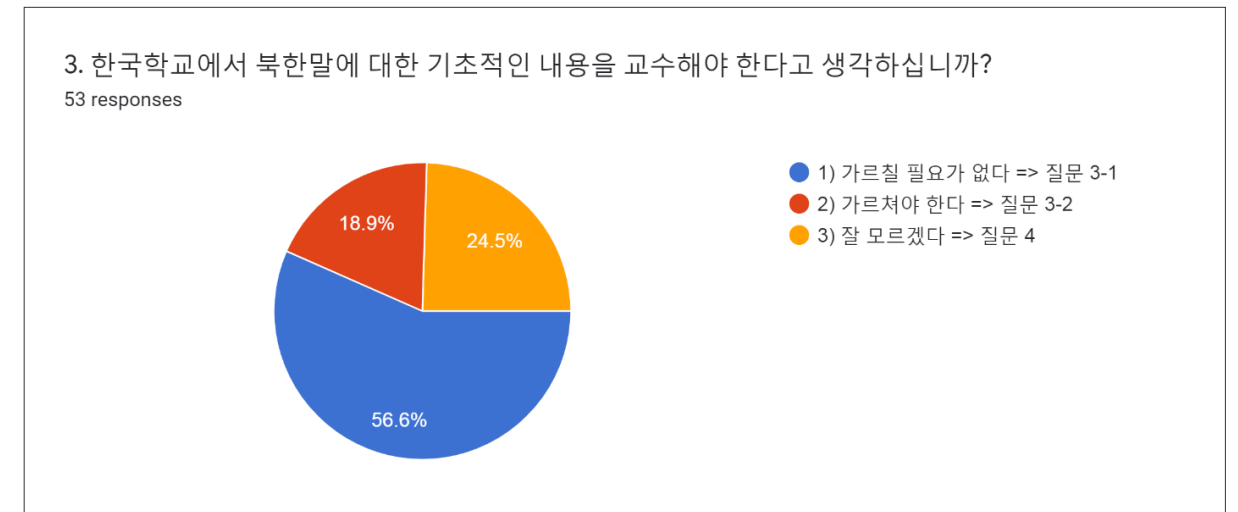
이 설문조사에 응한 교사 집단의 배경정보를 먼저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여자가 96.2%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교육 경력으로는 6개월 미만부터 30년 이상까지 광범위한 분포를 보였다. 현재 수업하고 있는 학년은 전 학년이 고르게 분포했으나, 초등 저학년이 좀더 많이 나타났다. 수업 시 사용하는 언어로는 한국어 50.9%, 영어 49.1%로 나타났다. 현재 수업에서 북한어를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94.3%의 거의 모든 대다수가 북한어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교사 집단의 북한어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살펴보면, 북한어에 대해 선택형 질문을 주고 어떤 것이 교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58.5%가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39.6%는 남한어와 북한어가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말과 남한말을 통일해야 한다면 어떤 언어로 통일을 해야 하겠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50.9%가 남한말을 중심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했고, 49.1%는 새로운 통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문항에서 북한말을 중심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답변은 하나도 없었다.

다음에서 설문조사 결과 내용에 대해 좀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국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56.6%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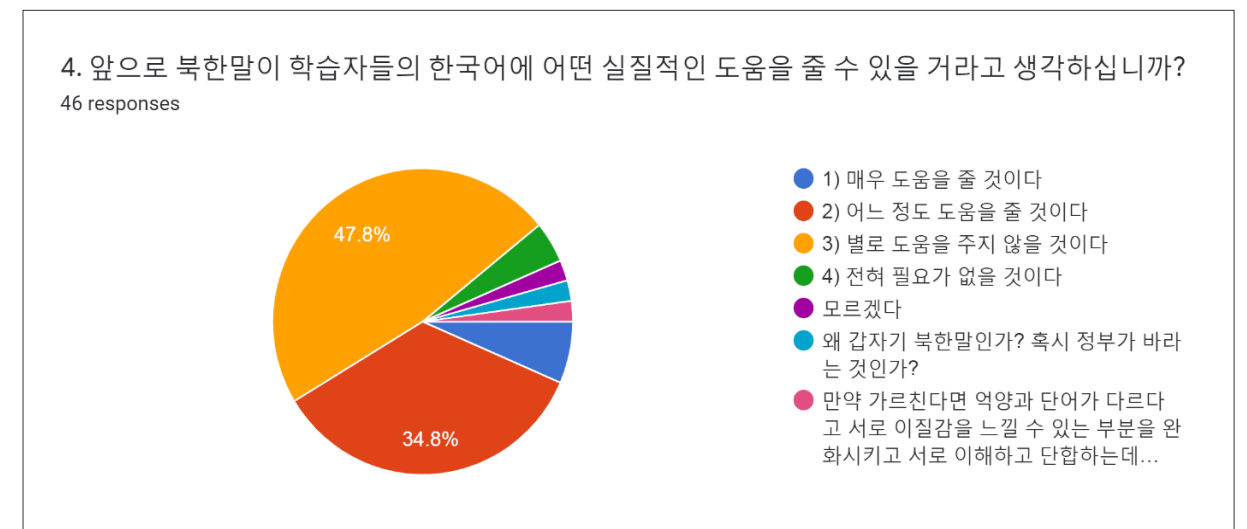
24. 5%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가르쳐야 한다는 답변은 18.9%에 그쳐 북한말 교수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나타내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도표 1-교사 설문조사 결과>



북한어에 관한 이해가 앞으로의 통일교육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47.8%가 북한어가 학습자들의 한국어에 대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거라고 대답했다. 그 뒤를 이어 34.6%가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어에 대한 교사의 인식조사에서 한국학교의 수업에서 북한어가 아닌 남한어만으로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북한말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학습자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답변으로 제시하였다.

<도표 2-교사 설문조사 결과>



다음은 미국 내 한국학교 환경에서의 통일인식과 통일교육에 대한 현실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보기로 하겠다.

3. 미국 내 통일인식과 통일교육 현황 분석

남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과 통일 관련 설문조사¹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일과 북한에 대한 주제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지식이 적을수록 부정적 고정관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학교에서의 통일인식과 교육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통일교육과는 사뭇 다른 환경에 놓인 미국 한국학교 현황에 대해 학습자와 교사의 관점과 요구로 나누어 현황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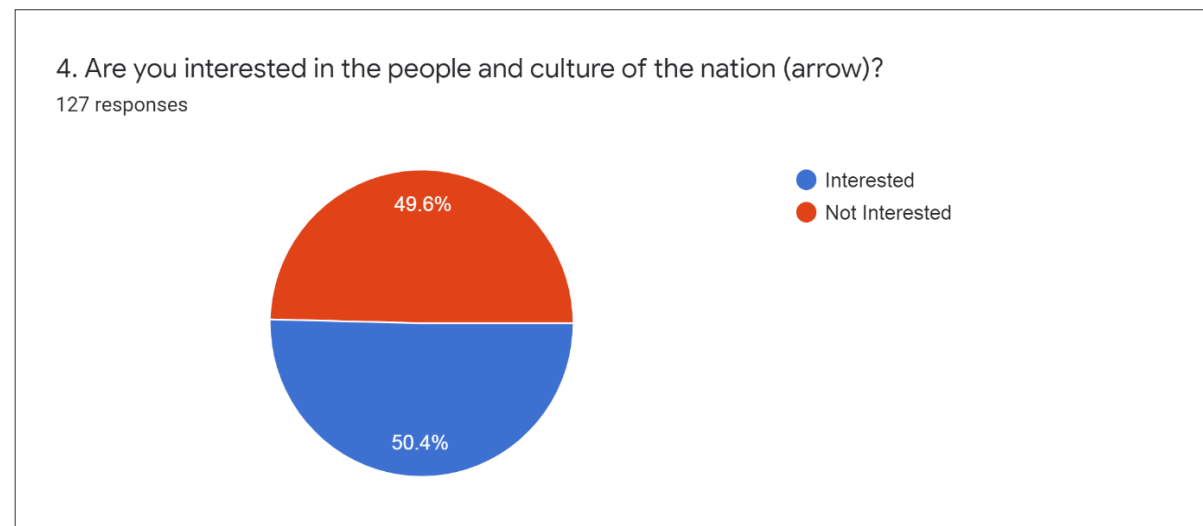
먼저 교사와 학습자 집단으로 나누어 각 그룹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3.1 학습자 요구분석을 통한 현황 점검

학습자들의 요구분석에서 나타난 결과 분석에서는 학습자들의 통일과 북한어에 대한 요구에 대해 특별히 변별되거나 주목해야 할 사항을 선별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설문조사 문항 중 4번 문항의 결과를 보면, 학습자들은 북한의 문화와 사회에 대해 관심이 있다와 관심이 없다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은 적어도 북한과 북한어에 대한 정보와 학습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그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도표 3-학습자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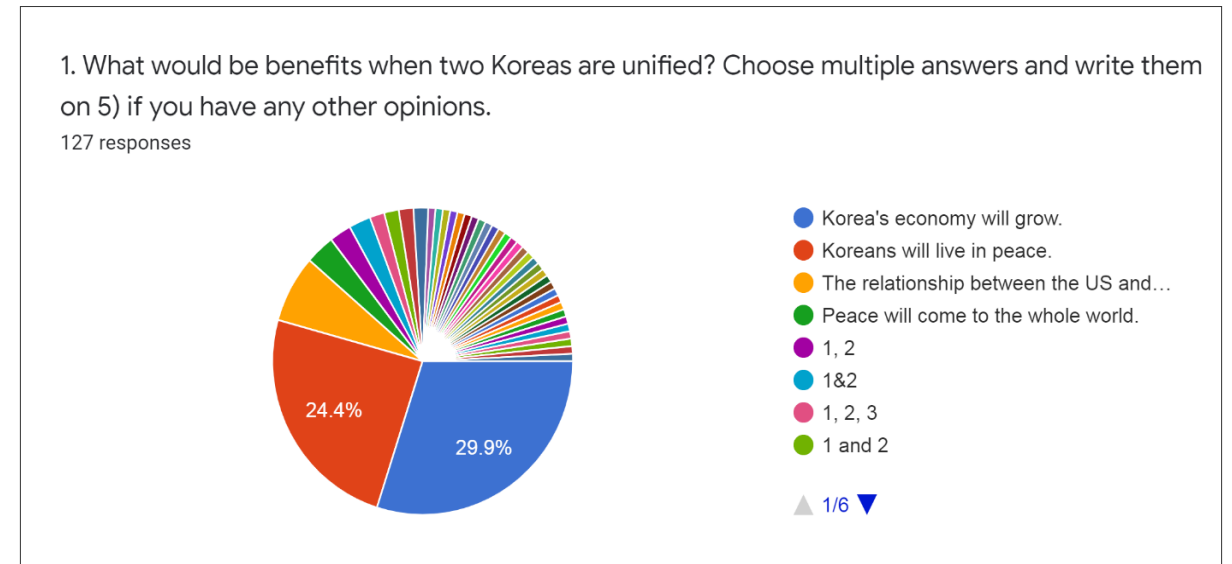


¹ 교육부와 통일부의 2019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나타난 결과로, 전국 초·중·고 598개교 학생 6만6042명, 교원 381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다.

또한 통일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의 결과를 살펴보면, 통일 이후 한반도에 나타날 영향과 혜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대답이 29.9%로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24.4%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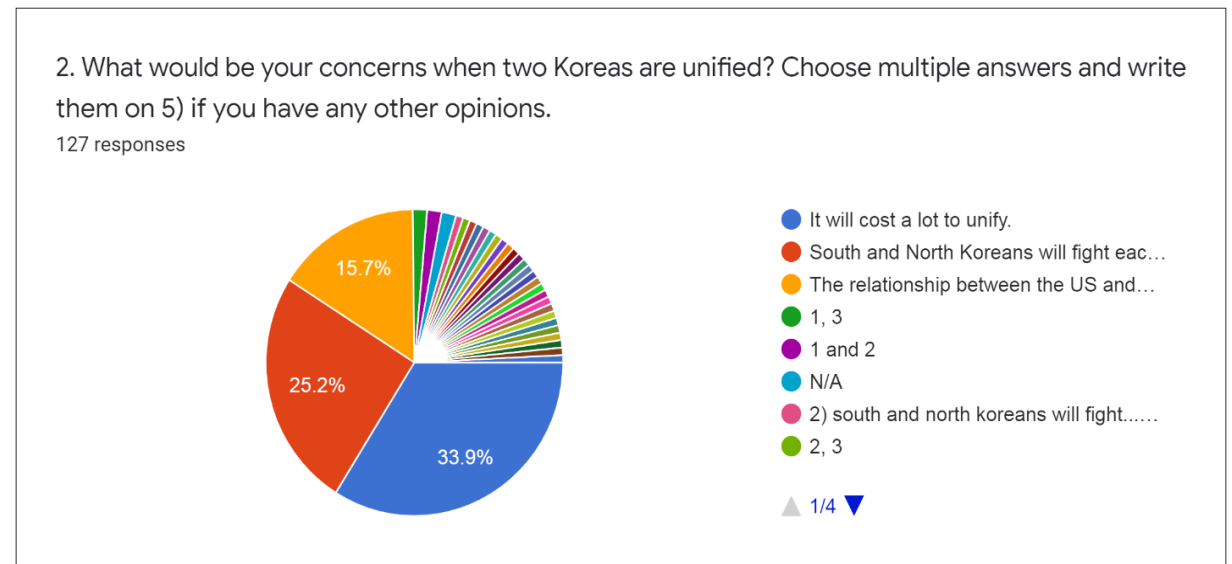
그 외 답변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도 있었다. 이는 통일이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특히, 미국에 많은 관계와 영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도표 4-학습자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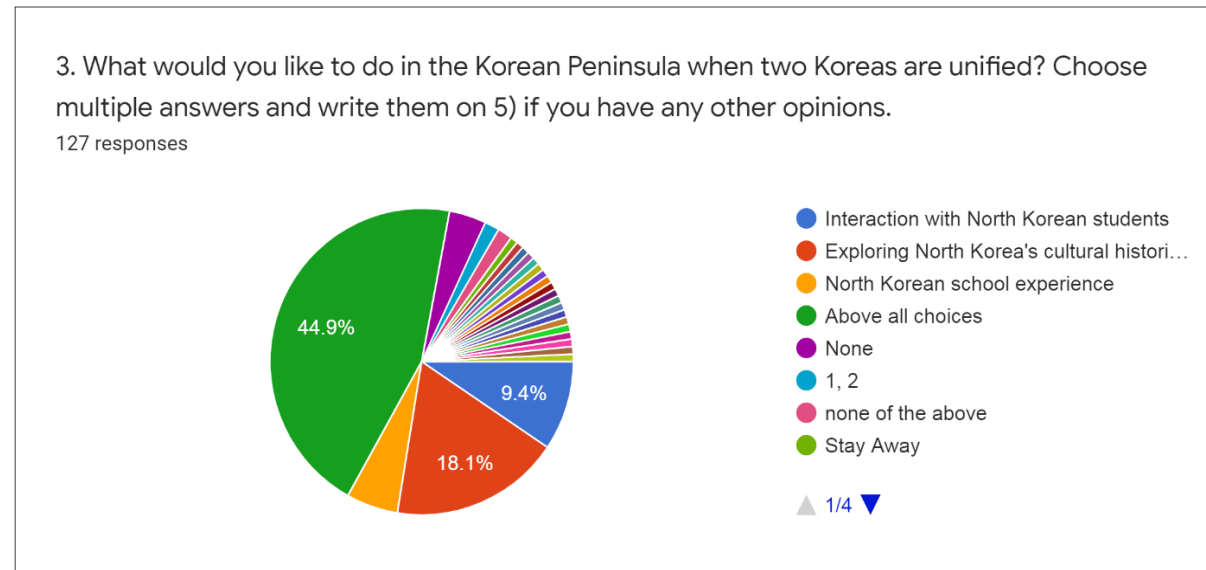
통일이 된다면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33.9%가 통일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고, 25.2%가 남북한이 통일이 된 후 서로 싸우며 지내지 않을까라는 대답을 했으며, 15.7%는 미국과의 관계 구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도표 5-학습자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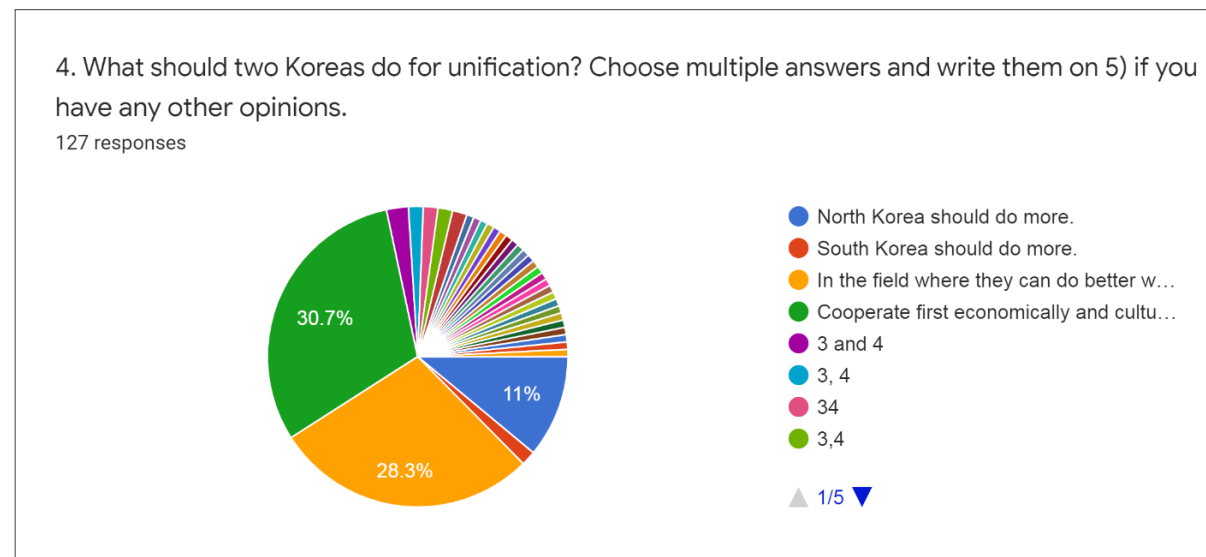
흥미로운 질문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44.9%가 북한 학생들과 소통하며 북한의 문화 유산을 답사하고 북한 학교 생활을 체험해 보고 싶다고 했다. 학습자 집단에서는 북한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 북한에 가서 살아있는 경험을 해 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해 막연하지만 구체적인 관심과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도표 6-학습자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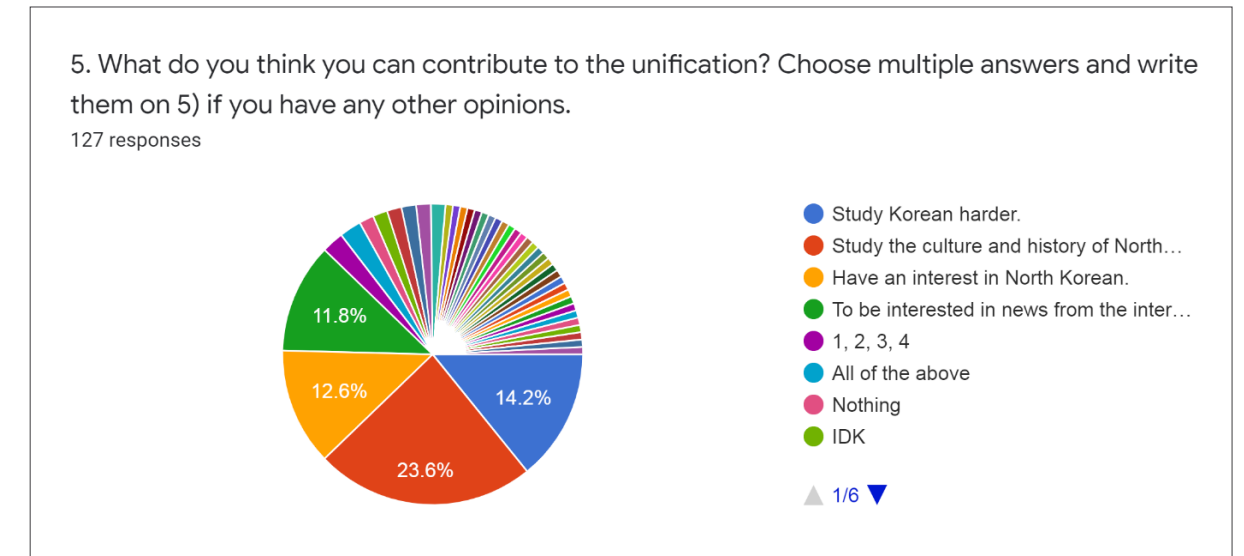
통일을 위해 남북한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30.7%가 남북한 모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협동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28.3%는 각자의 분야에서 좀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닌 모두의 노력이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도표 7-학습자 설문조사 결과>



학습자들이 통일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23.6%가 북한에 대한 문화나 역사를 공부할 것이라고 답했고, 14.2%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표 8-학습자 설문조사 결과>



이와 같이 학습자들은 통일에 대한 이해와 북한에 대한 이해, 한국어 공부에 대한 학습 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요구와 인식을 피력했음을 볼 수 있었다.

3.2. 통일교육을 위한 한국학교 환경 점검

박성춘 (2016)에서 보면, 통일교육은 정치적 상황과 시대적 관점에 따라 북한을 어떻게 조명하였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통일관은 세대에 따라, 지역과 계층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통일관의 차이는 통일교육의 통일을 이루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통일교육의 다양한 요구와 내용이 뒷받침 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인식이 제도의 통일이 아니라 의식의 통합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 바로 알기, 남북한의 차이점 이해, 민족공동체 의식, 미국 및 국제 정세 등의 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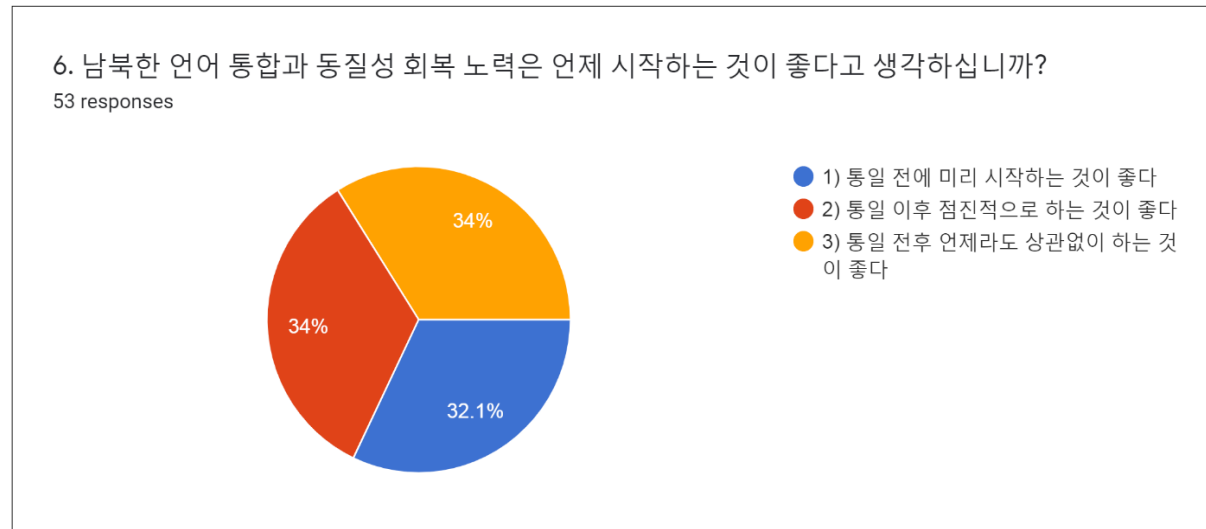
한국학교에서는 교사가 사회적 맥락과 지역 사회의 상황에 맞게 학습 내용을 조정하고 학습자들은 수동적인 학습 내용 습득을 벗어나 민족적 정체성과 공동체적 협동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특히 한국학교의 상황에서 바람직한 통일수업에 대한 동기와 학습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을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교사 스스로도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인지하는 것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생각해서 학습자들에게 함부로 언급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넘기려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교사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법이 다를 수 있다. 이에 교사들에게 좀더 자기효능감과 효율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수업을 준비하고 교수하도록 통일교육 기준과

모형이 제시될 수 있다면 교사나 학습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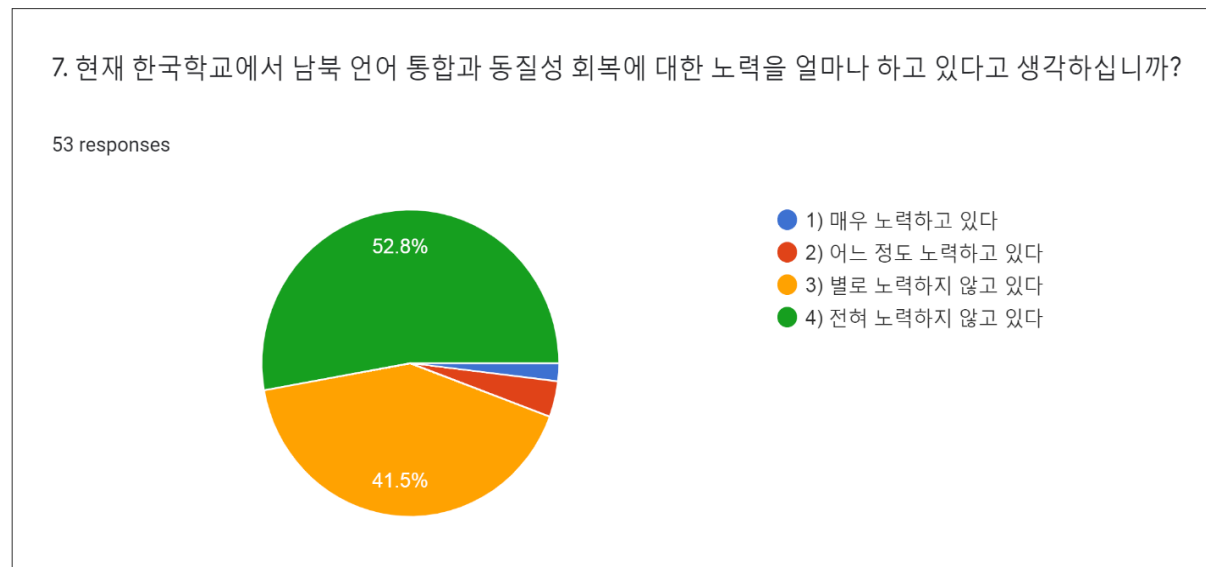
교사 집단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서 보면, 남북한 언어 통합과 회복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통일 전과 후, 언제라도 상관없다는 답변,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통합과 회복의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해석이 된다. 남북한 언어 통합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적절한 시기와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교사 집단의 답변은 통일 전, 후, 전후 언제라도, 이 세 가지의 답변이 34%, 32.1%로 모두 비슷하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도표 9-교사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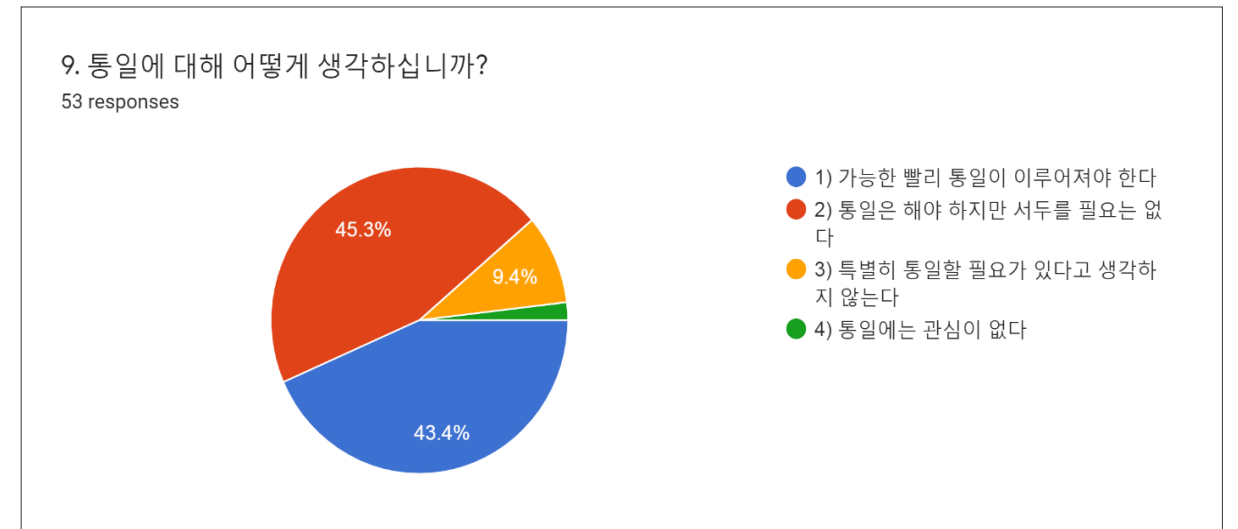
한국학교 차원에서 남북 언어 통합과 동질성 회복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질문한 문항에 대해서는 52.8%는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41.5%도 별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 두 가지 답변을 합하면 94.3%로 대다수가 거의 노력을 안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한국학교의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도표 10-교사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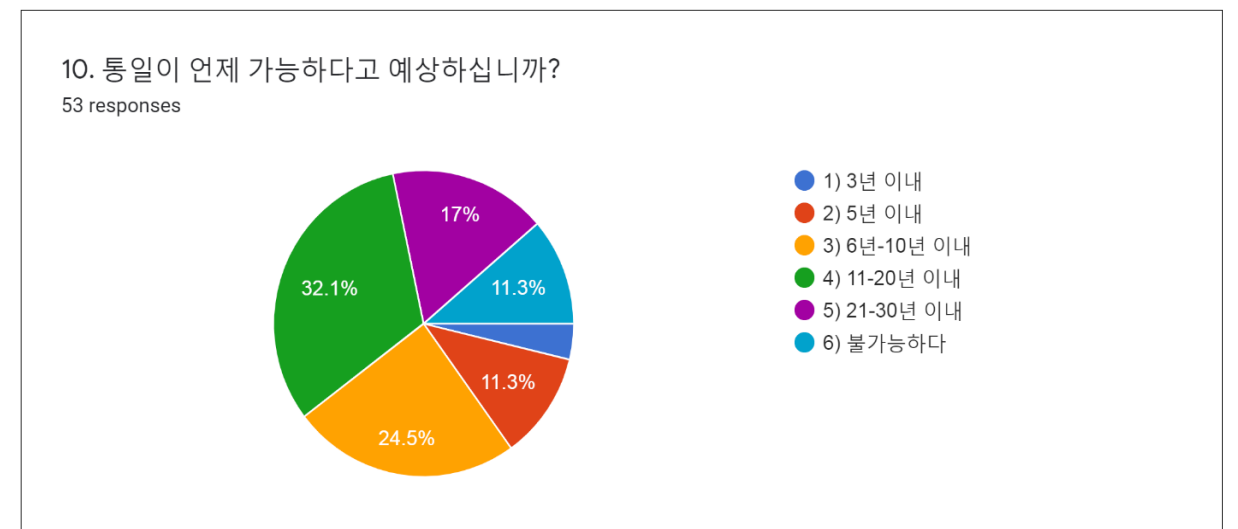
통일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일반적인 인식과 생각을 질문한 문항에 나타난 답변으로는, 45.3%가 통일을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43.4%가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질문 문항을 다음의 질문과 연결 지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도표 11-교사 설문조사 결과>



통일이 언제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예상 질문에 가장 우세한 답변은 11년에서 20년 이내라는 답변으로 32.1%를 차지했다. 이는 현재의 시간에서 다소 먼 기간을 상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질문 답변과 같이 고려해 볼 때, 통일 가능 시기가 빨리 오리라고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한 것과 상관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도표 12-교사 설문조사 결과>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통일교육은 사회의 여러 분야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유하는 지점이 폭넓게 나타나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민족적 정체성과 국제적 관계 속에 교사와 학습자가 통일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이루어 내는 주도적인 교육이 종국에는 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사회와 연관된 다양한 체험과 경험 학습 활동이 학습자들에게 중요하다. 경험중심적이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21세기가 지향하는 국제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국학교가 어떤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이루면 좋을지에 대해 다음에서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

4. 통일교육 모형 개발

통일교육의 환경이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정비가 된다는 전제 하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내 실정에 맞게 한국학교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지향해 나갈 기본 목표와 방향을 교육강령의 형태로써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건전한 통일관을 형성하고 통일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통일교육을 이루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 바로 알기, 남북한의 차이점 이해, 민족공동체 의식, 미국 및 국제 정세 등의 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체적인 인식과 함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에 발맞추어 어떤 방법과 전략으로 교사와 학습자가 통일교육을 접근하고 실행해야 할 지에 대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다.

4.1. 통일교육 방법과 전략

블렌디드 온라인 러닝 (Blended/Online learning), 웹 세미나(Webinar), 학습자 주도 환경 조성, 블로그 활동, 동영상 제작, 가상현실 (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 (MR) 등 활용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COVID-19 상황은 교육 환경에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학교가 직면한 상황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실제로 필요한 교육 내용과 환경이 더 요구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현재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 방법을 세분화해서 다양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모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북한에 관련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주제별로 체험학습 모듈을 개발해서 학습자들에게 좀더 친근하게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하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통일부의 설문조사² 결과에 따르면 평소 북한 평소 북한 및 통일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유튜브/SNS 등을 통해 얻는다고 대답했다.

한국학교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한 교육 과정을 설계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계로서 기존에 개발된 통일에 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인터넷 학습 모듈을 이용한 학습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 (SNS)나 테블릿 PC 등을 사용하여 디지털 시대의 학습자들에게 맞는 미디어와 학습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²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2019)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앞으로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을 어떤 형식으로 받고 싶나요'라는 질문에는 현장견학 등의 체험학습(27.1%), 동영상 시청교육(22.4%), 외부 북한 관련 강사 초빙교육 (17.4%), 퀴즈, 통일 게임 등의 대회, 이벤트 방식(16.1%), 교사의 강의·설명식 교육(7.0%), 토론회 교육(5.2%) 순으로 응답했다.

것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은 특별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교육해 보고 나아가 정규 시간에 교과 과정으로 넣는 방향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2. 통일교육 단계와 모형

한국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단계별 교육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학습 활동을 5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5단계는 동기유발, 흥미유발, 학습유발, 적용유발, 지속유발 단계가 그것이다.

먼저, 1단계 동기유발 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습자들에게 통일과 북한말, 문화에 대한 학습 이유와 목적을 밝히는 단계이다. 민족적 요구와 국제적 정세,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단계 흥미유발 단계에서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게임이나 보상 체계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교육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예를 들면, 통일 골든벨이나 통일 보드 게임, 통일 빙고 게임 등을 실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단계 학습유발 단계에서는 학습유발 단계에서는 통일교육을 위해 설계한 교과 과정을 따라 학습을 수행한다. 정규 수업의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이상적이거나, 그것이 전체 수업 교과 과정에서 다루기 어렵다면 특별 활동 시간이나 비정규 수업 활동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다양한 시청각,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자칫 피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습 효과를 배가시키거나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4단계 적용유발 단계에서는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활동을 확장하는 단계이다. 수업 시간에서의 학습 활동의 확장 선상에서 학습 활동을 통해 배운 지식이나 개념을 확장 활동을 통해 강화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또는 혼합현실을 이용하여 통일교육을 확장하고 유지하게 할 수 있으며, 통일교육 체험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배운 지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 학습 내용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5단계 지속유발 단계는 마지막 단계로,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학습을 통해 축적된 통일교육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더 나아가 한국에서의 통일 프로그램에 참가한다거나 한반도 정세에 관련된 UN등의 국제 대회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할 수 있다. 지역 사회의 탈북자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이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의사소통 미디어 매체나 블로그, 유튜브 등의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서 통일에 관계된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도록 한다.

<표 1-통일교육 단계 및 학습 활동>

단계	통일교육 모형 단계	교과 과정 및 교육 전략	학습 활동
1	동기유발 단계	교사와 학습자 통일인식 고양과 학습 환경 조성 및 통일교육 시작	-통일에 대한 이해를 독려하는 프로그램 주최 -통일 전문가 초빙 강의 및 연수
2	흥미유발 단계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 교육 활동 수행	-게임, 통일 골든벨 -보드 게임, 통일 빙고
3	학습유발 단계	교과 과정에 따른 통일교육 시청각/디지털 매체 활용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에듀테인먼트, 액션 러닝
4	적용유발 단계	수업 활동 확장,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통일 체험학습, 통일 캠프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5	지속유발 단계	지역 사회 단체 연계 한국 통일교육 프로그램 연계 세계적 회의 및 프로그램 연계	-SNS, Blog, Youtube channel -지역 사회 봉사활동 -UN 및 국제 회의 참가

이 모든 단계를 모형으로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통일교육 단계 모형>



각 단계 간 구체적인 교수 방안을 좀더 강구해 보면, 초등 저학년 학습자들을 위한 방안으로는

북한과 남한의 일상생활 단어 목록을 작성하여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카드 게임이나 보드 게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창의성이 녹아 있고 활용도가 높은 게임을 통해 학습자들의 흥미와 학습을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남한의 명절날 행사에 북한의 명절 놀이를 접목해서 같이 비교해서 해 본다던가, 북한 요리와 음식을 소개하는 요리 쇼나 프로그램을 구성해 본다던가, 평양 여행을 위한 여행 계획서나 예산안을 짜 보는 활동을 하는 등,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구성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이다. 이는 통일교육의 흥미유발과 학습유발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고 상호작용적이며 자기주도적 학습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북한의 생활 환경과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한반도의 지명과 그곳을 대표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도를 놓고 한반도의 지역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지도를 직접 그리는 작업을 통해 남북한에 대한 지리적 환경과 곳곳의 관광명소와 유적지를 살펴볼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은 수업 구성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청각 매체 이외에도 가상체험과 현장학습 체험을 활용하는 것을 수업 설계에 넣을 수도 있다. 금강산이나 비무장지대(DMZ)에 직접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지리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또는 흥미를 끌 수 있는 방안으로, 가상현실 프로그램에서 이런 지역을 체험할 기회를 갖는다면 학습자들은 더욱 친근하게 통일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액션러닝을 통해 통일한국의 스포츠, 관광, 예술, 자원 분야의 시너지 창출 가능성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통일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남북한 단일팀 경기를 같이 시청하거나 북한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를 따라 해 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5. 마무리

이미 한발 다가 온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우리의 인식과 자세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학교는 이런 역사적 사명의 올바른 인식 제공의 장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차세대 세계 시민 육성의 주체적 입장에서 사회적 책무와 국가적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학습자들은 남북한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시대를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핵심 세대이며, 교사들 또한 이 세계사적 중요한 시점에서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 학습자 각자의 몫과 같이 짊어질 몫이 무엇인지를 알고 통일시대를 향한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사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강의 교안 표준 공통 요목 매뉴얼화를 이루고, 교사의 자질에 따라 수업 준비도, 수준, 만족도가 상이했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 이미지 개선과 활성화를 통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도 지역 사회와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교사 간, 교사-학습자 간, 통일교육 내용 구성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 활동의 분위기와 활동성을 증진시켜 효율적이고 성취감 높은 통일교육 기반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들은 또래 집단과 통일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나름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과 함께 공동체적 정서를 형성하는 시기이고 미국 내 한국학교는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형성된 통일인식과 북한어 교육은 실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추후 실제 통일교육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통일교육의 모형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되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통일교육은 한국과 북한 모두의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의 이익뿐만 아니라 여기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학교에서의 통일교육 과정은 다양한 이해에 대한 탐구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국제적, 인류 보편적 시각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함께 기르고, 통일과 그 이후의 한반도와 미국 정세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병로,최경희(2012).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 평화 4-1, 101-139.

김희정,김선(2018). 세대별 통일교육의 정서적 접근 방식: 정서조절 방식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76. 233-254.

김희정, 김선(2018). 세대별 통일의식과 통일교육: 통일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6, 1643-1654.

박균열, 송도선(2014). 대학생과 성인의 통일의식 및 통일교육 시사점. 통일전략 14-2, 2014, 135-159.

박성춘 (2016).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서울: 양서원.

방혜숙(2002). “통일시대를 향한 남북한 언어 정책”,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김민수 엮음, 국학자료원, 15-32.

방혜숙(2011). 미국 내 비정규 한국어 수업 과정 현황과 발전 방향 연구-주미 한국대사관 수업과정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1, 119-147.

이내영(2014).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22-1, 167-206.

이미경(2018).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승재(2009). 웹(Web) 기반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초등학교 통일 교육 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승재(2003).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분석: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신애(201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등학교 6학년의 태도 유형화 및 통일교육적 대안 모색: Q방법론을 활용하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인태(2013). 초등학생들의 북한 이미지 측정과 분석: 경기도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중심으로.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3-3, 221-252.

임대규(2016).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일의식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홍성호(2004). 탐구공동체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수업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Burden, K., Kearney, M., Schuck, S., & Hall, T. (2019). Investigating the use of innovative mobile pedagogies for school-aged student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Computers & Education* 138, 83-100.

Ko, Y (2019).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Pacific Affairs* 92-2, 358-360.

Maass, M (2019). North Korea’s “Endgame”: Peaceful Two-State Solution or coercive Unification?. *North Korean Review* 15-1, 109-117.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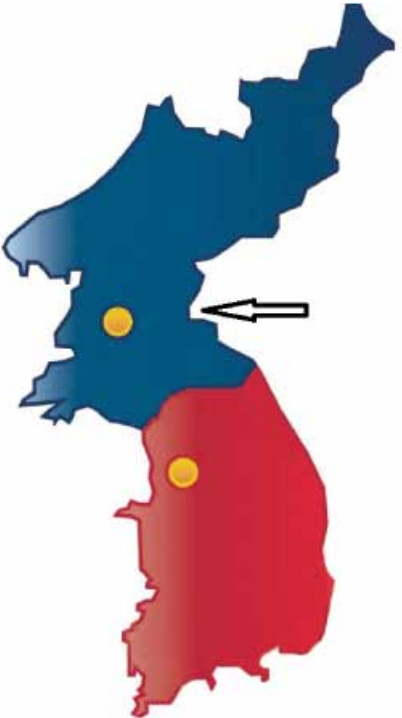
설문지 (학습자용)

I . Student Background Information

1. Gender Male _____ Female _____
2. Age: _____ years old
3. School Grade: _____ Grade
4. Duration of Korean language study: _____ years _____ months
5. Speaking Korean with my family: Yes _____ No _____

II . North and South Language Culture Awareness

1. Do you know the name of this place (arrow) on the map? Write it. _____



2. Do you know what language you are using here? Write it.

3. Do you know where the capital of North Korea is? _____
4. Are you interested in the people and culture of life here? Interested___ Not Interested___ If you know any North Korean, write what it is.

III. Awareness for the unification

1. What do you think is good about unification? Choose multiple answers write if you have any opinions.

1) Korea's economy will grow.
2) Koreans will live in peace.
3) The US and Korea will get better.
4) Peace will come to the whole world.
5) Others -----
2. What do you worry about two Koreas are unified? Choose multiple answers write if you have any opinions.

1) It will cost a lot to unify.
2) South and North Koreans will fight each other.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will get worse.
4) Others -----
3. What do you want to do when two Koreas are unified? Choose multiple answers write if you have any opinions.

1) Interaction with North Korean Students
2) Exploring North Korea's Cultural Historic Sites
3) North Korean School Experience
4) above all choices
5) Others -----
4. What should two Koreas do for unification? Choose multiple answers write if you have any opinions.

1) North Korea should do more.
2) South Korea should do more.
3) In the field where they can do better with each other, they must first strive for unification.
4) Cooperate first economically and culturally.
5) Others -----
5. What do you think you can do to unify? Choose multiple answers write if you have any opinions.

1) Study Korean harder.
2) Study the culture and history of North and South Korea.
3) Interest in North Korean.
4) To be interested in new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5) Others -----

설문지 (교사용)

I. 교사 배경 정보

1. 성별: 남 ----- 여 -----
2. 교육 경력: -----년
3. 현재 수업 학년: -----학년
4. 수업 시 사용하는 언어: -----
5. 수업 시 북한어 교수 여부: 네 ----- 아니요 -----

II. 북한말 인식

1. 북한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주십시오.
1)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생각한다.
2) 영어나 일본어처럼 외국어라고 생각한다.
3) 남한말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2. 남한말과 북한말을 통일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중심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한말을 중심으로 통일해야 한다
2) 북한말을 중심으로 통일해야 한다
3) 새로운 통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3. 한국학교에서 북한말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가르쳐야 한다 =>질문 3-2
2) 가르칠 필요가 없다 =>질문 3-1
3) 잘 모르겠다 =>질문 4
- 3-1. 한국학교에서 북한말을 가르칠 필요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현재 배우는 남한말로 의사소통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2) 북한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3)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4) 기타 이유 -----
- 3-2. 북한어를 가르친다면 북한어를 구사하는 전문가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문가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존 한국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더 좋다
3) 북한어 전문가와 한국학교 교사의 협업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다
4) 기타 제안 -----
4. 앞으로 북한말이 학습자들의 한국어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을 줄 것이다
2)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다
3) 별로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필요가 없을 것이다

Ⅲ. 통일인식

5.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필요하다
 2) 어느 정도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6. 남북한 언어 통합과 동질성 회복 노력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통일 전에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2) 통일 이후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통일 전후 언제라도 상관없이 하는 것이 좋다
7. 현재 한국학교에서 남북 언어 통합과 동질성 회복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노력하고 있다
 2)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
 3) 별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
 4)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
8.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1) 학교에서 통일 관련 언어 교육을 강화한다
 2) 남북한 언어를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료집이나 교재를 만든다
 3) 남북한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전을 편찬한다
 4) 북한이탈주민에게 북한어를 배운다
 5) 북한말에 관한 연구를 강화한다
 6) 차이나 많이 나는 용어나 표현을 비교하여 교육한다
 7) 북한말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8) 기타 _____
9.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가능한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3) 특별히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4) 통일에는 관심이 없다
10. 통일이 언제 가능하다고 예상하십니까?
 1) 3년 이내
 2) 5년 이내
 3) 6년-10년 이내
 4) 11-20년 이내
 5) 21-30년 이내
 6) 불가능하다

2

한국역사문화 교육연구

자주외교와 한미우호의 상징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한종수

내가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

서동성

3.1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국학교

이경애

자주외교와 한미우호의 상징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한중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자원활용부 책임)

1. 서언

한국과 미국의 첫 접촉은 1871년 신미양요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49년 동안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882년 조미수호조약 체결 이후, 미국은 그 이듬해인 1883년 5월, 주한특명전권공사로 푸트(Lucius H. Foote, 1826~1913)를 파견하였으나, 조선은 청(淸)의 내정간섭과 경제적 사정으로 미국에 상주(常駐)공사를 파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반면 고종은 1883년 7월, 전권대신 민영익(1860~1914)과 부대신 홍영식(1855~1884) 등 11명의 보빙사(報聘使)를 미국 공사 파견에 대한 답례로 파견하여 양국 간의 친선 및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조선의 해외 공사파견 계획은 1885년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당시 배청(排淸)하는 방안으로 미국 2대 임시대리공사 포크(George C. Foulk)의 권고와 청·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고종의 의지는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미국 등지에 상주공사관 개설로 이어졌다.

2. 조미조약 체결배경과 주미 ‘특명전권공사’ 파견

1882년 5월 22일, 조선은 서구 열강 중 최초로 미국과 조미수호조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대조선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이홍장은 조약 1조에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라는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국대표 슈펠트(Robert W. Shufelt)는 ‘독립론’을 주장하였다. 대신 조약문에는 ‘속국’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고종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별도조회문(別途照會文)에서 포함하기로 하고 조약은 타결되었다. 하지만 끝내 ‘속국’ 조항은 삭제된 채, 미국 의회와 대통령 아더(Chester A. Arthur)에 의해 비준되었다.¹ 특히 조미조약 14조 중 제 1조 ‘거중조정’(good offices)² 과 2조 ‘공사급 외교관 파견과 영사관 설치’ 조항이 주목이 된다. 이는 조선이 미국으로부터 ‘자주독립’임을 인정받고

서로 ‘대등한 외교’를 인정받는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미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고종이 미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이유를 이하영(1858~1929)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³

一曰 朝鮮과 距離가 멀어서 內國侵入이 그다지 甚하지는 안을 것이요,
二曰 黃金의 富國이니 物質的으로 德을 볼 것이요,
三曰 宗教至上主義의 國家이니 道德을 尊重할 터이라 侮辱과 野心이 적을 것이라는 達觀的이었든 것이다.

이하영은 초대 주미조선공사 파견 당시 서기관으로 박정양을 수행하였고, 초대 전권공사 박정양이 ‘영약삼단(另約三端)’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환되자, 2대 서리공사로 재임했던 이하영이 남긴 글에서 당시 미국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고종 미국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갑신정변 이후 淸의 원세개는 ‘駐劄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란 직함을 가지고 조선의 외교와 통상은 물론, 국정 전반에 걸쳐 간섭함으로써 청의 종주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에 고종은 청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1887년 6월 29일 협판 내무부사 박정양을 주미전권공사로 임명하였다. 하지만 청은 조선이 원래 자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면서 박정양 일행의 파견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지만 고종의 강력한 파견의지와 미국 정부의 반박 등을 고려하여 9월 26일 박공사가 미국 부임지에서 ‘영약삼단’을 응하는 조건으로 허락하였다.

당시 초대 주미 공사관 파견 인원은 전권공사 박정양을 비롯하여 참찬관 이완용(1859~1926), 서기관 이하영(1858~1929)·일등서기관 이상재(1850~1927), 번역관 이채연(1861~1900), 수원 강진희, 진사 이현용, 무변 이종하, 종자 김노미, 종자 허용업, 참찬관 미국인 알렌(Horace N. Allen) 등 총 11명이었다.

주미 조선공사 박정양 및 그 일행의 부임일정 및 경로를 살펴보면, 우선 박정양과 이완용은 고종에게 출국인사(음력 1887.8.7.)를 하고 서울을 출발하고자 하였으나 주미공사의 파견소식을 들은 이홍장이 급히 전보를 보내와 출국이 지연되었다. ‘영약삼단’ 준수조건으로 허락을 받아(음력 9.26.) 비로소 서울을 출발(음력 9.27.) 제물포에 도착하여 미국군함 Omaha호를 타고(음력 10.2.) 부산을 거쳐 나가사키에 도착하였다(음력 10.5.). 이어 박정양 등은 홍콩에 들러 민영익을 만나고 요코하마로 돌아와(음력 10.24.) 알렌과 합류하였다. 영국여객선 오세아닉호를 타고 요코하마를 출발(음력 10.26.) 하와이를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음력 12.28.)하였다. 그러나 승객 중 한 명이 병에 걸려 미 대륙 상륙이 며칠 동안 지연되었다(양력 1888.1.1.). 샌프란시스코 팔레스 호텔에서 2박 3일을 투숙(양력 1.1.~4., 6층 840호) 이어 센트럴 패시픽유니온(Central Pacific Union P.)의 버링톤 팬대륙 횡단열차(Burlington and Penn Vestibule Train)를 타고 시카고를 거쳐(양력 1.4.~9.) 워싱턴 DC에 도착하여 에빗하우스 호텔(Ebbitt House Hotel)로 숙소로 정하였다(양력 1.9.).⁴ 박정양 공사 일행은 에빗하우스 호텔에 머무르

1 김원모, 『개화기 한미 교섭관계사』, 단국대학교출판부, 2003, 521~522쪽.

2 조미수호조약 제1조에 명시된 ‘居中調整’은 조선이 주변 열강으로부터 침략 시 미국이 개입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출발하였으나,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 포츠머스조약(1905년 9월) 등을 거치면서 미국은 일본이 조선에 주둔하는 문제와 을사조약 체결을 용인하였다(김원모, 앞의 책, 114~172쪽).

3 李夏榮, 「韓米國交와 海牙事件」, 『신민』 14, 1926, 301쪽; 이민식, 「금산 이하영 연구(1858~1929)」, 『白山學報』 第50號, 232쪽.

4 Ebbitt House Hotel을 조선인은 業斐太 호텔이라고 하였다. 이 자리에는 호텔대신 현재는 National place and National press building이 서있다. 주소는 529 14th street N.W., Washington D.C.이다.

면서 미 국무장관 T. F. Bayard(1828~1898)를 방문하고(양력 1.13.), 며칠 후 제 22대 미국 Stephen. G. Cleveland(1837~1908)를 예방하여 국서를 봉정하였다(양력 1.17.). 비로소 최초로 미국 워싱턴 DC에 주 미조선공사관을 임대하여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양력 1. 18).

3. 제1차 및 2차 주미조선공사관 개설시기

현재까지 국내외 한미외교사 및 독립운동사 관련 대다수 연구자들은 몇 가지 단편적인 사료만을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해왔으나,⁵ 「미국무부문서」를 통해 제1차 주미조선공사관 부지와 제 2차 주미조선공사관으로 실제 옮기는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제 1차 주미조선공사관 개설 일자 및 주소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의 공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⁶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January 20, 1888

Mr. pak chung yang

The Secretary of State presents his compliments to the Minister of Great has the hono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his note of the 18th instant, giving the official address of the legation of corea at this capital as 1513 O street.



<사진 1> 제 1차 주미조선공사관 터(1513 O Street, Washington D.C.)

조선이 미국과 수교를 맺고 처음 공사 업무를 보았던 제 1차 주미조선공사관 개설일이 1888년 1월 18일임을 「미국무부문서」 1월 20일자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공사관 건물은 알렌의 소개로 그의 친구 피셔(V. S. Fisher)의 집(皮瑞屋)을 공관으로 임대하여 운영했던 곳이다. 그 건물은 이후 도시계획으로 철거되어, 주차장과 세차장으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급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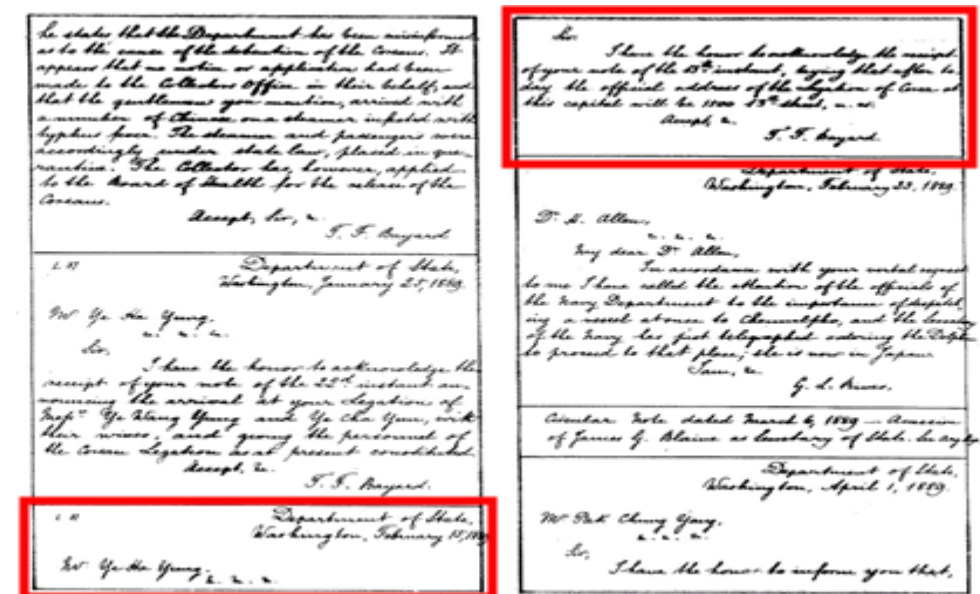
트가 들어서 있다. 제 1차 공사관 건물에 대해서는 단지 주소 정도만 알려져 있었으나, 월남 이상재가 1926년 『별건곤』 잡지에 기고한 다음 글에서 공사관 내외부 모습과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었던 모습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공관은 붉은 벽돌조의 3층 양옥으로 남향의 신축이었으며 응접실·집무실·침실·

식당·욕간(浴間)·변소·창고까지 구비하였는데, 최상층의 전면에는 깃대를 세우고 태

극기를 높이 게양했다.”⁷

초대공사 박정양은 파견 허락조건으로 청이 요구했던 ‘영약삼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고종으로부터 소환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 국무장관을 예방하기 전에 주미청공사 장음환을 내방해서 국서봉정과 방문절차 등 대미외교에 관해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정양 일행들은 결국은 실행하지 않았다. 이는 영약삼단 중 첫 번째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박정양은 워싱턴을 떠나기 전 1888년 11월 16일자로 공사업무를 서기관 이하영에게 넘겼다. 이하영은 서리공사로 임명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1889년 2월 13일자로, 임대해서 사용하던 피서옥, 즉 제 1차 공사관에서 제 2차 공사관으로 옮겼다. 2014년까지 제 2차 주미공사관의 개설 및 운영 시점을 주미공사관의 등기를 완료한 1891년(고종 28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아왔지만 아래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소(The National Archives) 소장 문서와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진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제 2차 주미조선공사관 건물로 옮긴 시점이 1889년 2월 13일부터였음이 새롭게 밝혀졌다.⁸



<도 1> 미 국무부장관 T.F. Bayard가 주미서리공사 이하영에게 보낸 공문(1889.2.15.)

위의 <도 1>는 서리공사 이하영이 1889년 2월 13일자로 미 국무부장관 Bayard에게 새로 옮긴 공사관 주소가 1500 13th Street N.W.로 미 국무부가 주미조선공사관의 공식주소를 확인한 내용이다.⁹ 즉, 1889년 2월

5 제 2차 주미조선공사관 개설 일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공식적으로 조선이 공식적으로 매입한 일자인 1891년 11월 30일로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6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to Pak Chung Yang, Notes from the Korean Legation in the Unites States to the Department of State, 1883-1906. File Microcopies of Records in the National Archives, Washington, D.C.

7 이상재, 「상투에 갓 쓰고 미국(米國)에 공사 갔든 이야기」, 『별건곤』 1926년 12월.

8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워싱턴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잊혀진 3년’을 찾았다!」, 2013년 4월 25일자 보도자료 참조.

9 Ye Ha Young to T. F. Bayard, February 15, 1889, Notes from the Korean Legation in the Unites States to the Department of State, 1883-1906. File Microcopies of Records in the National Archives, Washington, D.C.

13일부터 제 2차 주미조선공사관 건물로 옮겨 운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2>는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사진으로 현재 남아있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외부사진 중 제일 빠른 시기에 찍은 사진이다. 사진 앞면 왼편 상단에 ‘개국 사백구십팔년 사월초구일’로 적혀 있어 당시 찍은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다. 1392년 조선 개국 후 498년 되는 해, 즉 1889년 4월 9일(양력 5월 8일)에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 2> 在美國華盛頓朝鮮公使館之圖(좌: 앞면/우: 뒷면)

현관 계단에는 왼쪽으로부터 참무관 이완용, 서리전권공사 이하영, 서기관 이채연, 앞 계단에 참찬관 알렌 등 4명이 찍은 단체 기념사진이다. 현재 1889년 5월 8일(양력)에 공사관 앞에서 4명이 촬영을 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당시는 서리공사 이하영이 1889년 5월 8일자로 미 국무성에 군복과 군 장비를 주문하여, 미 국무부장관 블레인(J. G. Blaine)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날임을 감안할 때 그 일을 기념하여 찍은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또한 건물 옥상에는 국기게양대에 ‘국기’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현지 고용인으로 추정되는 흑인 한 사람이 국기게양대 옆에 서있는 모습이 포착된다. 기념사진 뒷면에는 촬영 년도를 ‘大朝鮮開國 四百九十八年 四月初九日’로 표기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청의 연호를 쓰지 않고 ‘대조선개국’으로 조선의 독자적인 개국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조선이 청으로부터 ‘자주독립국’임을 국내외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모습이다. 아래에는 직책과 이름들을 표기한 글씨가 보이는데, 사진 앞면의 인물들이 뒷면에 비쳐 보이는 순서대로 표기하였고, 건물 옥상 국기 위치에도 ‘國旗’라 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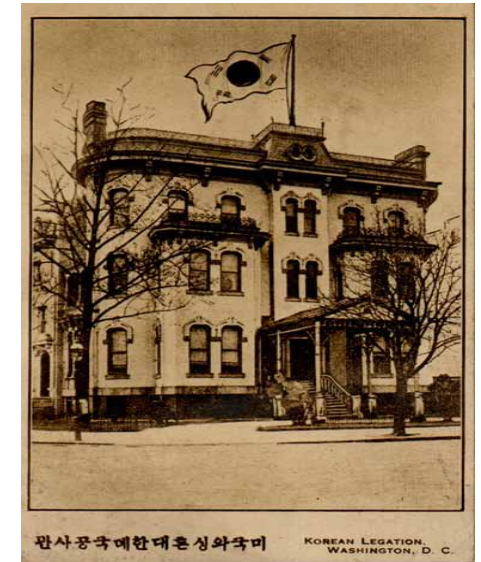
4.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자주외교’의 상징물

1) 공사관 옥상 게양대 태극기

현존하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외부 사진은 모두 6점이 확인된다. 위 <사진 2>와 같이 희미하게 태극기가 보이는 사진과 게양대는 뚜렷이 보이거나 국기를 게양되어 있지 않은 아래 <사진 3>, 게양대에 국기를 과장되게 그려 넣은 아래 <사진 4>는 엽서 형태이다.



<사진 3>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외부 모습
(미국헌팅턴도서관 소장, 1893년 촬영)



<사진 4> 대한인국민회 제작 엽서

<사진 4>는 사진 엽서 형태로 아래에 공사관 명칭을 한글로 ‘미국와싱턴대한제국공사관’으로, 영문은 KOREAN LEGATION WASHINGTON, D.C.로 적혀있다. 이 엽서의 경우 제작 시 태극기는 게양되지 않은 사진에 태극기를 과장되게 그려 넣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한제국이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기능을 상실하고 1910년 한일강제병합으로 일제로부터 국권을 상실하게 되자, 미주 독립단체인 샌프란시스코 소재 대한인국민회(Korean National Association) 소속 독립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엽서형태로 실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¹⁰ <사진 2>와 <사진 4>의 옥상의 태극기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자주독립국’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징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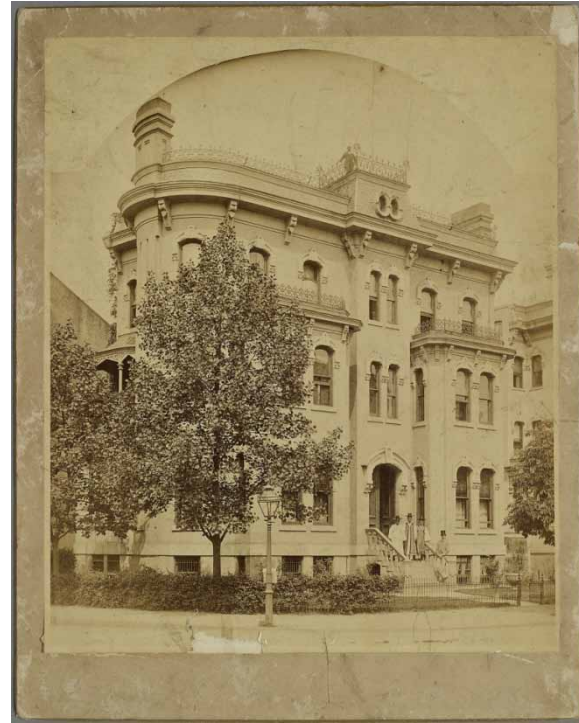
2) 공사관 입구 포치(porch)와 태극 문양

주미공사관 외관 건물 <사진 5>과 <사진 6>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5>는 <사진 2>와 동일한 사진이지만, 촬영한 시기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 2>의 설명을 통해 당시 공사관을 촬영한 시기가 1889년 5월 8일임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사진 6>은 촬영 시기가 확실하지 않은 서재필 선생 유족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사진으로 계단 위로 포치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치는 1889년 당시에는 없었고, 1891년 매입 전후에서 건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진 7>에서 볼 수 있듯이, 포치 앞에 조각된 태극 문양이 있는데, 이는 주미공사관 인장(印章)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태극 문양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중앙의 태극 부분이 얇은 선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원형의 테두리 안에 각각 건, 곤, 감, 리, 사괘가 투조로 뿔려 있는 상태이다. 페디먼트 장식의 재질은 철제로 보이며, 계단 포치 합각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당시 조선의 국기인 태극기를 설치한 것이다. 태극은 상하가 아니라 좌우 나뉘므로 되어 있으며 사괘는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건(☰), 감(☶), 곤(☵), 리(☲)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¹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옛 駐美대한제국공사관 ‘태극기 합성사진’ 비밀 풀렸다」, 2013년 8월 14일, 보도자료 참조.



<사진 5>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외부경관
(김가진 유품 중 손자 김자동 소장)



<사진 6>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외부경관
(독립기념관 소장, 서재필 유족 기증)

사진 상으로는 이 건물이 공사관을 알리는 현판이 따로 보이지 않으나, 이 태극 문양을 통해 이 건물이 주미조선공사관임을 알리는 상징물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다.

3) 공사관 1층 복도에 걸린 대형 태극기

공사관 내부 사진 중 아래 <사진 8>은 계단을 올라 현관에 들어서면 왼편에는 객당(客堂, 접견실)이, 오른편에는 식당(食堂)이 서로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앙 홀 오른편 벽면에 대형 태극기가 세로로 걸려 있다. 태극기는 위쪽에 가로로 봉을 달고 태극기를 커튼을 다는 방식으로 설치하였다. 1893년에 촬영한 흑백 사진으로 색상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태극 왼편은 홍색, 오른편은 청색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사과는 왼쪽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차례로 감, 곤, 리, 건의 순서로 되어 있다. 태극기는 천에 해당 색깔의 천을 모양대로 정교하게 박음질하여 만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사진 8>에 걸려있는 태극기 위에 광화문 육조거리로 보이는 사진이 액자로 걸려 있다. 이 사진은 <사진 9>의 원본 사진으로 Hon. G. Curzon이 저술한 Problems of the Far East(1894년 발행)의 사진으로 'GATE OF THE OLD PALACE'로 소개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이 광화문 사진 액자가 걸린 시기는 1893년 이전이 될 것이고, <사진 9>가 촬영된 시기와 왜 광화문 사진이 걸려있는지에



<사진 7> 포치 정면 태극 문양

관한 추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필자가 새로 발굴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901년 『주미내거안(駐美來去案)』자료에 의하면, 주미대한제국공사관 1층의 구조가 정당(正堂), 객당(客堂), 식당(食堂)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정당에는 어진(御眞, 황제 초상화)과 예진(睿眞, 황태자 초상화), 국기 일면(一面)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확인하였다.¹¹ 이러한 자료를 볼 때, 실질적으로 공사관 내부에서 공사 및 공사일행들이 매달 초와 보름에 어진과 예진을 모셔놓고 망배례(望拜禮)를 거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8> 공사관 내부 태극기 사진 (미국 헌팅턴도서관 소장, 1893년 촬영)



<사진 9> Hon. G. Curzon, Problems of the Far East 사진 (1894년 출판)

4) 객당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배치

공사관 현관을 들어서면 중간 홀 오른편 벽면에 대형 태극기가 세로로 걸려져 있고 왼편에 위치한 방이 객당(접견실)이다. 1893년 촬영한 <사진 10>은 당시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의 종류 및 비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고, 조선 어린 호랑이 가죽 2종이 카펫에 깔려 있으며, 창마다 커튼이 쳐져 있으며, 벽난로 앞에는 벽난로 가리개가, 그 양 옆으로 도자기 2종, 빅토리안 양식의 소파, 카펫, 탁자와 벽난로 위에 액자 12개, 조선에서 가져간 10폭 화조도 병풍 등이 배치되어 있다. 1901년 당시 공사관 객당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목록을 정확하게 기록한『주미내거안(駐美來去案)』,「주미공관수리후유물기(駐美公館修理後留物記)」에 따르면,¹² 큰 거울, 의자 11개, 병풍, 그림, 작은 걸상, 작은 종, 유리 화병 등이 비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진 10>의 촬영시기가 1893년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제시한『주미내거안』작성 시기인 광무 5년(1901)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사관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층은 내부 사진이 남아있어 모

¹¹ 본 문서는 광무 5년(1901) 8월 주미특명전권공사 趙民熙가 외부대신서리 閔種默에게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수리후 물품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내용이다(『駐美來去案』, 「駐美公館修理後留物記」, 奎 18061, 6冊).

¹² 客堂 交椅十一坐 綢屏三件 大鏡一坐 板畫四件 榻凳一坐 紗帳十一件 厚帳六雙 石粧坐鍾一坐 玻璃花瓶一雙 扞槍擲物一雙 華瓶一箇 鐵網屏一件(『駐美來去案』, 「駐美公館修理後留物記」, 奎 18061, 6冊).



〈사진 10〉 공사관 객당 사진
(미국 헌팅턴도서관 소장, 1893년 촬영)

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2층과 3층, 지하층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다. 필자는 광무 4년(1900)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수리를 위해 견적서를 받은 내용을 2014년 6월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견적서에서 발견하였다. 그 견적서는 1898년 4월 공사관에 불이 나고, ¹³ 누수가 심해 그 이후 수리 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견적서를 받았다. 그 견적서를 발신한 곳은 A. J. Fisher & CO.이며, 수신인은 당시 임시공사로 있던 이의담에게 보낸 문서로 공식문서 명칭은 「주미공관중수명세서(駐美公館重修明細書)」¹⁴ 이다. 그 견적서에 따르면, 공사관 층별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가 명시되어 있고, 수리 및 보수를 위한 방안을 적고 있다. 지하층은 지하홀, 보일러실, 당구대, 부엌, 화장실, 식품저장소, 세탁실, 1층은 메인 홀 및 후면, 응접실 및 후면, 온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2층은 홀, 공사방 1실, 욕실 2개, 도서관, 사무실, 침실, 3층은 방 3실, 욕실, 입구는 포치로 구성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는 기존에 공사관 내부공간 구조와 활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로 1층은 정당과 객당(접견실), 식당으로 구성되어 특히 정당에는 고종 어진과 순종 예진을 모셔놓고 매일 초하루와 보름에 망꺽례를 행했던 장소이다. 2층은 주로 공사의 집무실과 서재가 위치하고 있었고, 3층은 공사일행의 거주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료는 2018년 5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원형을 복원하고 전시공간으로 재현하는데 중요한 복원근거자료가 되었다. 이와 같이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사진자료와 『駐美來去案』, 『미국무부문서』 등 새롭게 발굴한 사료를 통해 태극기가 국기게양대와 1층 통로에 게양되고 있어 대조선국이 자주독립국임을 상징하고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 및 가구 배치, 공간 배치 등에서 보이는 상징성들을 살필 수 있었다.

5. 이채연 공사 자녀 출생

1888년 공사관 개설 이후, 1905년 을사늑약으로 폐쇄될 때까지 공사 및 관원들의 현지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미국 내 신문과 잡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했고, 대략 900여 건의 기사를 검토했다. 이 중 이채연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기사들이 흥미롭다. 이채연은 1888년 박정양이 미국에 파견될 당시 번역관으로 수행했고, 같은 해에 서기관(書記官)으로 승진했다. 이해 7월에는 참서관 이완용과 함께 병을 이유로 일시 귀국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1889년 1월 부부 동반으로 워싱턴 DC로 복귀했다는 기사가 특이하다. 이와 관련해 조선 공사관 동정을 소개한 미국 신문은 “조선 여성들이 전통복식을 입고 최초 도미(渡美) 했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이채연은 1890년부터 1893년까지 서리공사로 재임했는데,

부인 성주 배씨 사이에서 1890년 10월 12일에 아들(딸이라고 보도한 기사도 있음)을 출산했다고 현지 언론에서 기사화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아들을 출산했는데, 조선인 최초 미국 출생’이며, 이름은 ‘Washington’(워싱턴)의 음차로 ‘Ye Washon’(니화손)이라 지었다. 하지만 니화손은 천식으로 두 달 닳새 만에 사망해 당시 공사관의 건물 주인인 세스 펠프스(Seth Phelps)의 가족묘지에 안장됐다. 펠프스의 사위 세블론 브라운(Sevellon Brown)은 당시 미국무부 차관이자, 공사관 매입 당시 계약 당사자였다. 그 가족묘지에 ‘조선의 첫 외교관 자녀’가 묻히게 되었다.

6. 결론

주미공사관 개설은 고종의 외교의 다변화를 통해 오랫동안 청의 속박으로부터 ‘자주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1882년 5월 조미수호조약 체결로 맺은 성과물이다. 즉 조미수호조약 제 1조의 ‘居中調整’과 제 2조 ‘공사급 외교관 파견과 공사관 개설’의 이행이었다. 미국과 수교는 고종으로서는 ‘자주독립국’으로서 ‘자주외교’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청의 방해와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조약체결 즉시 주미공사를 파견하지는 못했지만, 5년 후 1887년 박정양을 초대특명전권공사로 워싱턴 D.C.에 파견하여 주권국가로서 ‘자주외교’를 펼치게 하였다. 조선은 속국이므로 청이 공사파견을 방해하였으나, 고종의 의지와 미국의 도움으로 ‘영약삼단’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주미조선공사관을 개설할 수 있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료를 근거로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거나 소개하였다. 첫째, 제 2차 주미조선공사관의 개설 일자이다. 기존 연구자들은 박정양이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설한 제 1차 주미조선공사관, 일명 피서옥과 제 2차 주미조선공사관을 건물을 혼동하는 경우이다. 또한 피서옥에서 제 2차 주미조선공사관으로 이정한 시기가 1891년 11월 최종 건물을 매입한 시점으로 보는 견해를 바로잡았다. 즉 1888년 1월 皮瑞屋을 임대하여 주미조선공사관 개설하였고, 이어 1889년 2월에 근처 3층 건물을 임대하여 제 2차 주미조선공사관을 개설하여 사용하다가, 1891년 11월에야 비로소 고종의 내탕금 25,000달러를 들여 최종적으로 매입하여 운영하였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제 2차 주미조선공사관 최초 운영의 시점은 1891년 11월이 아니라, 1889년 2월 13일부터로 약 2년 10월 시기를 앞당겼다. 둘째, 공사관 내외부 사진 자료에 보이는 태극기 게양과 청 연호 사용 대신 ‘대조선개국’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자주독립국’으로서 ‘자주외교’를 펼치는 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셋째, 규장각 소장 『주미내거안』 「주미공관수리후유물기」와 「주미공관중수명세서」에 보이는 내용을 통해 공사관 내부 물품과 각 층별 활용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이후 102년 만에 재매입한 주미조선공사관 또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복원 및 층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근거자료가 되었다. 1910년 일제에 의한 강제병합으로 매각된 지 102년 만인 2012년 10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마침내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와 2013년 1월부터 문화재청으로부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받아 5년 여 ‘복원 공사 및 전시조성 사업’을 거쳐 2018년 5월 22일 미국 워싱턴 DC 로건서클에서 개관식을 개최하고 113년 만에 공사관 건물 옥상에 태극기를 다시 게양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사진 11〉 니화손 묘비(Oak Hill Cemetery)

¹³ 「독립신문」 1898년 4월 16일자, 4면 2단 기사, “지나간 토요일에 미국 와승돈에 잇는 대한 공스관에 불이 나서 온통 다 타졌다더라.”

¹⁴ 『駐美來去案』, 『駐美公館重修明細書』, 奎 18061, 5冊.

내가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

The "Grandfather" I didn't Know
-The Awful Truth Behind the Father of Modern Korea-

서동성 (t. s. Suhr)

(변호사)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자라면서 인척관계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서재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랐다. 처음 그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은 1948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 3년이 지나고 내가 13살 되던 해였다. 우리 할머니가 원목소리로 불안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서재필이란 사람이 바로 우리 친척 중 하나이고,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속삭이듯 말씀해주셨다. 마치 곧 닥쳐오는 큰 위험을 감지한 놀란 어린 사슴처럼 할머니는 해서는 안될 신비속에 묻혀진 이야기를 꺼내시는 듯 두려움에 떨려 나즈막한 목소리로 털어놓으시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동시에 나는 할머니가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셨던 집안의 비밀 내지는 저주를 처음으로 꺼내시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면서 반세기 이상을 마음속 깊이 짓눌려두셨던 쌓이고 쌓인 집안의 원한의 역사를 털어놓으시면서 어느 정도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끼시는 듯 보였다.

그 아리송한 사실이 밝혀진 한참 후에도 나는 할머니가 말씀한 모두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1955년에 미국에 유학온 후 까지도 더 알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후부터는 남이 서 박사에 대해 써놓은 글을 내손에 들어오는대로 읽기 시작하였다. 읽으면 읽을수록 왜 우리 조상의 한사람이 우리 형제로부터 그토록 오랫동안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가리워져 있었고, 우리는 정확히 어떤 친척관계였고 어찌하여 그리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의 존재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않았다.오래 걸렸지만 이리저리 모은 정보의 편린들, 여기저기에서 얻어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아직도 군데군데 빈 곳이 많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우리 집안의 큰 그림인 퍼즐을 맞출 수 있었다.

우리 족보부터 시작해 보련다. 우리 고조되시는 서광효 (어느 족보에는 서광언으로 되어있다) 는 4형제와 한 분의 따님을 두셨다. 연령별로 재춘, 재필, 재창, 재우와 정씨에 출가한 따님 한분. 그러니까 서 박사는 4 형제 가운데 차남이시다. 1884년에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그리고 그 중 나이가 제일 어린 20세의 서재필! 이들 젊은이들이 당시 정권을 쥐고 있었던 민비와 그의 조카 민영익을 조정

에서 몰아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갑신정변은 실패했고 서재필을 포함한 공모자들은 모두 역적으로 몰렸다.

고종은 서재필 부모에게 사약을 내렸고 서박사의 아버지는 “역적 자식을 둔 죄인이 어찌 하늘은 볼 수있느냐” 하고 부인부터 사약을 마시도록 한 다음 당신도 마심으로 역적 자식을 둔 죄 값을 치렀다. 그의 형이요 나의 증조부도 동생이 역적이니 사약을 받으시고 동생인 재창은 당시 15세, 장가도 안들었고 사약을 피하려고 도망다니다 지금의 광화문 주변에서 민중에 잡혀 노상타살을 당했다. 서박사의 부인은 광산김씨 출신인데 그 역시 죽지않으려고 도망가 숨으려 했지만 역적의 식솔을 받아들여 은익시키면 받아들이는 집안 까지 같은 형벌을 받아 같은 화를 입어야 하니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아 몇 일을 도망다니다 결국은 지쳐 포기하고 사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서재필과 부인 사이에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어떻게 어린 아들이 죽었는지는 두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아기엄마가 사약을 드시고 이미 싸늘해졌는데 아이가 죽은 엄마의 독이든 모유를 먹자마자 눈부터 물러지더니 몇 초 사이에 아이도 죽었다는 설. 다른 하나는 그리 끔찍하지는 않다. 엄마가 사라지자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어 굶어죽었다는 설. (지금까지도 어느 설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이 목격자 대부분은 같이 살해됐거나 알만한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다 사라졌으니 알아 볼 길이 없다.)

이와 같이 서재필 때문에 고려시대로부터 이조시대에 이르기까지 학자집안이고 높은 공직에 종사한 가문, 특히 이조 선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7대제학과 7정승을 배출한 가문이 하루아침에 멸족을 당한것이다. 어찌어찌 해서 살아남은 유족은 아직 엄마 배 속에 있었기에 독살을 면한 형님 재춘의 아들 영석, 나의 조부와 서재필의 막내아우 재우, 그리고 출가한 여동생이다.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는 집안의 유모가 몰래 빼돌려 충청남도 시골로 도망쳐 아무도 모르게 자랐다. 막내 재우와 여동생은 어떻게 살아 남았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몇 세기를 서씨 가문이 대대로 살아왔던 충남 논산, 만인의 전망이었던 구자곡 마을은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피하는 저주의 고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수 세기 동안 대대로 내려 오면서 집안을 빛낸 서씨 가문이 서재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멸문지화를 당한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못했고 그 이름은 철저한 금기사항이 되었다.

하기야 한동안 서씨 가문 이름이 회복되는 듯 하기도 했다. 1895년 피비린네 나는 숙청이 벌어진 10년 후 개혁을 외치던 진보세력이 집권하였다. 개혁을 부르짖던 진보파 지도자 김홍집이 총리로 임명되고 개혁운동에 실패하여 서재필과 같이 망명했던 박영효와 서광범이 실패한 개혁운동을 다시 시작하려 돌아왔다. 고종의 전 왕 철종의 부마였던 박영효와 김홍집 내각에서 서 박사의 종숙이요 법무부장관직을 맡은 서광범이 아직도 미국에 머물고 있던 서재필에게 외무부 장관급의 요직을 제공하면서 귀국을 종용하였다. 고종은 고종대로 서재필과 그 동료들이 명치유신을 통하여 일본을 현대국가로 만든 것 처럼 우리나라도 개혁을 통하여 현대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무모하기는 하나 야심찬 개혁을 하려고 거사를 한 것이지 결코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고 설득당했다. 그 당시 고종은 김홍집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정변에 참가한 이들 모두에게 신원을 허락하게 되었고 덕분에 그들은 당분간 만

이라도 공적서류 상에 신분이 회복되었다.우리 집안에 관한 한 고종의 사면은 별 의미가 없었다. 그 때는 이미 우리 집안은 쑥대밭이 된지 오래된 후이기 때문이다.

일단 명예를 되찾은 것 외에 1885년 갑오경장은 서 박사에게 그가 일단 시작했던 현대국가로의 건설과 복구작업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그는 외부장관을 비롯한 여러 관직은 사양했고 내키지 않았더라도 조국에 돌아와 조국의 대중교육 사업을 시작하였다.그가 가담했던 정변의 어이없는 실패가 일반 민중의 공감에 전혀 없었고 앞으로 조국의 재건은 전적으로 일반시민의 교육을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순 한글과 영문으로 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신문을 발간했고, 영문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고 중국사신을 대접하던 서대문의 모화관을 독립협회 회관으로 쓰고, 나중에 독립협회로 발전한 협성회를 만들어 공공토론의 기초부터 익히게 하며 당시 만인의 관심사였던 현안들의 대중토론을 위하여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배재학당에서 민주주의, 세계역사, 도로 시스템, 일반 대중의 건강과 위생, 과학, 그리고 그 당시 드물게 여성인권신장 등 그 당시 새로운 사상 등을 강의하였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독립정신과 국가의 현대화 그리고 완전독립의 사상을 주입시키려는 노력이었다.그가 길러낸 여러 열렬한 학생 중에 이승만이 있었는데 그는 서박사가 목요일마다 배재학당에서 한 강연 요지를 또박또박 받아 필기하고는 나중에 그것을 토대로 미국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펴냈다.

불행히도 갑오경장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1884년까지 러시아에 기대던 민비의 보수정권은 개혁을 시도한 혁신정권에서부터 권력을 되찾았다. 겨우 2년간의 혁신운동은 수포로 돌아갔고 서재필은 김홍집이 서울 큰 길 한 복판에 효수된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철종의 부마 박영효와 서광범은 다시 망명길에 올랐다. 서재필은 미국 시민권을 유지했기에 겨우 목숨을 건지며 같이 망명길에 올랐다. 미국으로 귀국한 서재필은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미 군의관으로 일하면서 병리학에 몰두하고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병균학을 강의했지만 쇠잔해가는 고국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고국의 현대화 노력은 지속하였다. 그러나 속수무책이라 실망하면서도 한편으로 서 박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1905년 필라델피아에 필립 제이슨이라는 상호아래 인쇄업과 사무용품가게를 운영하면서 돈도 꽤 벌고 한 때는 50여명의 직원을 두기도 하였다. 그는 필라델피아시 상공회의소 전신인 기업인협회의 재무를 맡기까지 하였다. 그 같은 재정적 성공을 하면서도 서박사는 1910년 일본이 한일합병을 한 후에는 특히 기울어져 가는 고국의 운명을 보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였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튿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악랄한 일제에 항거하여 일어났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자마자 서재필은 이승만과 정한경과 함께 1774년과 1775년 필라델피아 시에서 두 번 열렸던 미 연방의회를 본떠서 제1차 한인 연합대회를 3일 간 개최하였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다음날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한인 연합대회에는 임병직, 조병옥, 장택상, 류일한, 민찬호, 윤병구, 김현구, 민규식 그리고 김도라 등 근대 대한민국을 세운 쟁쟁한 역군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야말로 새로운 한국의 초석이 다져지는 모임이었다. 이 모임에서 이씨 조선의 폐허에서 기독교 신앙에 토대를 둔 새로운 공화국 형태의 나라가 세워지는 골자의 결의문이 채택되었고, 한국정치 역사상 “공화국”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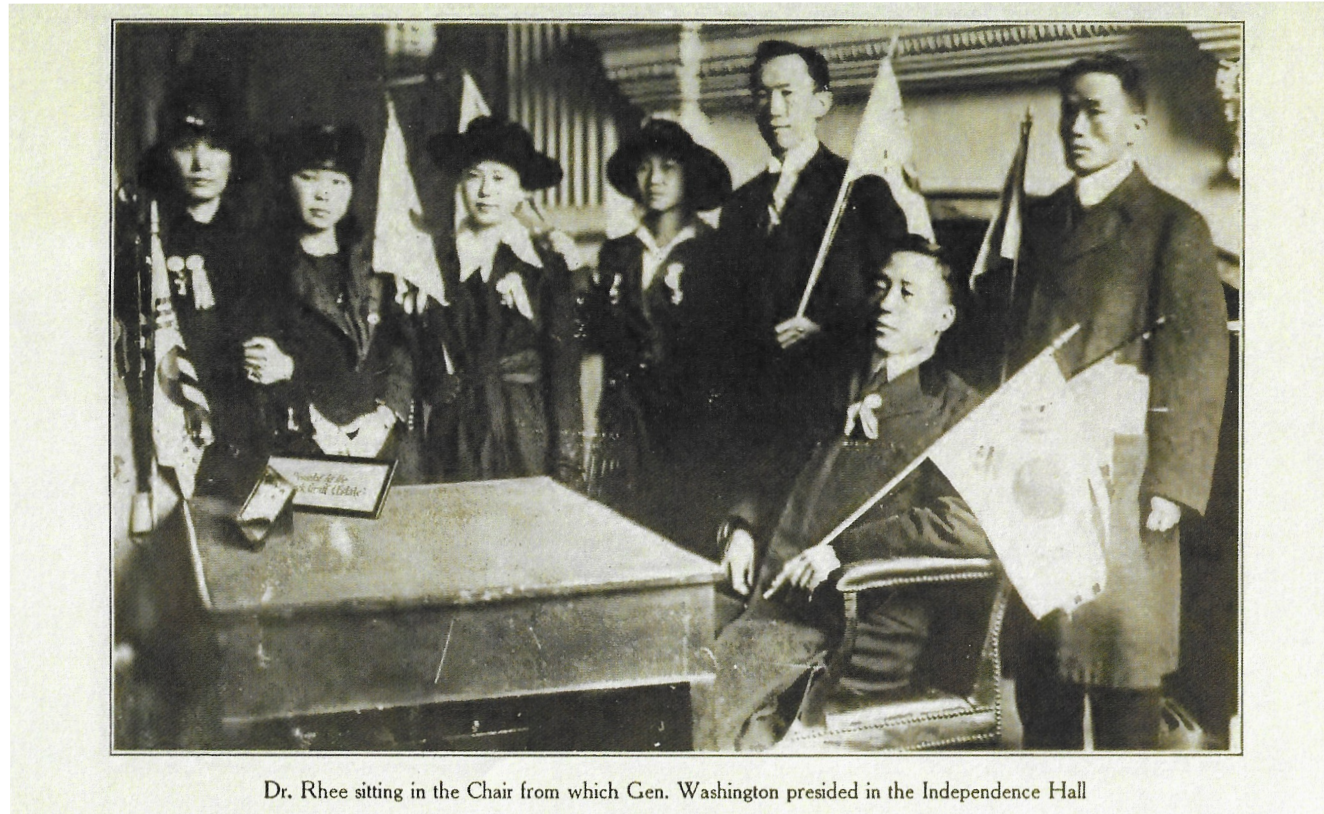
그리고 전에 일반 대중으로부터 상해임시정부수반으로 추대되었던 이승만을 비록 꺼려했지만 회의를 주재한 서박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대표로 내세우기로 결정했다. 그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이승만이 미주 어디에 가든지 교포사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안창호가 세우고 오랫동안 현존하고 있었던 국민회에 맞서 동지회를 따로 만들어 왔고, 급기야 하와이에서는 분쟁이 폭력으로 번지면서 치열한 싸움을 일삼아 온 것을 기억하고 꺼려했던 것이다. 서박사는 불만이 많은 대표자들에게 이승만이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이며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교육을 많이 받았고 워싱턴 정부고위층 사람들과의 교분도 많이 구성하여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에 그를 떠받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마지막까지 달래고 설득하였다.

3일 동안의 회의는 마지막으로 회의가 열린 필리델피아시 17가와 데란시가에 위치한 리틀시어터 극장에서부터 미국 독립기념관까지 시 경찰악대가 앞장서고 시 기마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역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의 시가행진으로 마감되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기념관 관계자로부터 미리 묵시적 사전 승인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모든 대표자들로 일일이 갈라진 자유의 종을 오른손으로 어루만지게 한 다음 이승만으로 하여금 최남선이 쓴, 영문번역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하였다. 게다가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다시 견고히 각인시키기 위하여 이승만으로 하여금 만세삼창을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하여 각각 세번씩 제창하도록 유도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서박사는 150년 전 미합중국



AT INDEPENDENCE HALL - The 3-day conference of the First Korean Congress ended at the Independence Hall in Philadelphia. Shown in the group photo include at front, Henry Chung, 5th from left; the tall Philip Jaisohn, 8th from left, and Syngman Rhee, 10th from left.

독립기념관에서 - 1919년 4월 필라델피아 에서 열렸던 제1차 한인연합대회는 회의가 열렸던 리틀시어터에서 독립기념관 까지 역수같이 쓰다지는 비 속의 행진으로 마감했다. 참석한 대표 가운데는 앞줄 왼쪽부터, 다섯번째로 정한경, 여덟번째 키가 큰 서재필, 그리고 10번째로 이승만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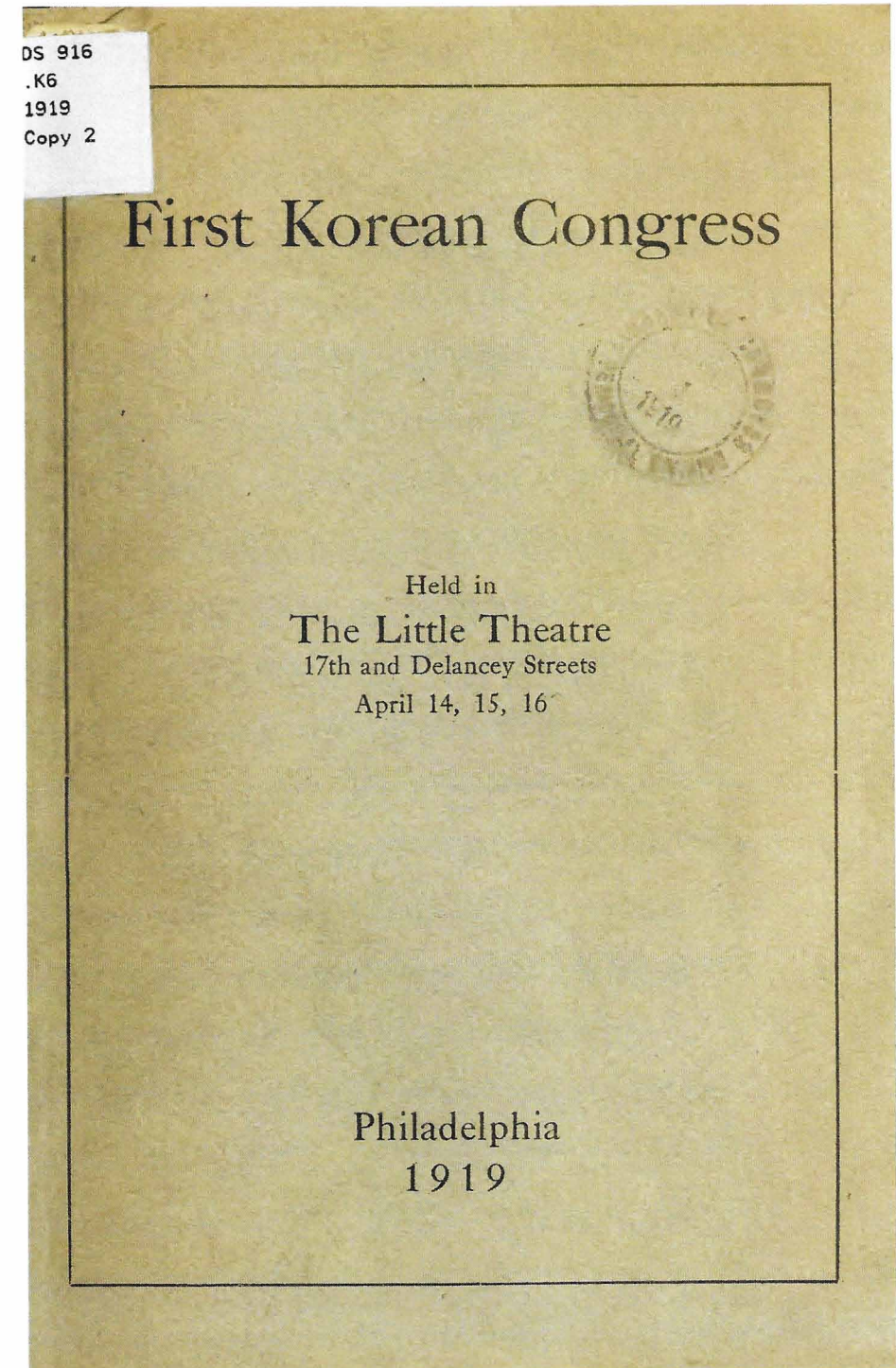
Dr. Rhee sitting in the Chair from which Gen. Washington presided in the Independence Hall

AT WASHINGTON DESK - Philip Jaisohn had Syngman Rhee sit on the very desk which George Washington sat when the American Founding Father sign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some 150 years before the First Korean Congress was held in Philadelphia.

와싱턴이 앉았던 의자 - 서재필은 이승만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하여 조지 와싱턴이 독립선언서를 싸인할 때 앉았던 의자에 앉도록 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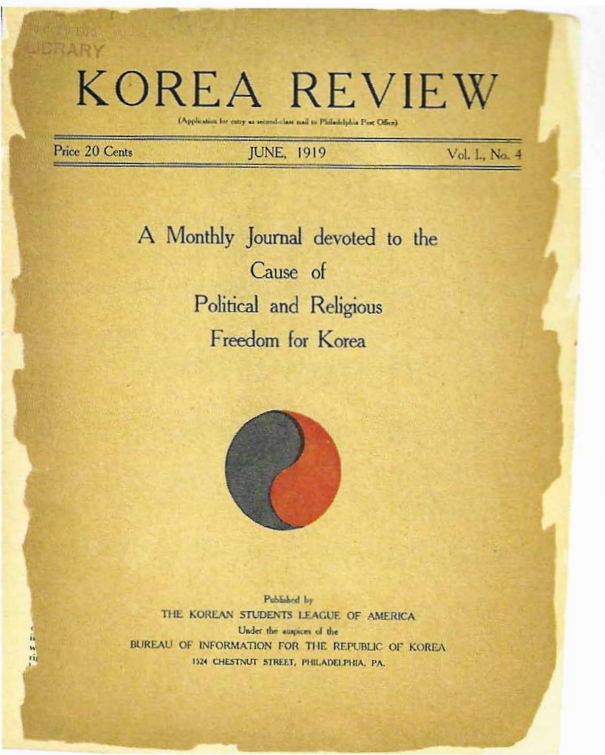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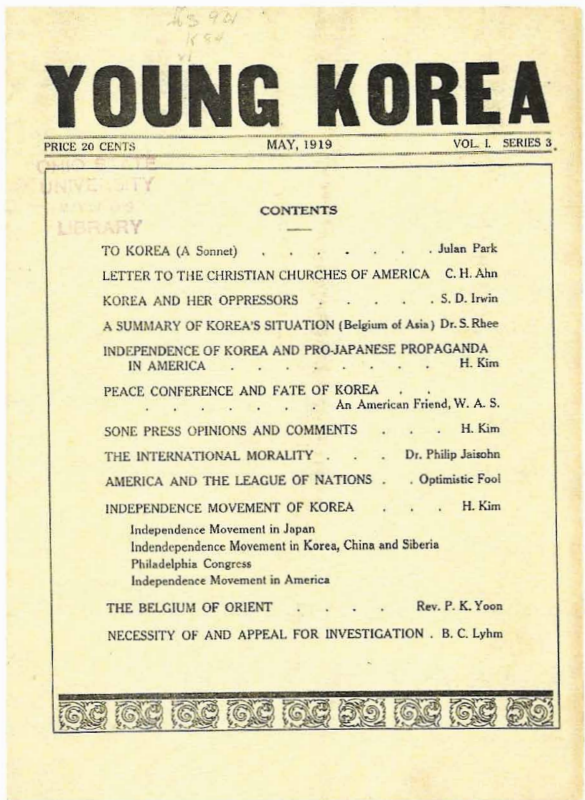
이 탄생할 때에 조지 와싱턴이 국부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면서 앉았던 의자에 이승만으로 하여금 앉도록까지 배려하였다.

3.1운동은 서재필을 다시금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는 다시 “코리아 열병”에 걸린 듯 하였다. 그 즉시로 그는 청진기와 확대경을 내려놓고 그의 모든 시간과 힘을 일단 정지상태에 있었던 조국독립운동에 바쳤다. 신생 대한공화국의 공보책임자 신분으로 그는 세계 만방에 조선의 사정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코리아 평론**이란 영문 월간지를 편집, 발행하였다. 그는 주위의 많은 친지들을 동원하여 **코리아 우호동맹**을 설립,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두고 미국내 29 도시와 런던과 파리에 지부를 두어 그 기관으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동정심과 도움을 얻도록 하고 상해임시정부의 외교기관 노릇을 하도록 하였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구미위원회부 고문으로서 1921년 11월 부터 1922년 2월 까지 미국 수도에서 열린 워싱턴 평화회의에 참석했으며, 1924년 하와이에서 열린 범태평양 평화회의에는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우드로 윌슨 미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에 힘을 얻은 서 박사는 미 의회 안에 있는 영향력있는 친구들을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선이 주권국가임을 선포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안은 미국이 국제연맹수립을 찬성하는 법안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오하이오주 오웬상원의원에 의하여 제출된 이 수정안은 비록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은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문제가 토의된 계기가 되었다.



CONFERENCE RECORDS - Cover of the Proceedings of the 3-day First Korean Congress held on April 14, 15 and 16, 1919 at Little Theater in Philadelphia.

회의록 - 필라델피아에서 1919년 4월 14, 15, 16 사흘동안 열렸던 제 1차 한인 연합대회의 회의록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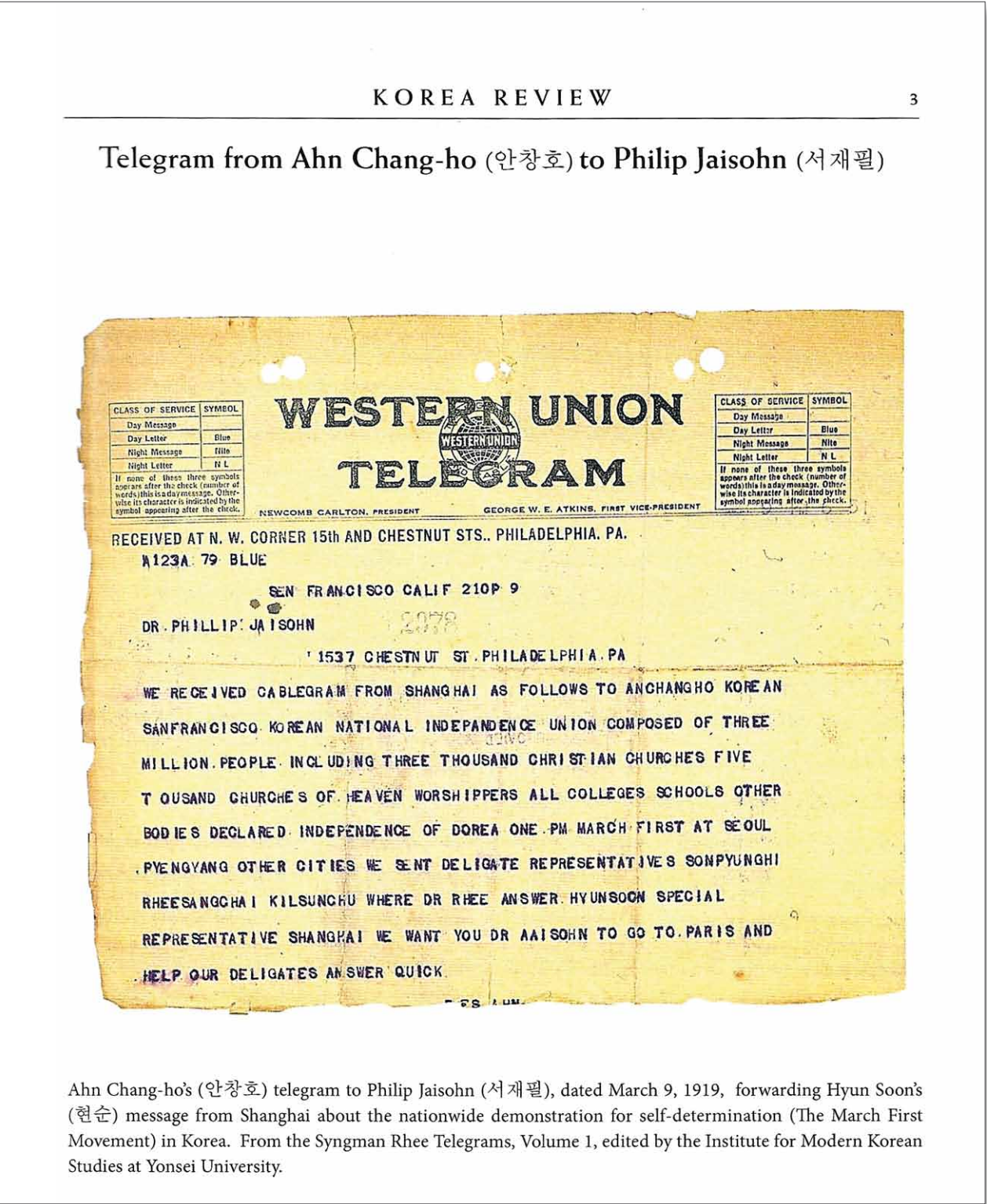
Original covers of the student monthly that became *Korea Review* in June 1919.

MONTHLY JOURNAL - To tell the story of Korea to the world Philip Jaisohn wrote, edited and published The Korea Review, a monthly magazine in English.

월간잡지 - 세계 만방에 조선의 딱한 사정을 알리려고 서재필은 영문으로 월간잡지를 쓰고, 편집하고 발행하였다. 잡지의 창간 제5호 표지.

서재필을 논할 때 “최초”라는 단어가 많이 붙어다닌다. 그중에 최초로 시민권을 획득했고 (1888), 최초로 미국 의사면허를 딴 것 (1886)이 대표적이다. 내가 알기로는 아마도 조선인으로 최초로 파산선고를 한 사람도 서재필이 아닌가 싶다. 아직까지 한번도 법정에 제출된 파산신청에 관한 서류를 직접 본적은 없지만 여러 믿을 만한 정보를 종합해보면 분명한 것이 오랫동안 다른 수입없이 잡지며 유인물을 발간하는 일, 여러 외교적 활동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일 때문에 1924년에 와서는 80,000불이란 그의 사재가 동이나 버렸다.

그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닌가 싶다. 잡지며 다른 매체에 실린 글 말고도 서재필은 일본정부 관료들에게 무수한 편지와 탄원서를 써 보냈는데 주로 한일합병을 저지르는데 대한 저주와 악랄한 식민정책을 조속히 끝내라는 질책 등이다. 결과로 그는 일본제국의 공적이요 항상 끊임없는 감시를 요하는 “불령선인”으로 낙인찍혔다. 어쩐지 적어도 1945년까지 우리가 일본의 악독한 압제 밑에 눌러있는 동안은 우리 가족이 서재필과 같은 위험분자와 친척관계라는 것이 알려질 수가 없었다. 서씨 가문 3족이 학살당한 것 만으로 족하고 그 위에 일본형사들의 감시와 팔세까지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서재필이라는 이름이 전혀 거론이 안되었고, 몇 남지 않은 우리 가족은 이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다. 1945년까지 우리는 충청남도 시골에서만 살았다.



Ahn Chang-ho's (안창호) telegram to Philip Jaisohn (서재필), dated March 9, 1919, forwarding Hyun Soon's (현순) message from Shanghai about the nationwide demonstration for self-determination (The March First Movement) in Korea. From the Syngman Rhee Telegrams, Volume 1, edited by the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NEWS OF THE 3.1 MOVEMENT-The news of the 3.1 Movement in Korea, which had been sent by Rev. Hyun Soon in Shanghai took 7 days to reach Ahn Chang Ho in San Fransisco. Ahn in turn sent the telegram to Philip Jaisohn in Philadelphia asking him to go to Paris to help the independence efforts.

3.1 운동 소식 - 놀라운 3.1 운동소식은 현순 목사가 상해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안창호에게 전했는데 안창호는 되짚어 그 소식을 필라델피아의 서재필에게 전하면서 파리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적극 도와 달라고 부탁한 전문.

1945년 이후에는 조선은 일단 일본 지배에서 벗어났고 서재필은 불안간 국민이 떠받드는 영웅이 되었기에 원하면 원하는대로 그의 이름을 외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조선은 38선을 사이로 두 동강으로 갈라져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왔고 남쪽은 미군이 진출했다. 미 연합군이 이남으로 들어오자 이승만은 서둘러 돌아왔고 서재필도 돌아오긴 하였지만 미 군정장관 하지 중장의 고문격으로 귀국한 것은 한참 후였다. 이승만은 서재필이 같은 고장에 있는 것이 못마땅하였다. 서 박사는 자신의 스승이었고 일생 자기를 치켜세우고 지지해주었지만 이승만은 서 박사를 항상 경쟁자로 여기고 자기의 절대적인 권력추구에 걸림돌이 되어 늘 눈에 가시처럼 여겼다. 거기에 서박사는 남한 단독정부 설립을 반대하였고 오히려 남북간 하나의 정부수립을 주장하였다.

문제를 더 성가시게 만든 것은 주로 미국에서 귀국한 인사들 가운데 서박사를 신생한국의 수반으로 추대하려는 작은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미국 교포사회에서 오랫동안 흥사단과 국민회에 몸담고 일하면서 서재필을 우러러보던 최능진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내놓고 서재필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은 이승만이 출마한 동대문구에 경쟁자로 출마하여 이승만에게 내놓고 도전하였다. 최능진의 무모하고 겁없는 반향은 끝내 최능진의 목숨으로 껴씌워의 대가를 치렀다. 최능진은 민간인이었고, 군에 관여한 적도 경찰기관과도 아무 연관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최능진은 비밀리에 군법재판에 회부되었고 죄목도 없이 판정을 받고 지체없이 곧바로 처형되었다. (우리 가족은 L.A.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에 고인의 따님도 출석하였었다. 매 주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우리 조상 한 분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서박사는 모든 그의 지지자와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자신은 무슨 공직에도 관심이 없다고 확실히 선언하였다. 그가 1895년부터 1897년까지 서울에 잠깐있는 동안 독립신문을 발행하면서 일단 시작한 조국근대화 운동의 재점화를 시도할 때에도 그에게 제공된 모든 공직을 사양했고 게다가 이번에는 80세의 고령이었고 그위에 그는 미국시민권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설령 원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받아들이 수 없다고 누누이 설명하였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오로지 자기를 추대했다고 엄한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는 것을 본 서박사는 자신을 세번이나 저버린 조국을 또다시 떠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서 박사는 이승만의 정적으로 지목된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없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여운형, 송진우, 장덕수, 김구 모두가 사형집행 당한 조봉암만 빼놓고 암살자의 총탄에 쓰러졌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승만이 이 모든 암살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다. 눈물을 머금고 서 박사는 80의 노구를 이끌고 돌아올 수 없는 조국을 등지고 다시 오지 못하는 인천항을 떠났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일본경찰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만큼, 또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만큼, 서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우선 과묵한 편이었는데다가 우리가 서박사의 파란만장한 삶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다. 어쨌건 아버지는 그런 기회가 오기 전에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하여 납북되었다. 실은 우리와 같이 계실 때에도 아버지는 서 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아끼셨다. 서박사가 1947년 망명 후 두번째로 한국했을 때도 소위 금의환양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몇 안되는 서씨 유족은 우리 세상이 다시왔다고 믿고 있었다. 서박사 때문에 우리 가문 3족이 멸했고 그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그늘 속에 살아야 했으며 변변한 직업도 갖

지 못했다. 이제는 그가 돌아왔으니 우리 가문의 영예를 회복하려 무엇인가는 할 것이 아니냐! 적어도 그의 막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여 식구들에게 공직에서 편한 자리라도 알선해 주겠지 기대를 하면서 서씨 가족만의 환영회를 하고자 서울로 올라갔다.

우리 아버지만은 시드령하게 여기셨다. 물론 그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많은 고생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지금에와서 그의 막강한 힘을 빌려 덕보려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셨다. 아버지는 가족서열상 가장 가까운 유족임에도 서박사를 위한 서울 가족환영회에 참석하지 않으셨다. 거기에는 또 한가지 마음 속 깊이 걸리는 것이 있었다. 역적이 죽으면 시체를 관도 쓰지 못하고 죽은 자세 그대로 묻어버리는 나라 관습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고조할아버지는 사약을 드신 후 피를 토하고 앞으로 고꾸라져 죽은 시신을 그 형태 그대로 흙더미 속에 아무 표시도 없이 묻어버렸다는 얘기가 된다. 아버지의 생각으로는 서박사가 처음 망명에서 귀국했을 때 제일 먼저 했어야 한 일은 부모가 쓸쓸하게 묻힌 곳을 찾아가 무덤 아닌 흙더미 위에 엎드려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부모님께 영원한 용서를 빌었어야 마땅했다. 자신 때문에 그의 부모가 가장 끔직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는 가족묘가 있는 곳으로 이장했어야 했다. 서박사는 1895년에도 1947년에도 그러지 않았다. 아버지는 감리교 목사로서 제사를 포함한 유교사상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법도는 지키지 않았지만 서 박사 같이 부모의 묘소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영 마음 속에 거슬려 있었다.

솔직히 나 역시 어째서 그는 기본적인 도리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효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한 일이 아무리 고상하고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 때문에 부모, 형제, 처자식이 모두 무참하게 희생되었는데 자기 부모가 내버려진 무덤 아닌 흙더미 마저도 가보지를 왜 안했는지다. 심리학자도 정신분석학자도 아닌 나 역시 그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추론, 아니 어리짐작은 할 수 있다. 서재필 안에는 두 인물이 있다. 먼 앞을 내다보는, 크고 많은 일을 이룩한, 밖에서 만인이 인정하는 거인 서 박사. 사적으로는 갑신정변이라는 터무니 없이 무모하고, 애초부터 어설피 구상되었으며, 아무런 준비도 안된 상태에 전혀 실행성 없는 쿠데타에 참가함으로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망쳐놓은 미숙한 이상주의자. 자기 때문에 부모, 형제들이 가장 가혹하고 끔직한 형벌을 받은 사실과 그로 인한 죄책감, 아픔, 그리고 수치심을 그의 연약한 속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었다. 미국으로 망명함으로써 얻은 제 2의 삶과 그 결과 외부적으로서의 서 박사는 고국에서 일어난 모든 일과 안으로의 서재필을 의식적으로 외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간단히 말하면 밖에서의 서 박사는 안의 서재필을 감당 못하여 그는 몇 몇 남지 않은 유족들조차 대면할 수가 없었다.

세번 째로 미국으로 돌아온 서 박사는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1951년에 외로운 생을 마감했다. 그는 흰히 내다 보았기에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기까지 했지만 그의 형제끼리의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가져온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의 병실에는 그의 딸이 항상있었다. 시시각각 그는 조국에서 일어나는 소식에 대하여 물었다. 1951년 1월 5일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고 영영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가 밖으로의 서박사가 아니고 안의 서재필로 서거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 아버지도 1950년 공산당에 납치되었다. 안계시니까 자연히 우리 역시 아버지 생각에 무엇 때문에 서 박사가 자손으로서 자기 부모와 가족에게 해야 할 일을 못했는지 물어 볼 기회

도 같이 잃게 되었다.

그 후 서 박사가 조국에 돌아오기까지 40년이란 시간이 또 흘렀다. 처음으로 서 박사의 환국이 진지하게 논의된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이었다. 위정자들이 왜 별안간 서박사를 한국으로 모시려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일반국민 사이에 서박사를 국내로 모시자는 여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1990년 초 민간정부가 서 박사를 조국으로 모시자는 공식 초청이 전해졌을 때는 서박사의 미국 태생의 부인 사이에 낳은 딸이 생존해 있었다. 그러나 그 딸은 자기 아버지의 환국을 극구 반대하였다. 1884년 쿠데타에 실패한 후 미국으로 망명한 서박사는 이름을 미국식으로 고쳐 필립 제이슨으로 개명하고 미합중국 제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케년의 사촌이요 열차우편 시스템을 개발한 암스트롱 대령의 딸 유리얼 암스트롱과 결혼하였다. 그들은 스테파니와 무리엘 두 딸을 두었는데 그 중 둘째 유리엘은 일생 동안 결혼도 하지않고 일평생 아버지 곁에서 그를 보필하였다. 유리엘은 아버지 사후에도 계속 집안 일을 돌보아 오면서 아버지의 한국귀환 만큼은 완강히 반대하였다. 1947년 미 군정장관 하지중장의 고문으로 한국에 나갔을 때도 그는 아버지를 따라 갔는데 그는 서박사의 수제자였고 서박사가 길러낸 이승만과 그의 심복들로부터 얼마나 노골적인 푸대접 을 받았는지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며 그러기에 서둘러 또다시 조국을 떠나야만 했던 사정을 잘 기억하였기에 아버지의 환국을 반대했던 것이다.

1961년 학생들의 봉기에 이승만이 떨어진 후 일반 시민들의 서박사 환국의 염원은 한층 더 열기가 뜨거워졌다. 그 염원이 점점 고조됨을 보고 서박사와 따님이 사시던 펜실바니아 미디어 시로 가서 아버지의 귀국을 반대한 결정을 재고할수 없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를 찾아갔다. 다시 한번 그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가 가까이 모시겠다는 의사를 재천명하였다. 서박사가 돌아가신 후 그의 유해는 필라델피아 교외의 첼튼 힐 묘소 안의 납골당에 모셔져 있었다. 그 곳은 전에는 오래된 필라델피아시의 교외였지만 그 도심지 지역이 황폐해짐에 따라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감히 접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험한 동네로 몰락해 있었다. 당시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던 장익태라는 집안 친구는 혼자서 우리에게는 말도 없이 사재를 들여 웨스트 라우릴 힐이라는 좋은 동네로 서박사를 이장했다. 그의 부인은 유리얼 따님을 수시로 찾아보고 한국음식을 대접하며 1984년 그녀가 타계하기까지 보살펴 주었다.

나는 장씨 가족과 함께 유리얼에게 이제는 서울에 민간정부도 세워지고 많은 국민들이 서박사의 환국을 염원하니 마음을 바꿀수 없느냐고 졸랐다. 나도 충분히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는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당신도 가고나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나라고 물었다. 그리고 서박사가 당신의 아버지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서박사는 근대한국의 아버지이기도 한 것 아니냐? 그보다 서박사 자신이 언젠가는 조국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지 않느냐 얘기하였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자기가 죽은 후에 **만일 일반 국민들이 진정으로 서 박사의 귀환을 원한다면**, 그러면 아버지를 모셔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었다. 그것이 그녀의 진정으로 원하는 바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메다아를 재차 방문하여 나에게 말 한것이 그의 진심인가를 재차 물었다. 그는 나

한테 말한 것을 반복하면서 재차 확인하였다. **보통 일반사람들이 원하고 또 정중하게 모신다면** 그러면 나는 그의 허락을 받을 것이다. 그 마지막 첨부사항이 오늘까지도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되었다.

때는 1994년, 서재필은 마침내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원래 계획은 서박사는 펜실바니아 미디어 시를 떠나 필라델피아를 거쳐 뉴욕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서울로 직행하기로 되어있었다. 그 시기에 한국은 또 한 명의 잊혀진 애국지사를 모셔가기로 결정하였다. 로스앤젤스의 전명운 의사로 마지막 판에 두분의 애국지사를 동시에 모시게 되어 두 분이 동행하도록 로스앤젤스를 거쳐가기로 일정이 변경되었다. 자동차 행렬로 미디어 시를 떠나 우리는 1919년에 제1차 한인연합대회가 열렸고 신생 대한민국의 초석이 다져진 리틀시어터에서 노제를 지내며 간단한 기념식을 가졌다. 그리고 뉴욕으로 향하였다. 뉴욕에서 로스앤젤스 구간은 유에스 에어웨이 비행기가 이용되었다. 나는 서 박사의 유해를 모신 상자를 하얀 띠로 가슴에 둘러매고 탑승을 하였다. 비행기에 올라가 보니 지정석은 보잉 737 비행기 맨 뒤 좌석, 그것도 뒤 끝에 마련된 변소 바로 앞자리였다. 지정석이 마지막 자리이고 바로 뒤 변소와 칸막이

서박사가 당신의 아버지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서박사는 근대 한국의 아버지이기도 한 것 아니냐? 그보다 서박사 자신이 언젠가는 조국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지 않느냐 얘기하였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자기가 죽은 후에 만일 일반 국민들이 진정으로 서박사의 귀환을 원한다면, 그러면 아버지를 모셔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었다.

통로에 내려놓았다. 바로 그 때 불난리가 난 것이다. 한국에서부터 그들이 존경하는 서박사를 조국으로 모시기 위하여 30여명의 환영인사가 동승하고 있었다. 그들 중 절반 이상은 공자가 가르친 사회법도를 엄중히 따르는 사람들인데 나의 경솔한 짓에 노발대발하였다. 어떻게 그 성스러운 유해를 함부로 땅에 내려놓는단 말인가? 어찌 그런 불경스러운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같이 온 환영단에는 세 명의 고위 정부관료가 동승하고 있었는데 서 박사의 생가가 있는 전라남도 보성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를 하기 위한 높은 판대기 때문에 뒤로 제켜지지도 않고 앞에 자리 사이의 좁은 공간에 유해를 모신 나로서는 가까스로 좌석에 비집고 억지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유해를 무릎 위에 놓고 서서 앉은 꼴이 되었다. 목을 위, 아래로 또는 좌, 우로 돌릴 수도 없었다. 이 딱한 사정에 처한 것을 본 승무원은 나 보고 머리 위 짐 칸이 나 앞자리 밑의 공간에 유해를 내려 놓으라고 일렀다. 나는 그 승무원에게 설사 머리 위나 앞자리 밑 공간에 충분한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모시고 있는 상자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 올려 놓을 수도 바닥에 내려놓을 수도 없다고 답하였다. 내가 순순히 자기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을 안 승무원은 기장을 호출했고 기장은 맨 뒤에 있는 내 자리까지 와서는 연방항공국 규정에 따라 비행기가 이륙할 동안은 누구도 아무런 물건도 무릎 위에 놓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기장은 제발 비행기가 공중에 뜰 때까지만 유해를 내려놓고 일단 뜬 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유해를 모실 수 있다고 사정을 하였다. 그러지 않으면 비행기는 뜨지 않을 것이고 나 때문에 나머지 여객을 묶어 놓을 수도 없어 하는 수 없이 나는 유해를 내 바로 옆

서박사의 정치이념을 연구하여 아메리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또 다른 국회의원, 그리고 서박사의 귀국행사를 총지휘하기 위해 서울에서 파견된 차관급의 보훈처 차장, 그리고 직원 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외에 스물 여 명의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의원들도 동행했는데 대개는 유교가 가르치는 법도를 지키며 특히 망자를 다루는 예의, 법도를 성실히 지키는 연로한 어른들이었다. 이 어른들이 돌아가신 조상을 어떻게 모시는지 전혀 배운것이 없는 한심하고 무식한 놈을 힐책하고 꾸짖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처럼 좌절감을 느끼고 창피했으며 동시에 화가 난 적이 없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어느 정도 고도에 도달했을 때 기장이 나에게 다시 와서는 나와 내가 모신 유해를 비행기 앞쪽으로 옮겨주었다. 모르기는 해도 서박사의 정치사상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회의원 이 기장에게 자기가 비용을 더 내더라도 서박사의 유해의 좌석을 급상시켜줄 것을 부탁했으리라. 일등칸으로 가보니 세명의 고급관리가 탄 자리 외에도 빈자리가 많았고 그 중 한자리에 유해를 모시고 그 옆에 내가 안질 수 있었다. 내 추측으로 기장이 수송되고 있는 이가 누구라는 것을 박사인 국회의원을 통해서 알아 내고는 그의 자제특권을 발휘하여 추가요금을 받지도 않고 나와 유해를 앞자리로 옮겨 주었기에 남은 여정을 편하게 마쳤다고 믿는다.

마침내 서박사는 서울의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서박사를 모국으로 모시면서 사용된 방식과 절차 등을 생각할 때에 내가 서박사의 따님 유리엘에게 엄숙하게 한 약속(한국 민초들이 **서박사의 귀국을 진정으로 원하고 또 정중하게 모신다는 전제 하에만**이라는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닌지 후회가 들었다. 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지만 서박사 당신은 예의를 좀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침내 조국으로 돌아오신 것을 기쁘게 여기셨으리라 믿음으로 위안을 얻고 싶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다.

나와 서박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나는 내 핏줄에 대해서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그가 이루어 놓은 많은 공적, 그 때문에 우리 가문이 받은 모든 피해를 불문하고 내 마음 속으로 는 그가 패트릭 헨리,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을 다 뭉쳐놓은 이보다도 훌륭하다고 믿는다. 단지 100년 넘게 너무 일찍 태어난 것 이외에...

As to how I feel about being linked to Seo Jai Pil? I cannot be more proud of my lineage. With all that he has accomplished, and notwithstanding all the tragedies our family had to go through, in my estimation, Seo Jai Pil was, and is, Patrick Henry, Benjamin Franklin and Thomas Jefferson all rolled into one. It's just that he was born 100 years too early. - 영문본 마지막 문단 발췌

* 편집자 주: 이 글은 필자가 1994년 서재필 박사님의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유해를 한국으로 모신 후, 영어권의 후손들에게 조상의 한분인 서박사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리기 위하여 영어로 쓴 글을 필자가 직접 우리말로 옮긴 글로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국 학교

이경애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한국학교 교장)

100년 전 '미국에서의 3.1운동'의 불씨가 된 제1차 한인회의 및 행진이 이곳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2019년 4월 13일(토)에 진행되어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한국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130여 명이 참여하여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 10시, 서재필을 주축으로 한 동포 지도자들이 조국에서 일어난 3.1운동의 뜻을 이어가고자 제1차 한인회의를 개최한 바로 그 장소, Play & Player(Little theater)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임마누엘 한국학교의 교사, 학생의 주도적인 참여가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임마누엘 한국학교의 이경애 담당자는 이날 행사의 개최사를 맡아 이날 행사의 역사적 의의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임마누엘 한국학교의 학생 20명이 무대에 올라 애국가, 미국국가, 삼일절 노래를 부르는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음악교사 한정혜씨가 삼일절 노래를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삼일절 노래를 외워서 부를 수 있는 학생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의 실정을 생각하면, 한국학교 학생들의 애국심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제1차 한인회의에서 작성되고 천명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순서에 임마누엘 한국학교의 학생 이재시, 김혜나, 임현아 학생이 선발되어 행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한 목소리로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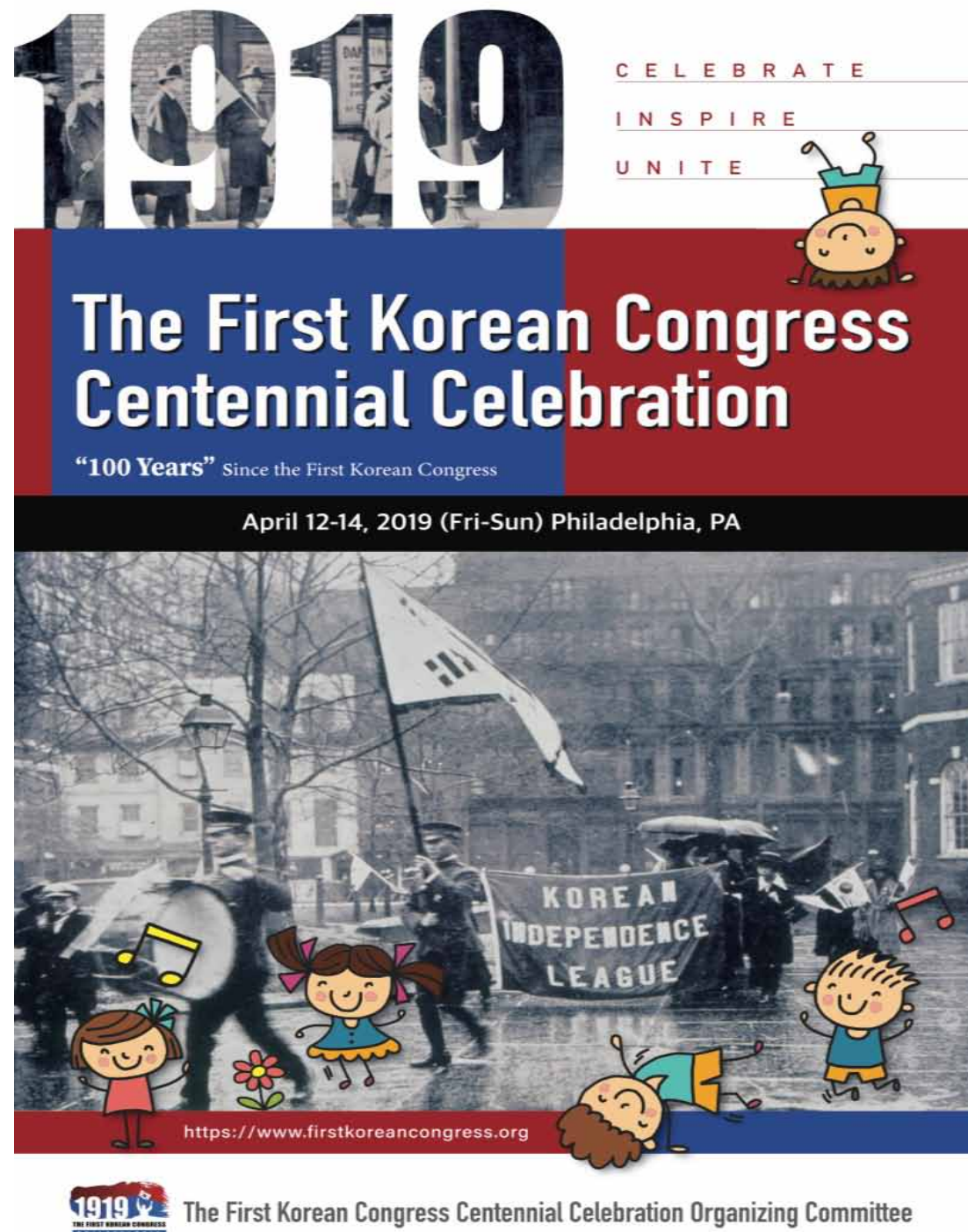
오전 11시부터는 100년 전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전세계에 널리 표명하고자 이곳에서 진행되었던 행진을 재현하는 시가 행진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임마누엘 한국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130여명이 참여하여 태극기와 미국 국기를 흔들며 미국 시민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날 임마누엘 한국학교의 적극적인 참여가 주목을 받아 한국학교의 교사 한상화씨가 미국 abc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한 장면이 뉴스에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행사가 더욱 임마누엘 한국학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날 행사에서 배부된 모든 포스터와 팸플렛의 디자인을 미술 교사 문주영씨와 이경애씨가 제작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임마누엘 한국학교의 가족들은 이날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임마누엘 한국학교는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8년 가을학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으로 구성된 우주반 학생들이 <독립기념관에서 펴낸 3.1운동 자유와 독립을 향한 외침>이라는 교재로 3.1운동에 대해 한 학기 동안 심도 있게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2일(토)에는 3교시 역사-문화 시간을 통해 3.1절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만세 삼창을 외치며 그날의 감동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읽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임마누엘 한국학교의 꾸준한 노력이 이번 행사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독립의 상징인 도시 필라델피아에서 조선의 독립을 외치던 100년 전 동포 지도자들을 기리는 행사에 참여한 것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라는 많은 한국학교 학생들에게 인생에서 다시 없을 소중한 역사 수업의 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펴낸 3.1운동 자유와 독립을 향한 외침>을 공부한 후에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3

지역사회 교육연구

- 한국학교 지역연계 교육방안 주현영
-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전망: 나의 소견 김해암
-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인 한국학교 운영방안 최규용

한국학교 지역연계 교육 방안

주 현 영

(Community Art For Everyone 대표)

1. 서론

지역은 대안 공간으로서 학교 교육에서 실행할 수 없었던 교육을 새로운 방법으로 탐색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교육에서 지역은 지리적 경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공통적인 유대와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교육적 변화가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최성희, 2018). 개인이 속한 삶의 일부인 지역사회를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실생활과 연결된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최돈민, 2013),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학습 공동체’가 되게 하여, 학교와 지역이 관계성을 맺게 되는 열린 학교 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다(장지은/이준희, 2019). 지역연계 교육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국학교에서 실제로 도입할 수 있는 지역연계 교육의 방안을 몇가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지역연계 교육

(1) 지역연계 학교 교육의 유형

지역 연계는 교과 교육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지역의 인적, 물적, 정보 자원을 수단으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전문가, 예술인, 지역단체와의 교류, 지역에서의 교육 활동 등은 제한된 학교 시설과 인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이은적 외, 2019). 최돈민(2013)은 학교와 지역연계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의 유형을 바탕으로 지역연계 학교 교육의 유형을 ‘학교지원형’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형’ 두가지로 나누었다.

1) 학교 지원형

학교지원형은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지원받아 학교 내에서 수업하는 교육이다. 지역 내의 기관, 지역에 거주하는 각분야 전문가들, 지역 봉사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

업 혹은 수업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학교지원형은 학생들에게 학교 밖의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학교 내 한정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2) 지역사회 자원 활용형

지역사회 자원 활용형은 학교 밖에 있는 지역의 사회,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이다. 지역축제, 공연, 시설 등을 활용하거나 지역 자체를 교보재로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해결책을 찾는 학생 주도적 교육이 있을 수 있다. 지역사회 자원 활용형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배운 것들을 지역으로 가지고 나가 주체적으로 실행해보는 경험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2) 미국 공립학교 지역연계 교육

미국 학교의 경우, 지역연계 교육이라는 개념이 한국에 비해 역사가 오래되었고, 지역연계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공립학교들이 지역과 연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한국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연계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공립학교들은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가 매우 끈끈하게 형성되어 있다. 지역 내 초, 중, 고등학교는 마치 피라미드처럼 연결되어 하나의 공통체로써 유대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Oakton High School 지역에는 여러 개의 middle school과 더 많은 elementary school들이 있을 것이다. 이 고등학교 관할 지역의 모든 학생들을 Oakton Pyramid Families 라고 칭하면서 고등학생들이 지역 내 초, 중학교 학생들을 초대하여 음악회도 열고, 운동경기도 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High school 피라미드 안에서 상급학교의 학생들이 하급학교에 봉사활동을 하고,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 하급학교 학생들이 함께 축하해 주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다.

미국의 학교들은 학부모들을 적극 참여시킨다. 학부모의 참여는 곧 지역의 전문가들과 지역 봉사자들의 활용이다. 학부모들을 학교로 초대하여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과학자인 학부모들이 과학 대회에서 멘토나 심사위원으로 자원봉사한다. PTA (Parent-Teacher Association)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과 외 대부분의 활동을 기획,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과 연계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사진 1] the Parent Involvement Project (PIP)

학교, 학부모, 커뮤니티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Preschool로 아이들에게 공동학습 커뮤니티의 형태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출처: <https://www.wested.org/project/parent-involvement/#>

미국 학계에서는 학교, 학부모, 커뮤니티가 협업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고, 실제로 PIP(the Parent

Involvement Project)를 실행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참여는 그들의 수입이나 배경과 관련 없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Anne T. Henderson(2002)는 연구를 통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아이들이 성적 향상, 사회성 향상, 행동 향상, 규칙적인 출석, 학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러 공공기관과 정부, 비영리 단체, 대학교에서 Outreach Program을 통해 지역 학교들과 연계한 교육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 내에 소재한 스미소니언 19개의 박물관은 DC 공립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현대미술관은 School Partnership을 통해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뉴욕 링컨센터의 경우, 자체적으로 Teaching Artist를 양성해 지역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로 파견하는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예술교육계에서 링컨센터의 티칭아티스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미국 박물관들은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밖에 지자체, 병원,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자체 프로그램 혹은, 파트너십으로 학교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교육계에서도 최근 지역연계 교육을 위한 연구와 시도가, 특히 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 ‘커뮤니티 스쿨’이라는 명칭으로 지역과 학교가 공동교육을 함으로써 근대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난 열린교육을 시도하고 있다(장지은 외, 2019).

3. 지역연계 교육 방안

(1) 지역 내 인적자원 활용

지역 내 인적자원을 가장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한국학교 학생들의 학부모에서 인적 자원을 찾는 것이다. 예술가, 과학자, 컴퓨터 공학자, 목수, 미용사, 수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학부모 중에 있을 것이고 그들은 기꺼이 봉사해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지역 내 인적자원들이다. 직업체험, 특별활동 등의 형태로 학부모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비교적 쉽고 빠르게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한국학교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인적자원을 찾는 것이다.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별수업을 제공하거나,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신 어르신을 모셔서 지역의 옛모습은 어땠는지,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를 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수업이 될 것이다. 인근에 박물관, 과학관, 역사관, 수족관 등의 기관이 있으면 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볼 수 있다.



[사진 2]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School Program
학교단위로 방문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https://naturalhistory.si.edu>

(2) 지역의 사회·문화 자원 활용

지역에는 다양한 차원의 발전을 통해 풍부한 사회적, 문화적 자산이 형성되어 있다(최돈민, 2013). 지역의 사회·문화 자원 활용은 수동적 참여형, 능동적 참여형, 학생 주도형,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한국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수동적 참여형은 학교에서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으로, 지역 기관을 방문하는 현장학습의 형태이다. 지역사회 안에 있는 기관과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으로써 박물관, 도서관, 은행, 공장,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유적지 등을 방문하여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자체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견학은 교사가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지역 연계는 많은 한국학교들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능동적 참여형은 수동적 참여형의 현장학습보다 좀 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연계의 방법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지역 축제나 이벤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카운티나 시에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이벤트들을 끊임없이 운영한다. 학생들이 이벤트 간이무대에서 공연을 한다거나 축제 부스에서 전시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이벤트에 참여해 보는 것은 그동안 학생들이 한국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지역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홍보하는 계기가 되며,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동기부여를 갖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카운티나 시 웹사이트, 이벤트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벤트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여 참여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지역 축제에는 아마추어들이 설 수 있는 무대들이 매우 많다. 저자는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들과 일하면서 이벤트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해줄 단체들을 애타게 찾는 모습을 흔하게 보아왔다.



[사진 3] 지역축제에 참여한 학생들
Taste of Annandale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이다. 축제 중에 설치된 간이무대에서 학교에서 배우고 연습한 것들을 선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축제들은 전문 공연가 뿐 아니라 아마추어들도 무대에 설 수 있다. (좌: Annandale High School Orchestra, 우: La Decana) 출처: <https://tasteofannandale.com/entertainment/>

마지막으로 학생 주도형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을과 학교가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학생들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샵이나 수업 형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지역을 관찰하고 탐색하고 조사하는 것이 첫번째 단계이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예를 들어, 길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거나 버스정류장이 아름답지 않다는 등의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모색하고 해결책을 만든다. 그리고 그 해결책에 따라 지역에 나가 직접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다.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공공장소에서 캠페인을 하는 등으로 실행할 수 있다.

다음 두개의 교안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워크샵 교안으로, 한국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안들이다. 워크샵을 통해 학생들이 동네를 새롭게 인식하고 관찰하여 동네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 까지 진행된다. 교안은 저자가 수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연계 워크샵들 중 일부이다. 프로그램은 학교 상황과 대상에 따라 조절하고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안 1. 워크샵 첫째 날 - 우리동네 오감으로 관찰하기					
목표	오감을 활용한 지역 관찰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익숙했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지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본다.				
대상	초등학생	시간	120분		
준비물	활동지, 펜, 전지, 드로잉 재료 (마카, 색연필, 싸인펜 등)				
구분	활동내용			시간	교보재
도입	수업 내용, 목표 설명 "우리가 사는 동네 이름이 뭐예요? 우리 동네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올라요? 오늘은 우리동네를 새롭게 바라보고 관찰하는 시간을 갖을 거예요."			5분	
전개	감각 인지하기 -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다섯 가지 감각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감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시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귀로 듣는 감각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10분	활동지 펜
	오감각으로 동네 관찰하기 - 조별로 활동지를 갖고 동네를 걸어 다니면서 활동지에 적힌 질문 내용대로 동네를 관찰하고 답을 적는다. - 질문내용: 1. 우리동네 색깔은 무슨 색 입니까? 2. 우리동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3. 우리동네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4. 우리동네의 맛은 무슨 맛인가요? (매운맛,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등) 5. 우리동네의 촉감은 무엇인가요? (부드럽다, 딱딱하다, 차갑다 등)			30분	
	조별 발표 - 교실로 돌아와서 작성한 활동지를 토대로 동네를 관찰한 내용을 조별로 발표한다. 이때 교사는 더 폭넓고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한다. “왜 빨간색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밤에도 같은 색깔이에요? 우리동네가 쓴맛이라고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만약 단맛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5분	
	우리동네 그림 그리기 - 조별로 활동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동네 그림을 그린다. 이때 색깔로만 표현해도 되고, 김치찌개, 아기돼지 등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려도 된다. 동네 모습을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관찰했던 느낌을 표현하게 한다. 그림은 큰 종이에 조원들이 모두 협동하여 그릴 수 있도록 한다. - 완성된 그림을 조별로 발표한다.			40분	
마무리	수업의 마무리, 다음 차시 예고 - 교사는 오늘의 활동을 종합하여 요약해주고, 학생들이 잘한 점에 대해 칭찬해준다. 두번째 워크샵에 대한 예고를 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동네를 관찰했어요. 다음시간에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동네를 디자인해 볼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동네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은 없나 잘 관찰하고 살펴봐주세요.”			10분	

교안 2. 워크샵 둘째 날 - 우리가 꿈꾸는 동네			
목표	첫째 날 워크샵에 이어 학생들이 꿈꾸는 우리동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찾아보고 원하는 동네로 바꾸기 위한 계획을 세워본다.		
대상	초등학생		
시간	120분		
준비물	활동지, 펜, 혼합재료(색종이, 끈, 박스, 종이, 색연필, 재활용품, 찰흙 등)		
구분	활동내용	시간	교보재
도입	● 수업 내용, 목표 설명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동네를 오감으로 직접 관찰 했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원하는 동네를 생각해 보고 만들어 볼 거예요.”	5분	
전개	● 우리가 원하는 동네 꿈꾸기 - 조별로 활동지 질문에 답을 적게 한다. - 질문내용 1. 우리가 원하는 동네의 색깔은 무슨 색 입니까? 2. 우리가 원하는 동네의 소리는 어떤 소리 인가요? 3. 우리가 원하는 동네의 냄새는 어떤 냄새 인가요? 4. 우리가 원하는 동네의 맛은 무슨 맛입니까? 5. 우리가 원하는 동네의 촉감은 무엇입니까?	15분	활동지 펜
	- 활동지 결과를 지난 시간에 동네를 직접 관찰하여 적은 활동지와 비교하면서 조별로 발표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보다 깊고 넓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 유도한다. “지난 시간에 관찰했던 동네의 냄새는 매연 냄새였는데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냄새는 꽃 냄새 네요! 동네에서 꽃 냄새가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5분	
	● 우리가 꿈꾸는 동네 만들기 - 조별로 활동지 내용을 토대로 동네를 모형으로 만들어본다. - 여러가지 혼합재료(박스, 끈, 색종이, 재활용품 등)를 이용하여 건물, 길, 집, 공원 등을 만들 수 있게 한다. - 완성된 동네 모형을 조별로 발표하여 다른 조들과 공유한다.	40분	혼합재료
	● 우리동네 변화시키기 - 학생들이 원하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조별로 동네 변화시키기 활동을 계획해본다. (캠페인, 동네 맛집 홍보하기, 청소하기, 꽃 심기 등)	10분 20분	활동지
	“우리가 우리동네를 위해서 쉽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다든지, 각자 집 앞에 테커레이션을 한다든지, 캠페인 이벤트 등을 할 수 있어요.” -활동에 대한 계획을 조별로 발표한다.	10분	
	● 수업의 마무리, 추후 활동 예고 - 교사는 오늘의 활동을 종합하여 요약해주고, 학생들이 잘한 점에 대해 칭찬해준다. - 아이들이 계획한 활동을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	5분	



[사진 4] 어린이 지역연계 워크샵
좌. 어린이들이 워싱턴 DC 지역 한인타운인 Annandale을 직접 걸어 다니면서 지역을 관찰하고 있다.
우. 한인타운을 관찰한 후 동네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학생 주도형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지역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체험을 직접 해 봄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의 주체자이자 리더로 성장시키는 교육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행동’을 실천하려면 지역사회와의 보다 넓고 깊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3) 한인 단체, 타 민족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

마지막으로 지역연계 방안으로 한인 단체 및 타 민족 학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두개 이상의 단체가 연계, 협력, 제휴를 하는 개념은 제한적이거나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개념은 보다 시스템적이고 규모가 크며, 지속성을 가지는 개념이다(최돈민, 2013). 이것은 물리적인 범위의 지역 뿐만 아니라 공동체 영역으로써의 지역 커뮤니티 연계를 의도하고 있다.

최돈민(2013)은 지역사회와 학교 네트워크 형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네트워크의 방법을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첫째, 인적자원의 교류, 둘째, 사업 네트워크, 셋째, 정보 교류의 네트워크, 넷째, 물적 교류인 공간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부분이 한인이고 미국 사회 안에서 한인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 그렇다면 먼저 한인 커뮤니티를 이해하고 한인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역 한인회, 각종 한인 협회(태권도협회, 예술인 협회, 과학자 협회 등), 대학 한인 학생회, 한인 언론사 등의 단체와 네트워크를 할 수 있고, 한인 단체들과 위에 언급한 네 가지 네트워크 방법을 적용하여 협업할 수 있다.

미국 내에는 한국학교 뿐만 아니라 중국학교, 일본학교, 프랑스 학교, 인도학교, 무슬림 학교 등

타 민족이 운영하는 Saturday School들이 많이 있다. 한인단체와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이후에는 타 민족 Saturday School들과 네트워크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인 공동체 밖에 있는 타 공동체들과의 소통은 한국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진정한 지역연계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다.

4. 결론

학교가 지역과 연계한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 사회와 교류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한인 민족의 언어와 문화, 역사 교육을 제공하는 한국학교는 한인 아이들의 정체성 교육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한국학교에서 지역 연계를 시도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한인이라는 범위 내에서 우리끼리의 교육과 활동은 자칫 갇힌 교육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을 뛰어넘어 한국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외부와 연계한다는 것은 미국 사회와 소통하는 교육을 시도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국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한인 아이들은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들이다. 한인 아이들이 마음 이 건강한 한인으로서, 또 건강한 시민 의식을 갖춘 미국인으로서 미국사회에 잘 섞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모든 한인 어른들은 바랄 것이다. 어떤 아이들은 미국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할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리더들을 잘 따르고 보조하는 서포터로 성장할 것이다.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사회에서 맡게 될 역할은 모두 다르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은 모든 아이들은 미국사회에서 아웃사이더가 아닌 주체자로 살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학교가 지역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학습공동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첫 발에 아낌없이 응원하고 싶다.

참고문헌

- 이은적 외,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실천 방안」, 조형교육, 2019
 장지은 외, 「일본의 지역연계기반의 커뮤니티스쿨의 특징」, 비교교육연구, 2019
 최돈민,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교육종합연구, 2013
 최성희, 「학교 미술교육과 지역연계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미술과 교육, 2018
 Anne T. Henderson, 「The impact of school, family, and community connections on student achievement」, National center for family & community connections with schools, 2002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전망: 나의 소견

김해암, Hae A. Kim, M.D.

Associate Professor of Psychiatry,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 문화정신의학 전공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of Cornell University

목차

1. 역사적 발자취와 한국어 교육의 현황
2. 한국어 교육의 목적의식
3. 10년후의 한국어 교육의 전망
4. 교사의 수련과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5. 영어 실력과 한국어 실력
6. 결론

국문 초록

들어 가는 말로써 한국의 이민 역사상 전례가 없는 눈부신 한국어 교육이 미국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미국에 사는 한국계 시민을 비롯해 한국인 모두가 놀라는 바 크다고 본다. 해방 후에 1903년에 하와이로 정식이민으로 미국에 도착한 3,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시작한 한국어와 문화사업을 함으로써 향수를 달래고 동포애를 진작시킨 공로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나라를 잃은 슬픔에서 오는 감성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한글 교육이 시작되었다면 20세기 대거 이민이 시작된 1960-1970년대에 미국 문화에 적응해 가는 고달픈 이민생활을 부추겨 주는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은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아야겠다.

그렇다면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묻는다면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퍼져 사는 한국인의 긍지와 자존심 그리고 정체성을 길러주는 돌도 없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서슴치 않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상 반세기를 바라보는 한국어 교육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다고 보는 바 없지 않은데, 어떻게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늘의 전자 시대를 맞아 성급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한다.

미국의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 가려면 각 민족과 그들의 문화를 미국사회에 전달하고 소개함에 끝이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 미국의 국력과 문화를 보강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연방정부 뿐 아니라 각 주며 대도시 정부가 소수민족의 언어, 예술 뿐 아니라 문화성을 환영하는 교육 정책을 쓰고 있음은 대견스럽고도 고마운 바 있다. 그러면 왜 미국이 앵글로 문화권을 300-400년을 지켜오다가 이렇듯 획기적 방향 전환을 20세기 후반에 도입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사회는 반 이민 국가 형성에 치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천대를 받거나 열등 시민 대우를 받게 되는 날이 무섭게 다가 올지도 모른다는 명제를 우리는 감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어 교육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시작할 때라고 본다. 그렇게 한다면 한글을 익히고 우리의 고유 문화만을 후세들에게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국문화에 접선 함으로써 미국문화를 다채롭게 할 수 있나 등을 고려하며 한국어를 공부해야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또 하나 우리가 고려 해야 할 것은 다문화 다민족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 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1990년에 뉴욕 부록크린에서 시작한 한국인 청과상에 대한 흑인들의 보이콧 시위에 이어, 1992년에 LA에서 일어난 폭동에서 63명이 죽고 수천명이 부상을 입은 4-29 흑인폭동이 증명하듯이 소수 민족간의 갈등과 경쟁이 치열해져 백인 사회가 통솔을 못하거나 백인이 주로 저지르는 총격사건들이 언제 소수민족에게 엄습해 올지 모르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수적으로 양적으로 작은 한국인이 우수한 소수민족으로 미국 사회에 공헌을 하려면 한국인의 기독교회와 한국어 학교가 담당해야 할 임무가 아닐까? 일부 인류학자들은 흑인 폭동은 계속하여 일어날 것이므로 법적인 인권 보장보다 다 민족, 다 문화사회를 건설해야 흑백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민 정책이 바뀌었다. 그 결과는 오늘의 현실의 양상을 가져왔다. 한국어 교육은 한글 뿐 아니라, 미국과 우리나라 이웃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한국의 문화를 흡수하고 발전 시키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미국이라는 다문화 사회에 잘 적응하고 공헌하는 길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장래를 직시 해야한다고 보고 싶다. 이런 문제를 화두로 하여 나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소견을 펴내 보려고 한다.

1. 역사적 발자취와 한국어 교육의 현황

미국에 있는 한국어 학교 수준은 상당히 높이 평가되어 왔다. 왜냐하면 정부지원이 원활하게 지속되는 지난 10-20년간 많은 교사들, 무제한에 가까운 교재와 자료의 조달이 잘 될 뿐 아니라 교사들의 시간 당 급료가 한국의 교원들과 동일한 대우를 함에 있어 전례 없는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한국어 교육은 역사상 어느때 보다도 풍부한 대우를 받는다 해도 과원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공정하고 철저한 지원은 좋으나 미국이라는 지역 사회의 특증을 살려내는 교육정책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 뿐 아니라 북미대륙의 교육제도와 지역에 적응하는 한국어 교육정책이나 방안은 미국 내 각 지역 뿐 아니라 미대륙에 있어서의 교육환경 내지는 다문화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문제를 다루어야 할 듯하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 예로 뉴욕 주변에 있는 수백 개의 한국어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의 위치를 가능하려면 연구자 지원을 해야 할 텐데 재원이 없는 실정이다. 다문화사회에서 남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유태인들 학교들의 운영 상황, 구라파 국가들의 미국내에서의 자국어 교육, 또 아세아 제국의 자녀 교육의 현황, 일본, 중국, 인도, 필리핀 등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나를 살펴보고 지역사회나 도시교육청의 혜택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유태인 이민자들은 교묘하게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비용까지 남한정부가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 시 된다.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나 이민자들이 힘을 모아 이런 연구를 하면 미국 내 한국인의 정치적 힘을 모으는 데도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니 지역사회 한인회에 관심을 돌리도록 홍보해야 할 듯하다. 우리가 필요 한 것은 교원 뿐 아니라 연구원이 절대로 필요함을 느끼는 때가 많다.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 독창적인 연구와 미국정부의 혜택을 찾아 갖느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태인, 흑인들은 정부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세아인 보다 정부 혜택의 정보를 빨리 흡수하고 또 쟁취도 하므로 다른 소수민족에게 나누어 주려 않는 경향이 있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것은 사회 보장국, 운전면허 갱신 때 등에서만 느끼는 현상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2,3세 교육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한글 쓰기나 철자법 외기도 좋으나 실생활 환경에서 제 몫을 찾고 자기주장을 조리 있게 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겠는데, 그런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하는게 문제라고 본다. 나는 당연히 한국어 학교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나의 가족의 경우 2년차가 있는 딸 둘은 허 병열 선생이 시작한 Kennedy High School in Bronx 에 7살과 5살 때 시작하였다. 음악, 발레이 등과 함께 한국어와 한국 문화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한글을 깨치고 제 이름도 한글로 쓸 수 있는 상태와 간단한 대화를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별로 찾기 힘든 혜택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50대의 그들은 말은 거의 다 잊어 버렸어도 문화적 가치관과 소양은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의 정체성 확립에 공헌이 컸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셋째인 우리 아들은 한글학교에 안 갔으나 대학 2년차에 한국어를 선택하여 A 를 받고 기뻐하던 기억이 새롭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는 그들이 한국말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한국이나 동양의 작품을 읽을 수 있는 소양이 길러졌었으면 하는 바램 같은 것이 있다. 그러나 아깝게도 그들이 즐겨 읽을 수 있는 동양 작품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뜻에서 한국어 교육의 장래는 작품을 읽으며 감상 할 수 있는데 까지 가는 한국어 교육을 하여서 작품을 읽을 줄 알 뿐 아니라 창작을 함으로써 노벨 문학상이 미국에 있는 한국인에게서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2. 한국어 교육의 목적의식

한국이라는 지역정치권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세계 많은 곳에 정착하여 사는 한국인의 모국어의 필요성은 정체성의 정립과 감성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필수 불가결한 심리적으로 또 지능적인

만족도를 높여 주는 유일한 도구인 것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바다. 그러므로 한국어 습득은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유동적인 지역사회적응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 의식이 합당하다면 단일 언어와 단일 문화권에서의 언어 교육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으나 미국과 같이 다문화 다민족이 얹혀 사는 고장에서는 그 방법론이 당연히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처지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자기나라 말과 풍속을 자라나는 2세 3세에게 전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태도이다. 사실상 한국인의 한국어 교육은 영어와 한국어에 국한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반세기 이상을 이끌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교재와 내용을 바꾸어야 하나? 별 수 없이 점차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하겠는데 시작은 이제부터라도 착실하게 이루어 나가야겠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수 불가결 하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재단이 대기업, 교회,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져 보람 있는 공헌을 해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교국에서 한국에 교육기관, 병원 등을 해 놓는 것에 비하면 아직 미비하다고 본다. 현시점에서 한국어 교육재단을 세운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지만 우리나라 정부를 잘 설득하면 현지 모금운동에 매칭하는 펀드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런 운동은 한국경제가 호전하는 현재에 가능할 수 있으니 빨리할수록 유리하다고 본다. 이런 재단을 운영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어 학교 운영 경험을 살려 충실하고 보람 있는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며 운영에 대한 사전 토의가 많이 진행되어야 겠다. 학부모와 한국 중소기업에 호소 하여 자금 연출을 하는 자원봉사를 동원해야 겠다. 많은 중노인을 동원하여 목적의식을 선양하는 방법도 있을 법하다.

3. 십년 후 미국내의 한국어 교육의 전망

세대는 바뀌고 있다. 현 세대는 5대차 세대로 Zers 세대라 부른다. Traditionalist 로 시작하여, 해방둥이로 전 세대와 전혀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진, Baby boomers 라 하며 1940-50 탄생, 그 다음은 Generation Xers 는 1960-80 개로 소위 말하는 히피들, 부모들을 first name 로 부르는 패들이다. millennials 는 1980-1995 로 희망에 부풀어 올은 세대, 이직 디지털 혁명에 들어가기 전 세대로 현시점에서 노동인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Generation Zers 는 1996 서 부터 2020년대의 젊은 세대로 세상을 하나의 game 로 보며,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농땡이를 치는 10-20대 젊은이들을 가르친다. 우리 한국인 후세들도 어쩔 수 없이 미국사회의 젊은이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고 그들이 쓰는 영어를 써야 말이 통하게 되니 선생님들이 특히 알아두어야 할 언어 들임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 그러면 10년후 2030년대에 들어서면 어떤 사회가 펼쳐질 것인가? 아마도 인공지능을 가진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외국어는 인공지능이 그 자리에서 번역되어 나오니 한가지 언어만 잘 통설하면 문제가 없는 사회로 변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Zers 세대의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우려 할 것인가? 의문스럽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져 명문대학 뿐 아니라 중소 미국대학에 한국어 학과가 세워지고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여 학위를 한 후에 직장을 구하려면 어렵고 힘들어 대학원에서 학위를 할 때 직장이 많은 중국학이나 일본학을 부전공으로 하거나 동양학을 전공하고 한국학을 부전공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은 수십년 들어 온 이야기이다. 그러면 이런 대학원 학생들의 소원을 풀어주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며 그런 가능성을 조성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우리가 운영하는 한국어 학교에도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겠다. 다음사항에 좀 더 다루어 보기로 하자.

4. 교사 수련과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한국에서 한국어 교사 면허가 없더라도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거나 문필가인 경우 해외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교사 면허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대우 차이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자원봉사가 아니고 풀타임으로 일 할 수 있는 직장은 일부 고등학교나 대학의 경우 외에는 미국 내에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어학과를 많이 만들려면 한국의 문화수준이 높아져야 하겠고, 그러자면 국력이 성장하고 문화가 발전해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어 교사들이 계속 공부하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우를 하여 주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나는 본다. 왜냐하면 시간당 교사 봉급은 주어도 수업준비 비용은 계산되지 않는 현실에서 한국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특수한 대우는 어떤 형태로나 형성 되어야 한국학의 장래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한국어 문단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반세기 이상 미국에 있지만 성숙하고 성공적인 작가가 배출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 해 본다면, 역시 한국인은 아직도 서로 신뢰하고 정보를 나누며 상부상조 하는 기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 그런 기풍과 협동 정신은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비롯 되어야 하겠다는 소망을 나는 가져본다. 또 한가지 내가 기대해 보는 것은 남한의 한국어 뿐 아니라 북한의 조선어의 연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나는 본다. 대 뉴욕 지역에 유엔이 있고 북한 대표부가 건재한 지역에서 북한 연구가 없다면 학문 하는 교육기관이라 자처할 수 없지 않을까? 콜롬비아 대학도서관에는 북한의 책 잡지 뿐 아니라 일간지까지, 시일은 늦으나,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학이나 북한학(조선학) 이 왜 공존해야 하나? 학문은 정치를 초월하고 진리와 사상을 길러 내야 합니다. 남북한이 서로 배우고 창작을 해 내어야 통일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해 본다. 이런 여유를 가지고 연구나 작품활동을 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독자적인 재단의 필요성을 느끼는 바입니다. 모금운동을 비롯해 사업체와 한인단체가 참여하는 재단을 만들어 앞으로 나타날 노벨 문학상을 길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의 동화책,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동화들이 구연 되고 북한의 문예 활동을 소개하며 비판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축 할 수 있어야 다문화 사회에 사는 참된 미국시민이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5. 영어 실력과 한국어 실력의 동일성

왜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흔히 부모와 자식간에 들려오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자기가 배우고 자라난 언어를 자식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욕심과 자식들은 학교에서 쓰지 못하는 제 2, 제3의 외국어를 왜 해야 되는가 하고 반발을 한다. 부모들은 흔히 말하기를 뇌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bilingual education** 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직장 얻기가 쉬우니 한글학교에 가자고 끝다 시피 하여 학교에 데리고 온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한글을 배우면 머리가 좋아지고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준다. 정신 신경 과학적으로 보면 두 말 할 것 없이 옳은 말이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애들에게 일상생활에 쓰지 못하는 글을 왜 배우느냐는데 대한 정확한 설명은 하기 힘들다고 하여 억지로 애들을 공부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고 본다.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외국어를 배우는 재미를 길러 줄 수 있을 가 하는 것은 좀 더 연구할 과제라고 나는 본다. 우리 임상 경험으로 보면 확실히 다문화 다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정서적 폭이 넓고 인식의 세계가 발전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예로 구라파에서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을 정신치료를 해 보면 그들의 인간성과 차별대우에 대한 감수성, 정서적 능력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는 욕구가 강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우 현실적인 적응도가 단일 언어를 구사하며 하는 사람들보다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비롯 해 여러 나라 말을 배우면 사회적으로 성공 할 확율이 높다고 하는 것에 반대 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듯하다.

한편 한국 말을 배운다고 영어를 잘 못한다든지, 영어를 잘하면 한국 말도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언어를 익히는데 재질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학이나, 예술에 타고 난 재능이 있는 어린이들이 있음을 안다. 그렇다고 그런 애들이 연수함이 없이 저절로 성공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의 재능을 잘 주시 하면서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런 교육을 주말을 이용 한 한국어 학교에서는 강조하며 미국정규학교의 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교사들에 대한 대우 개선을 주장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연구가 나오고 문집을 교재용으로 쓸 수 있는데 까지 가야하지 않나 하고 생각해 본다. 한국어를 영어로 가르치는 **English as the second language teacher** 선생님들의 책이 나오고 번역 역작이 나와야 학생들이 열광하게 되지 않을 가 생각해 본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Bilingual education** 에 중점을 두고 한글을 잘 하면 영어도 잘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두 언어를 통달하는 일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6. 결론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켜 보아온 학 부모로써 또 영어 교육을 회화뿐 아니라, 글 쓰는데 노력을 기우려 본 경험에서 또 일본어를 소학교에서 배워서 읽고 쓰는 3개 언어에 능통한 경험에서 느끼는 소감을 적어 보았다. **Wall Street Journal** 이나, **New York Times**를 사전을 들추지 않고 읽으면 얼마나 편할가 생각 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또 영화나 연극을 영어로 볼 때 자막을 안보고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 가라고 푸념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내가 정말로 능통한 언어의 혜

택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 자문해 본다. 2-3 언어를 통달하는데 수십년을 보낸 우리 1 세들의 경험을 후세들은 잘 모르리라, 그러나 우리는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후예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써서 2중, 3중 언어를 빠른 시일에 통달하여 창의력을 높이고 행복한 인생의 꿈을 실현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온갖 힘을 다 하여 후세들의 두뇌 교육에 정성을 쏟아야 하겠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한국어를 통한 한국어 작품이 많이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날이 나의 생전에 있기를 갈구하는 마음 간절하다.

English Abstract

The objective of Korean language school in United States is to enhance the socio-cultural ideal of multi-racial society to develop diverse culture building a universal democratic value system and the Korean society holds a part of that role, multi-culturalism. Federal, state and municipal government not only encourage multi-lingual education but also eager for funding such enterprises because such endeavor make the America strong and eventually make our culture more egalitarian and our society fair and prosperous.

Korean American immigrant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in 1970-1980es which brought many college-educated intellectuals came to US with many talents making early claims of model Asian immigrants. These cultural phenomena increased the incentiv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US. However, the demand of Korean cultural study jobs on graduate school level has not been reached to other Asian study group such as Chinese and Japanese studies.

Therefore, the goal of Korean language school is to develop unique Korean American cultural foothold by means of artistic and industrial contribution. If Korean language school can fulfill such contribution public funding can be materialized in the futur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generous to support some Korean Heritage school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licensed Korean teachers to find a job and educate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of Korean American children which has been enormously foresighted and wise in making the educational policy. My personal view of the outlook of Korean governmental support will not last long but also diminish the zeal of self-sustenance and creative voluntary spiri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 propose for setting up the financial foundation which eventually fund such educational programs independently. Moreover, current system does not fund the teachers for the time compensation of the class prep work and research, etc.

Secondly, Korean language schools can be the center of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education going along public education system in America doing the enhancing and complementary role for such endeavor. The future funding source may be found in the US with private Korean study enterprises and cultural study for the world.

Lastly, the emphasis for bilingual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neuro-scientific effort put to work for the multi-cultural development may hold the key for the solution of overall educational goals of fairness and equality in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인 한국학교 운영방안

최규용

메릴랜드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전) 성 김 안드레아 한국학교 교장

20세기 초 하와이 이민자들에 의해 미국 땅에 한글학교가 처음 세워진 이래 현재 미국의 각지에는 수많은 한국학교가 설립되어 한인 2세들의 한국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교육을 맡아오고 있다. 미국 내 한국학교의 연륜이 길어진 만큼 미국 사회와 한인사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의 정서와 한국학교에 대한 기대도 변화하고 있어 한국학교에서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대에 맞는 높은 수준의 한국학교 교육을 지향(指向)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public school인 정규 미국학교와 주말 한국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이중성(二重性)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학교의 운영자와 교사들은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학생들이 주말 한국학교에 다니는 시간이 그들에게 유익하고 장차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혜롭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변화하는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인 한국학교의 운영을 통하여 긍정적인 교육, 문화적 동력으로 한국학교에서의 교육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한국학교의 위상과 권위

대부분 주말에 운영되는 미국 내 한국학교의 공통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한국학교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이중적 시각과 태도 또는 행동을 꼽을 수 있다. 정규 학교는 모든 어린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다녀야 하는 학교이며 명확하고 엄격한 규율 밑에서 잘 짜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모든 학생은 학교의 방침을 충실히 따를 것이 요구되며 그러한 방침에 어긋나는 경우 상응하는 결과가 예외 없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과 한국인 학부모들은 정규학교에 대한 존중심이 높고 학교의 방침에 잘 따르려고 노력한다.

이에 반하여 주말 한국학교는 학부모의 의지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다 보니 정규학교 수준의 학사 (Academic programs)와 학교의 규칙에 대한 명확함과 엄격성이 부족한 편이고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한국학교에 대한 존중(respect)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한국학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일부 학부모는 어느 때라도 자녀가 한국학교를 그만 다니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매 학기 또는 매 학년 등록하는 학생들의 현황이 달라지고 초등-중등-고등 학교 과정의 한국학교 수업을 마치는 학생들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학부모는 ‘한국학교의 규칙은 엄격하지 않으며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한국학교는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이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다’라는 등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생 자녀와 학부모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고 주위의 다른 학생, 학부모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한국학교 교사와 운영자에게 상처를 주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 심지어 견디다 못해 학교를 그만두는 교사도 있다.

따라서 한국학교의 운영자들은 스스로 한국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정규학교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하여 한국학교의 운영도 명확하고 엄격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서(written document)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교사, 학부모가 공유하여 서로 간의 기대치(expectation)가 무엇인지 이해하여야 한다. 매 학기 초에 교장-학부모 간담회 또는 세미나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학교의 운영 방침과 교칙 등을 공지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교장, 교사, 운영 임원들 역시 프로정신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담임 교사와 보조 교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한국학교에 대한 존중(respect)의 가장 기초적인 것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된 한국학교의 경우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한국학교가 그 설립 목표를 공정하고 높은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과 지침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한국학교의 운영에 관계된 기관(예: 교회)이나 이사회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한인 2세의 뿌리 교육이라는 높은 이상의 특권 (privilege)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일선 교사와 교장 등 학교 운영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한국학교를 보호하며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2) 한글 학교 학부모의 정규학교 학사 event 또는 다른 activity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한국학교에서 우수한 교육 성과를 이루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학부모의 정성과 열성이 그 원동력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자세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제는 한국학교의 학부모 중에 한인 2세들도 꽤 많이 있지만 한국에서 미국에 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학부모들도 여전히 많다. 지금의 학부모들에게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는 한국학교 뿐만 아니라 미국 학교의 행사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 학년이 시작되면 9월 중에 Back-to-School-Night가 열려서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저녁에 방문하여 담임 교사를 만나기도 하고 자녀들을 가르칠 과목의 교사들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계획인지에 대해서 듣

고 궁금한 것은 물어볼 수도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오래되기는 했지만, 필자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back-to-school-night에 가보면 한국인 학부모는 보기 힘들었고 동양인 중에는 중국인 학부모가 많았으며 미국인 학부모들은 아주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다.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한국학교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은 이러한 중요한 교육 행사에 꼭 참여하여 학교 교육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 학교들에서 International Culture Day 행사를 매년 갖는데 이럴 때 한국학교에서 배운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다른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한국학교에서 잘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학교에서 배운 한국 문화유산을 영어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유념하여 가르쳐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로 한국학교에서 한국의 문화, 역사를 배우는 것도 그들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미국 땅에서 살아갈 그들에게 영어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줄 수 있을 정도로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국에서의 한국학교가 말아야 할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된다. 이밖에 미국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 학부모회 (PTA) 에도 한국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특히 자녀를 둔 한국학교 교사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3) 한국학교 다니는 것에 대한 가치 (Value)를 각 한국학교의 교장, 교사가 만들어내야 한다.

한국학교에서는 한국어 이외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충실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거의 피상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주입식 교육은 과감히 지양하여야 한다. 가령 한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에 대하여 가르칠 때 항상 열거되는 금속활자, 의궤(儀軌), 기록 문화 (예: 조선왕조실록), 거북선, 도자기, 고유의 건축문화 등에 대하여 무조건 우수하고 창의적이라고 가르치는 대신 그 시대에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역사, 문화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문화가 세계 속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또한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러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이 영어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한국학교 실정에 맞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고 교사들도 더욱 연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 방침은 학생들이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자신감 있게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데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역사와 문화 교육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어른들 위주의 시각에서 또는 한국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준으로 가르치지 않도록 교사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특히 피상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문화 유산의 배경과 과학 기술적 측면도 연구하여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한국에 대한 긍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가 100년 이상이 된 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근대와 현대의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를 한국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어쩔 수 없이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핸디캡이 아니라 당당한 자신감으로 여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미국내 한국학교의 위대한 사명이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2세 학생들이 이민사를 배워 자신들의 뿌

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곳은 한국학교뿐임을 인식하여 한국학교에서는 이민 역사를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다. K-POP 문화는 재미있고 학생들이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한국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문화를 한국학교 교사들과 연구자들은 끊임없이 발굴하여 교재화하고 창의적으로 가르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NAKS차원에서 이러한 교재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요청된다.

(4) 한글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한국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은 교육 내용과 함께 운영자들과 지원자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쾌적하고 현대적인 시설의 미국 정규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설과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말 한국학교에서 공부하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에는 한국학교에 대한 존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힘들다. 환경은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학생들이 허름한 시설의 한국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면 어린 마음에도 자신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초현대식의 교실이나 교육환경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기본적으로 깨끗한 교실, 깨끗한 책상과 의자, 깨끗한 칠판, 현대적인 시청각 기기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한국학교의 운영자들과 교사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미국 학교의 행사에 항상 참여하여 그 학교의 교육환경을 자세히 관찰하고 한국학교도 미국 학교의 수준에 걸맞은 정도의 시설과 교육환경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학교가 설치된 교회나 기관의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 한인사회와 한국 정부(재외동포재단)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포사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포사회에서 수많은 지역 한국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해 그 어떠한 지원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각자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한국학교의 발전에 신경을 쓸 처지가 없는 점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좀더 성숙한 동포사회로서 후세의 교육에 모든 동포사회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그러한 지원의 동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한국학교가 맡은 교육 사명과 교육의 가치가 모든 한인 동포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심이 관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지원으로 연결되어야 그 의미가 있게 된다. 쉽지는 않은 문제이지만 이를 위해서 한국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요구된다.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한국학교의 교육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야 하며 NAKS 차원에서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결언

간략히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미국내 한국학교는 우리 한인 2세 학생들에게 이 땅에서 꿈을 실천하고 성공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학교와 지역협의회, NAKS가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동포 교육 문화를 만들어 나 가는데 앞장서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연혁

(2019년 7월 ~ 2020년 7월)

2019

7.1 한인교육연구 통권 제 34호 발행

7.18-20 제37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장소: Double Tree by Hilton Seattle Airport

주제: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한국어 교육 (기조강연: 폴 김 교수)

- 동시 개최: 제 15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제8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 발표, 제 4회 한국역사문화 리더십 캠프, 북미 한국어 교육자 심포지엄, 정체성 포럼, 한국문화 체험관
- 사전 개최: 제 10차 한국어 교사 집중연수회

1. 학술대회 7월 18일 목요일 분반 강의

한국어 교사가 알아야 할 한국어 어문 규범(국립국어원 이승재)
역사수업과 생각 글쓰기가 함께 가는 한국학교(김구재단 김수현)
NAKS/SAT한국어 모의고사 평가 및 특강(손민호, 고은아, 김한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독도재단 김상태)
직지와 한국의 인쇄문화(청주 고인쇄박물관 황명례)

- 북미 한국어 교육자 심포지엄
- 강사 오리엔테이션
- 이사회 1차 미팅

2. 학술대회 7월 19일 금요일 분반 강의

전체 강의 (폴 김 교수 “세계 시민을 육성하는 한국어 교육”)
NAKS의 미래- 차세대 교사 육성을 위한 좌담회(좌장: 전 총회장 이승민)
교육부 및 정부기관과 함께하는 좌담회(좌장: 이사장 오준석)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의 간담회(좌장: 전 임시이사장 김용순)
창의 이미지 언어로 리딩하라(장태규)
2019년 NAKS-ACTFL교사 인증제 특강(강주언, 여승진, 오승연, 서희승, 최지혜, 김한애)
한국문화를 한국어 커리큘럼에 통합시키기(수지 오)
재미를 더하는 한국어 수업의 실제/수업준비의 첫걸음(천선화)
신나고 재미있는 한국어 수업활동 공유하기(황정숙)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교육지원사업 역사, 문화교재 초청교육사업(정문성, 정동욱)
Music Brain을 통한 한글놀이 수업(이미숙) |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전후석)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을 위한 색다른 수업(경정혜)
한국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문법교실 활동의 실제(이정희)
한지공예(라경희) | 다섯 살의 놀라운 힘(홍소영)
멀티미디어 활용 한국어 수업자료 개발(방성원)
학교 행정자들을 위한 스마트 코스 1(효율적 소통을 위한 업무 글쓰기) (백승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교육(노정희) | 말하기 중심 교육을 위한 놀이교육(박수진)
멀티리터러시의 시대: 한국어교육 의미 찾기(유지연)
종이접기를 통한 신나는 한글 수업(김명희)
창의적인 사고를 위한 학습계획안 설계 전략(강주언)

K-Pop을 배우고 UCC로 복습하는 한국어 수업(정지혜)
학교 행정자들을 위한 스마트 코스 2(효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 김구재단, SAT만점자 시상
- 이사회 2차 미팅

3. 학술대회 7월 20일 토요일 분반 강의

토요 특강 “남북한 언어 차이와 통합 노력” (국립국어원 소강춘)
청소년 정체성 함양 포럼(기조 강사: 전후석)
NAKS한국어 수업활동 포스터 경시대회 참가자 발표 1, 2 (한희영)
Web tool을 이용해 글쓰기 및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손민호)
NAKS수준별 역사, 문화 교육자료 개발 소개와 효과적인 사용(김선미)
교사, 그리고 엄마의 입장에서 본 국립국어원 개발<신나는 한국어>활용법(김은호)
기초 한국어 수업교실/Hands On Activity(이경애) | 선생님, 수업이 어렵지 않아요! (오승연)
학교 행정자를 위한 스마트 코스 3(CPR, 학교안전관리)
TOPIK으로 접근하는 쉬운 한국어 (정안젤라)
문학수업을 위한 고전 작품 이해(판소리계 작품을 중심으로) (최영옥)
소 모둠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정문성, 정영은) | 원리를 알면 한글이 보인다 (이정림)
한국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문법 교실 활동의 실제(이정희)
학교 행정자를 위한 스마트 코스 4(수준별 평가문제 은행, 낙스 아이디, 이메일 계정)(남궁 령)
색깔과 숫자를 통한 한국어 교수법(이유경) | 직지야, 놀자(이윤경)
수업 시간에 책은 안 가져와도 전화기는 꼭 가져오세요(박미영)
어문규범과 한국어 교육자료 활용법(이승재) | 한국어 수업에서 공손과 존대법 가르치기(윤상석)
이미지 스키마를 통한 문법 학습(박미정) | 온라인 툴을 이용한 한국어 수업(정동순)
스티브 잡스 축사로 배우는 글쓰기의 구성과 표현방법(백승권)
외국인 성인반을 위한 한국어 수업 가이드 라인(김한애) | 한지공예 2 (라경희)
유아, 유치반 눈, 귀, 입, 손이 함께하는 수업(박희진)
테크놀러지를 이용한 재미있는 한국어 수업 활동(황정숙, 김수진)

- 나의 꿈 말하기 대회

4. 수상자/수상학교 명단

[개교 40주년이상]

트라이앵글한국학교 (동남부), 갈보리무궁화한국학교(동북부), 산호세 한국학교(북가주), 유타한국학교(북가주), 삼페인-어바나한국학교(중서부)

[개교30주년이상]

월넛크릭한국학교(북가주), 배튼루지한국학교(남서부), 스틸워터한국학교(최지영), 영생한국학교(동중부), 디트로이트연합감리교회한국학교(미시간), 에임즈한국학교(중서부)

[개교20주년이상]

우리한국학교(동북부), 성김대건한국학교(서북미), 성요한교회한국학교(뉴잉글랜드), 내쉬빌한국학교(동남부), 넷가에심은나무한국학교(동남부), 임마누엘한국학교(북가주), 태평양한국학교(북가주), 콜로라도통합한국학교(콜로라도)

5. 장기근속 교사 수상자 명단

[35년 근속] 이광호

[30년 근속] 최기선, 유경숙

[25년 근속] 이현경, 주민정, 송해순, 박운혜, 원혜경, 조은재, 김인숙, 이지혜

[20년 근속] 성순영, 이승연, 이현경, 한애경, 황현주, 임현옥, 김귀희, 박호성, 임지현, 한상안, 이선명, 박희진, 이나경, 추성희

[15년 근속] 김나영, 강승연, 김선희, 신정희, 강현정, 노계선, 최혜원, 서순희, 박수지, 이희용, 조남은, 이선진, 김태경, 오봉숙, 이미희

[10년 근속]

김국희, 신영희, 허미화, 김신정, 이미숙, 권예순, 이해영, 윤혜정, 김경선, 이성희, 이현석, 김건희, 노시현, 전분순, 강지연, 장난실, 황영희, 박은주, 임은혜, 정은영, 김희성, 맹순영, 김연주, 김미희, 한미라, 홍정희, 김성수, 이상현, 황수희, 조수진, 송지은, 박주현, 안지영, 김선남, 김현주, 신이원, 안유선, 김영숙, 윤경아, 송채원, 김유정, 염문자, 윤혜성, 황유경, 오수연, 고성희, 김은영, 강주연, 남금희, 옥마리, 김지은, 백종희, 한지은, 김미옥, 박소은, 박영남, 추은경, 정효정, 권선희, 고 옥

6. 교육부 장관상 수상자 명단

최양선(하와이) 지수경(워싱턴) 이은애(워싱턴) 이미희(중서부) 김태경(중남부) 이선명(북가주) 고수지(동중부) 이진욱(뉴잉글랜드) 박은주(남서부) 남궁령(동남부) 고성옥(동북부)

7. 국립국제교육원 수상자 명단

고은아(동남부) 김민정(NAKS) 김한애(중서부) 성순영(남서부) 손민호(북가주) 송지은(북가주) 이선희(미시간) 이현경(뉴잉글랜드) 한지은(중서부)

8. 국립국어원 수상자 명단

권예순(남서부) 강주연(워싱턴) 김혜병(동남부) 박수지(서북미) 서희승(콜로라도) 여승진(중서부) 오승연(워싱턴) 이지혜(플로리다) 정지혜(중서부) 황현주(동북부)

9. 직지상 수상자 명단

설지안(동북부) 염혜정(동중부) 윤혜성(서북미) 임지현(남서부) 정은정(워싱턴)

10. 독도상 수상자 명단

남일(뉴잉글랜드) 송아리(북가주) 이상훈(동북부) 조영숙(서북미) 하와이중앙한글예술학교(하와이)

7.19 정기 이사회

7.20 정기총회

2020

1.3-5 지역협의회 회장, 집행부 임원, 이사회 임원 연석회의

장소: Renaissance Philadelphia Airport Hotel
500 Stevens Drive Philadelphia, PA 19113

6.30 NAKS 온라인 수업자료 개발 완료

7.11 제44차 정기 이사회

7.15 회보 제19권 2호 발간, 한인연구 통권 제35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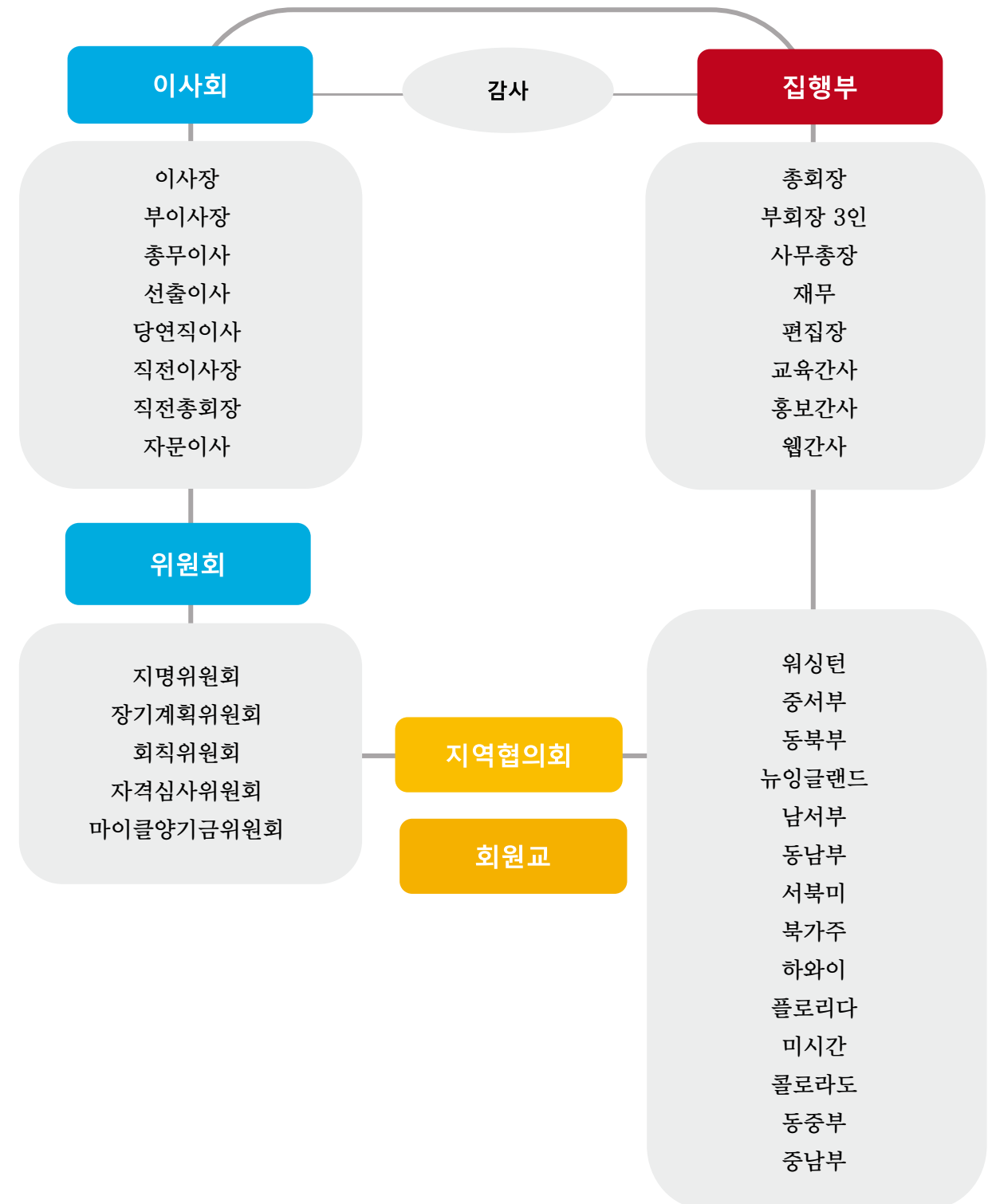
7.25 제38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정기 총회

일시: 2020년 7월 25일 오후 3시(동부시간)

장소: COVID-19로 인해 사이버 장소(Zoom Webinar)

7.25 수준별 역사문화 교육자료 E-book 발간

NAKS 조직도



NAKS 및 14개 지역협의회 창립 연혁

번호	협의회 명칭	창립일	도시	초대 회장
1	재미한인학교협의회	1981. 04. 18	Washington D.C.	주하성
2	워싱턴 지역협의회	1984. 03. 23	Washington D.C.	염영일
3	중서부 지역협의회	1985. 03.	Chicago, IL	김기원
4	동북부 지역협의회	1985. 05. 11	New York, NY	허병렬
5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1989. 10. 14	Boston, MA	김영집
6	남서부 지역협의회	1989. 11. 18	Houston, TX	하인태
7	동남부 지역협의회	1990. 11. 03	Atlanta, GA	김경숙
8	서북미 지역협의회	1991. 03. 01	Seattle, WA	오계희
9	북가주 지역협의회	1991. 03. 02	San Francisco, CA	정희상
10	하와이 지역협의회	1991. 03. 03	Honolulu, HI	조성천
11	플로리다 지역협의회	1991. 03. 16	Miami, FL	정대용
12	미시간 지역협의회	1992. 03. 21	Detroit, MI	남영림
13	콜로라도 지역협의회	1992. 03. 28	Denver, CO	선창균
14	동중부 지역협의회	2000. 09. 30	Philadelphia, PA	김정근
15	중남부 지역협의회	2007. 10. 13	Indianapolis, IN	김용순

역대이사회 임원

순위	이사장	임기	부이사장	총무이사	감사
초대	오학근	1981년 4월 - 1982년			고일석, 고충흠
2대	주하성	1984년 11월 - 1987년 8월			이춘재, 정금조
3대	강경식	1988년 9월 - 1991년 8월		류기창	김일호, 김치경
4대	허병렬	1991년 9월 - 1994년 8월	김치경 (김은자)	류기창 (김은자)	김숙자, 김송희
5대	황보철	1994년 9월 - 1997년 8월	이광자	이경이	김근순, 김정오
6대	서문원	1997년 9월 - 2000년 8월	김기봉 (임금진)	조동렬 (김근순)	김정태, 이휘자
7대	이상오	2000년 9월 - 2003년 8월	김홍준	남경숙	남영림, 이광호
8대	최경수	2003년 9월 - 2006년 8월	정원팔	심형란	이광자, 이휘자, 이내원
9대	김홍준	2006년 9월 - 2009년 8월	이내원	오금옥	홍태명, 조신숙, 정삼숙
10대	이내원	2009년 9월 - 2010년 8월	김수라	이호순	심상연, 홍태명
11대	이광호	2010년 9월 - 2013년 8월	장동구	이호순	문성록, 허낭자 심형란, 신현주
12대	장동구	2013년 9월 - 2016년 8월	김대영	김미경	신현주, 심운섭, 홍승희
13대	고은자	2016년 9월 - 2018년 8월	신현주	황희연	황현주, 길병도, 김현, 김용순
13대 임시	김용순	2018년 9월 - 2019년 8월	오준석	이병용	홍태명, 김현
14대	오준석	2019년 9월 - 현재	이병용	김현경	홍태명, 김현

역대 협의회 임원진

순위	년대	총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	편집인	간사
제1대	1981.4~1984.10	주하성 Harold Chu	강경식, 서문원, 백예원	이서구			
제2대	1984.11~1986.8	강경식 Kyung Sik Kang	서문원, 김치경,염영일	이영장	고익곤		
제3대	1986.9~1988.8	서문원 Moon Won Suh	고익곤, 김유미	김기봉	김영균	류기창	
제4대	1988.9~1990.8	허병렬 Grace Huh	황보철, 이상오, 정금조	김기봉	이휘자		
제5대	1990.9~1992.8	황보철 Charles C. Hwangbo	남영림, 김기봉, 김일호	류기창	이휘자	허병렬	
제6대	1992. 9~1994.8	김기봉 Kibong Kim	김정오, 이경이, 류기창	이광자	김근순	허병렬	
제7대	1994. 9~1996.8	이상오 Sang-0 Rhee	함혜란, 김홍준, 장혜경	방정웅	이휘자	허병렬	
제8대	1996.9~1998.8	최경수 Kyungsoo Choi	방정웅, 이광호, 박규영	명계웅	임선자	허병렬	김정태 (기록)
제9대	1998.9~2000.8	방정웅 Jung Woong Bang	이광자, 임선자, 손창현	장동구	심운섭	허병렬	
제10대	2000.9~2002.8	임선자 Suncha Lim Lee	김정태, 김근순, 강용진	심운섭	심수목	허병렬	
제11대	2002.9~2004.8	이광호 Kwang-Ho lee	장동구, 남경숙, 심운섭	김정근	이경이	이영주	이민노
제12대	2004. 9~2006.8	손창현 Chang Hyun Son	정삼숙, 심용휴, 김정근	이민노	권옥순	이영주	손애자 최희운 심수목
제13대	2006. 9~2008.8	김정근 JungKeun Gim	전수경, 권옥순, 이민노	남일	심형란	심수목	오선미 김진형
제14대	2008. 9~2010.8	이민노 Paul M. Yi	김대영, 신현주, 남일	정용철	심형란	윤미자	오선미 고은자 엄재운
제15대	2010.9~2012.8	심용휴 John Y. Shim	강상인, 강남옥, 최미영	남상엽	오금옥	김인숙	심정균 김에스더 이현진
제16대	2012.9~2014.8	강용진 Yongjin Kang	강남옥, 문윤희, 선우인호	김선미(전)	송지은(전) 한순웅(후)	김묘영	노옥남 김금자(전)
제17대	2014.9~2016.8	최미영 Miyong Kim	김정자, 김인숙, 이승민	오정선미	유미순	황정숙	한희영(교육) 권예순(홍보) 김원구(웹)
제18대	2016.9~2018.8	이승민 Daniel Lee	오정선미, 유미순	황정숙	김미경	김윤희	김선형(교육) 윤하나(홍보) 지수경(웹)
제19대	2018.9~현재	오정선미 Sunmi Jung Oh	한연성, 심수목, 임지현	한희영	정광미	권예순	이상훈(교육) 여승진(홍보) 남궁령(웹)

역대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지

회차	연도	날짜	개최 도시	개최 협의회	주제	장소
제1회	1981	4월 (창립 총회)	Arlington, VA	워싱턴	N/A	Hyatt Hotel
제2회	1984	11월	Arlington, VA	워싱턴	N/A	Hyatt Hotel
제3회	1985	11월 30일	New York, NY	동북부	N/A	Holiday Inn
제4회	1986	9월 06일	Chicago, IL	중서부	N/A	Hyatt Lincolnwood
제5회	1987	8월 30일	Baltimore, MD	워싱턴	N/A	Omni Int'l Hotel
제6회	1988	8월 27일	New York, NY	동북부	21세기로 가는 한인 2세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Marriott Hotel
제7회	1989	8월 25~26일	Chicago, IL	중서부	교육과정 정립으로 효과적인 2세교육을 하자	Hyatt Hotel
제8회	1990	8월 24~25일	Arlington, VA	워싱턴	한국의 얼을 심는 뿌리교육을 하자	Holiday Inn
제9회	1991	8월 23~24일	Houston, TX	남서부	한민족의 얼을 심는 뿌리교육을 하자	Double Tree Hotel
제10회	1992	8월 28~29일	Baltimore, MD	워싱턴	재미한인교육 재검토	BWI Marriott
제11회	1993	8월 27~28일	New York, NY	동북부	향상하는 한국학교, 성장하는 꿈나무들	Holiday Inn
제12회	1994	8월 19~20일	Chicago, IL	중서부	세계화 시대의 2세 교육	Radisson Hotel
제13회	1995	8월 25~26일	Los Angeles, CA	미주한국학교 협의회와 공동주최	21세기 지도자는 창의적인 2세 교육으로	Omni Angeles Hotel
제14회	1996	8월 09~10일	Seattle, WA	서북미	2세 교육창달은 한국 고유문화 전승으로	Pacific Lutheran Univ
제15회	1997	8월 07~09일	Chicago, IL	중서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세계인으로서의 2세 교육	Chicago Marriott
제16회	1998	8월 13~15일	Atlanta, GA	동남부	차세대 한국어 교육의 최대효과는 교육과정의 표준화로부터	Atlanta Airport Marriott
제17회	1999	7월 29~31일	Dallas, TX	남서부	한국 교육의 창조성 재발견	Harvey Hotel
제18회	2000	8월 03~05일	San Francisco, CA	북가주	새 역사를 창조하는 교육 공동체	Clarion Hotel
제19회	2001	7월 23~25일	Arlington, VA	워싱턴	새천년의 한인학교	Hyatt Regency Crystal City
제20회	2002	7월 18~20일	Philadelphia, PA	동중부	새 시대를 여는 교사	Hyatt Regency

북미지역 한국교육원 공동사업 개요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발자취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한국교육원

01 한글학교 지원

한글학교 교재 및 교과서 보급
한글학교 지원금 및 각종 업무지원

02 한국어 보급

해외 초중고 한국어 채택 개설 및 확대
한국어 강좌 운영

03 한국 유학 홍보

한국정부 유학생 유치 정책 및 제도 홍보
한국 유학 박람회 개최 및 참석 등 지원

04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모집

한국 정부 초청 대학생 장학생(GKS) 홍보 및 모집
지역 심사 및 중앙 심사를 통한 장학생 추천

05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시행

정부 인증 한국어 능력시험 시행 (매년 1회 혹은 2회)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06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TaLK) 선발

한국내 농산어촌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고, 한국 문화체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자(미국
영주권자 이상)로 4학기 이상 수료한 자

07 국제교육 교류

시도 교육청 교류 방문 활동 지원
한미 교육 관계기관 간 국제 교류 활동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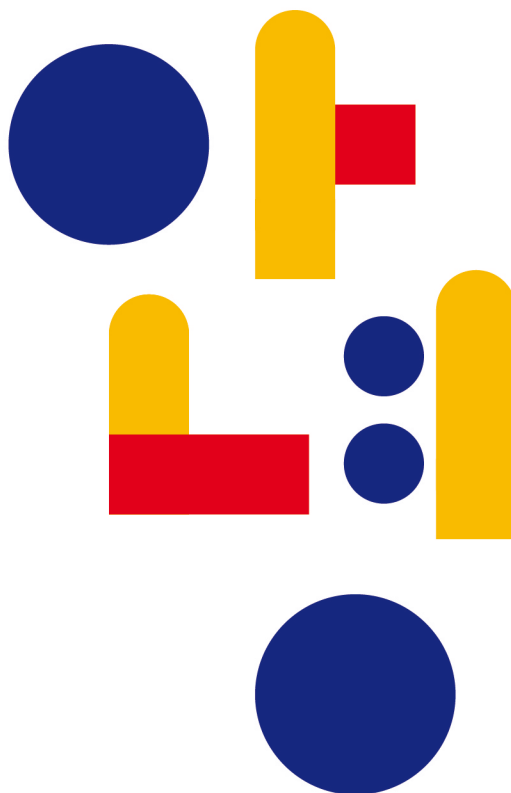
08 해외 교육 정보 수집

미국 주정부 및 지역정부 주요 교육 정책 및
제도 자료 수집 보고

회차	연도	날짜	개최 도시	개최 협의회	주제	장소
제21회	2003	7월 23-25일	Honolulu, HI	하와이	다가올 100년과 차세대 교육	Hyatt Regency
제22회	2004	7월 22-24일	Atlanta, GA	동남부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의 확립	Atlanta Marriott Gwinnett Place
제23회	2005	7월 21-23일	Houston, TX	남서부	차세대를 위한 올바른 정체성과 지도자 교육	Hyatt Regency Houston Airport
제24회	2006	7월 20-22일	Denver, CO	콜로라도	세계속의 한류 문화와 창조적인 정체성 교육	Hyatt Regency Tech Center
제25회	2007	8월 02-04일	Detroit, MI	미시간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과 교사의 역할	Hyatt Regency Dearborn
제26회	2008	7월 17-19일	Boston, MA	뉴잉글랜드	차세대 지도자 교육과 교사의 역할	Sheraton Framingham Hotel
제27회	2009	7월 22-24일	Orlando, FL	플로리다	한민족 정체성 확립과 세계를 향한 인재교육	Rosen Center Hotel
제28회	2010	7월 22-24일	Seattle, WA	서북미	한국어,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한국학교 교사 전문성 향상	Hyatt Regency
제29회	2011	7월 14-16일	San Francisco, CA	북가주	교과과정 확립과 전문성을 향한 도약	Hyatt Regency
제30회	2012	7월 24-26일	Reston, VA	워싱턴	학술대회 30년의 교육적 성과와 미래의 방향	Hyatt Regency Reston
제31회	2013	7월 18-20일	Honolulu, HI	하와이	이민 110년과 한국학교	Hilton Hawaiian Village
제32회	2014	7월 03-05일	Indianapolis, IN	중남부	봉사와 전문성	JW Marriott Hotel
제33회	2015	7월 16-18일	Teaneck, NJ	동북부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	Teaneck Marriott Hotel
제34회	2016	7월 14-16일	Denver, CO	콜로라도	소통과 공감의 열린 한국어 교육	Renaissance Denver Hotel
제35회	2017	8월 10-12일	Atlanta, GA	동남부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	Atlanta Marriott Marquis
제36회	2018	7월 19-21일	Schaumburg, IL	중서부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	Renaissance Schaumburg Hotel & Convention Center
제37회	2019	7월 18-20일	Seattle, WA	서북미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한국어 교육	Double Tree by Hilton Airport



우리말 · 우리글 교육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함께합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재외동포교육 활성화와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한국어교육을 통한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글학교용 교재개발, 재외동포용 교과용 도서 및 교재 보급 사업, 현지 교원 방문 연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해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미래 글로벌 인재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재외동포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와
재외청소년 한국어교육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